

Annual Report

2022

KBS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22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5
5. 정보공개 안내	122
※시청자 권익보호란?	128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31
7. 시청자 청원	133
8. 제작진 답변	135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42
- KBS 민원처리규정	147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52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55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60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17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19 명이 주간 2 교대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22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22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263,400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194,506건, 73.8%)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륜
2022년	263,400	▼ 23,216	-8.10%
2021년	286,616	▼ 57,734	-16.77%
2020년	344,350	▼ 29,492	-7.89%
2019년	373,842	▼ 2,780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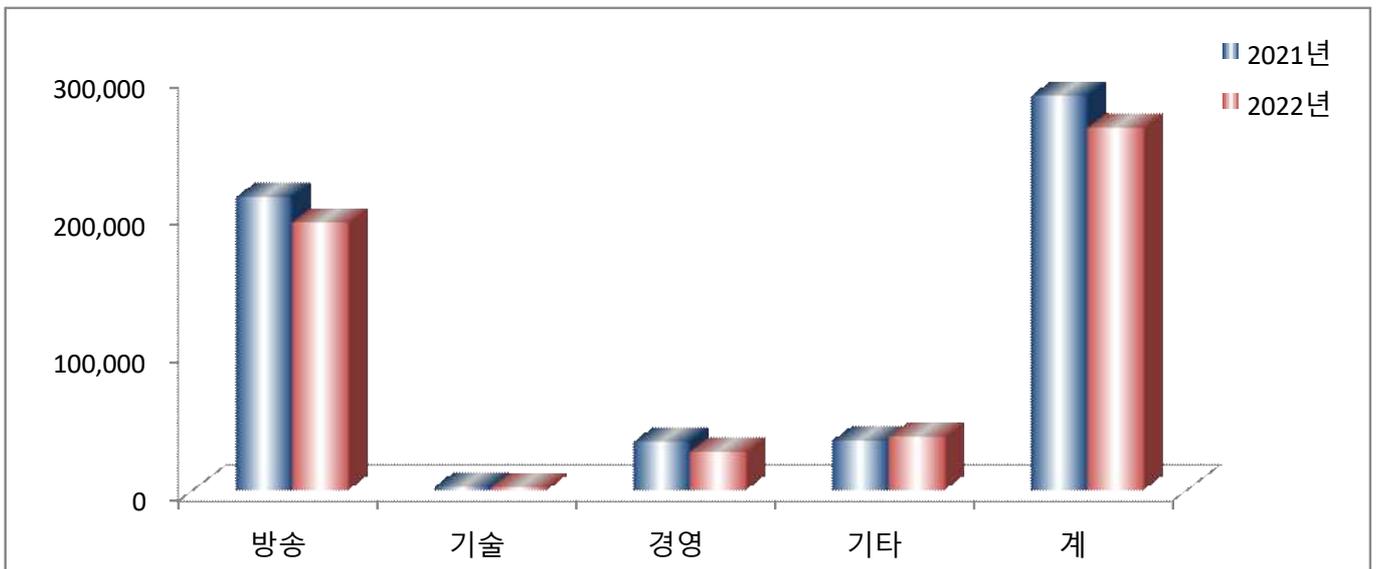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22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16,833	164	2,472	3,253	22,722	
2	15,741	126	2,662	2,959	21,488	
3	16,371	181	2,512	3,830	22,894	
4	14,882	158	2,219	3,424	20,683	
5	15,507	165	2,239	3,357	21,268	
6	16,201	164	2,218	3,263	21,846	
7	14,846	198	2,147	3,204	20,395	
8	19,569	205	2,698	3,378	25,850	
9	16,881	228	2,290	3,242	22,641	
10	16,458	157	2,134	3,025	21,774	
11	16,254	199	2,155	3,159	21,767	
12	14,963	165	2,133	2,811	20,072	
계	건	194,506	2,110	27,879	38,905	263,400
	비율	73.8%	0.8%	10.6%	1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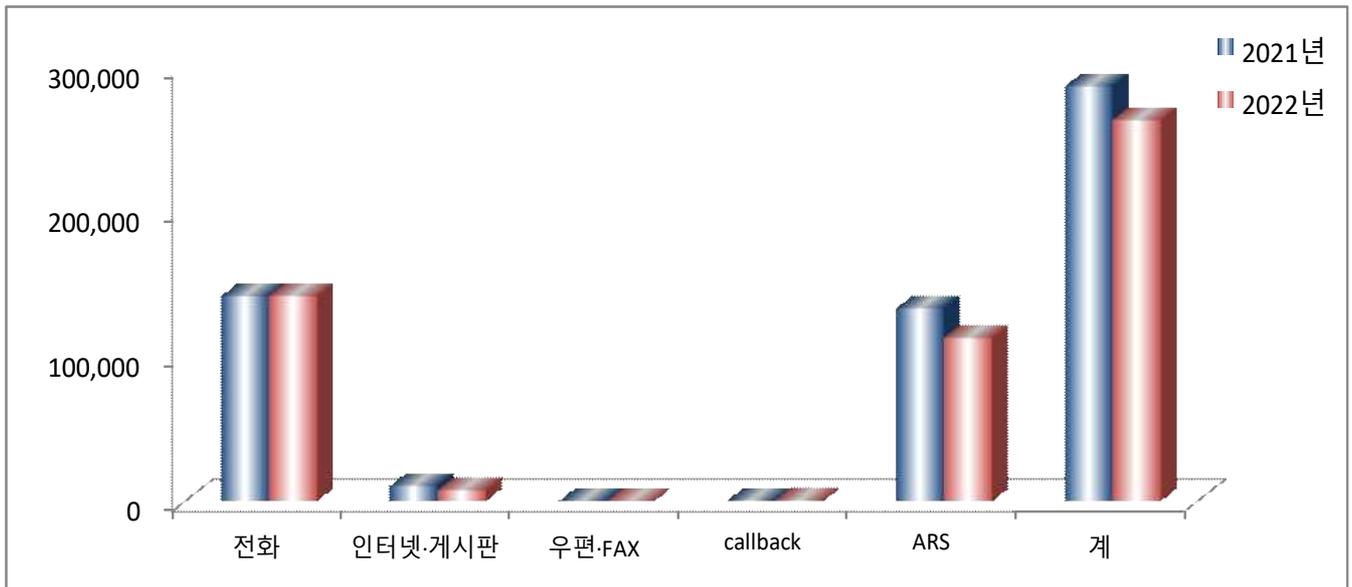
[2021년, 2022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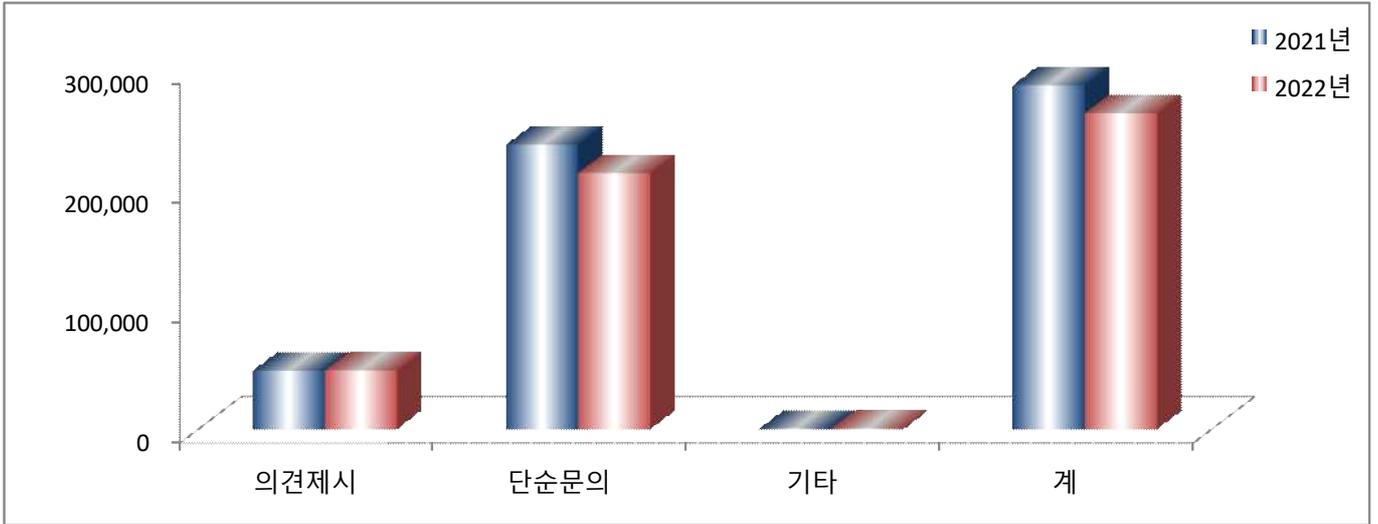
■ 2022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callback	ARS	계	
1	12,352	626	4	68	9,672	22,722	
2	12,318	595	2	68	8,505	21,488	
3	12,710	642	5	108	9,429	22,894	
4	11,014	632	5	50	8,982	20,683	
5	12,182	742	8	57	8,279	21,268	
6	11,602	360	3	56	9,825	21,846	
7	11,178	521	6	40	8,650	20,395	
8	13,046	675	7	66	12,056	25,850	
9	11,688	651	6	62	10,234	22,641	
10	11,679	670	5	79	9,341	21,774	
11	11,286	946	1	84	9,450	21,767	
12	10,838	628	7	79	8,520	20,072	
계	건	141,893	7,688	59	817	112,943	263,400
	비율	53.9%	2.9%	0.0%	0.3%	4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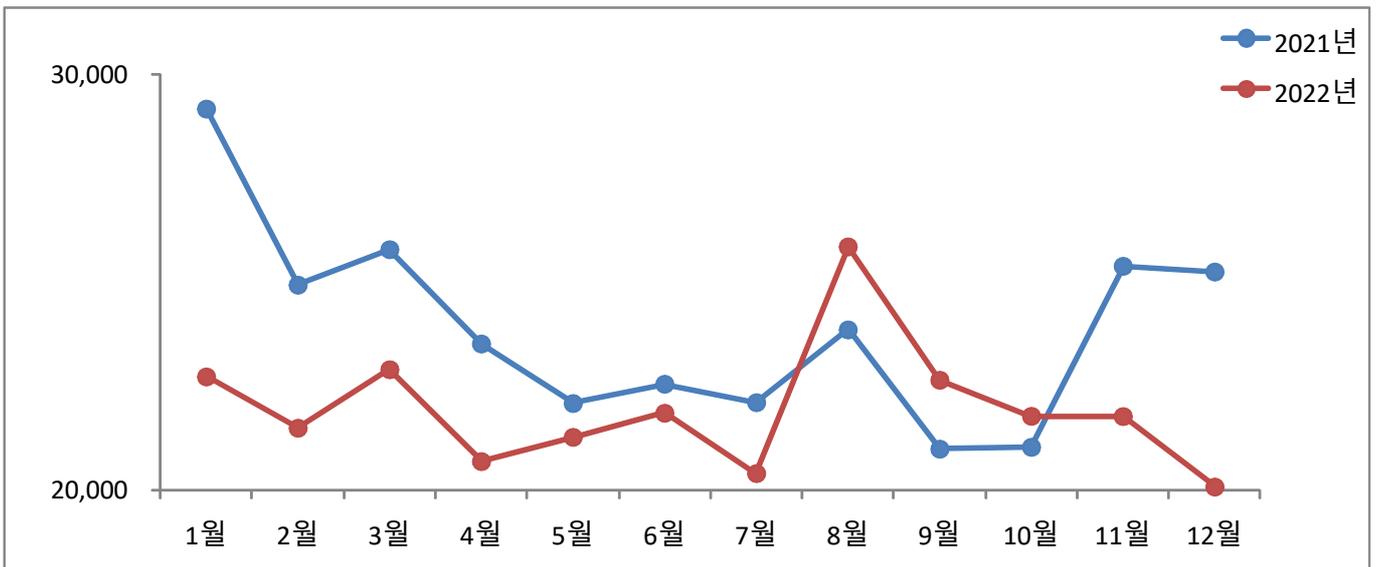
[2021년, 2022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21년, 2022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21년, 2022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22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410	55	-	114	72	132	33	-	2	818	
2	1,067	103	23	90	55	104	31	-	1	1,474	
3	175	108	-	112	45	69	49	-	15	573	
4	109	68	-	103	33	31	39	-	-	383	
5	128	343	-	178	84	57	48	-	1	839	
6	96	40	-	123	87	41	38	-	14	439	
7	79	82	-	125	58	48	42	-	1	435	
8	254	80	1	348	64	35	48	-	4	834	
9	151	90	-	97	55	49	66	-	1	509	
10	335	44	9	214	96	31	61	-	-	790	
11	245	145	-	106	75	13	46	-	84	714	
12	49	73	9	107	61	22	45	-	-	366	
계	건수	3,098	1,231	42	1,717	785	632	546	-	123	8,174
	비율	37.9%	15.1%	0.5%	21.0%	9.6%	7.7%	6.7%	0.0%	1.5%	10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태종 이방원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태종 이방원」의 말 학대 의혹이 불거진 촬영 장면 영상과 함께 성명서를 공개했다.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차마 보기 힘들었다. 끝내 말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 해당 드라마는 더 이상 방영하지 않길 바란다.	189
2월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 발생한 말 학대 사건으로 2주째 결방 중이다. 해당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해왔던 시청자로서는 결방이 길어지니 행여나 조기종영이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KBS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권 인식을 제고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해주었으면 한다.	248
3월	KBS 뉴스특보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 피해가 역대급 규모라고 한다. 역대 2위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공영방송에서 '뉴스특보' 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다른 정규 프로그램들을 모두 결방시키고 온종일 '뉴스특보'를 편성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기 바란다. 또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주었으면 한다.	53
4월	노래가 좋아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오는 24일부터 일요일 오전으로 편성이 변경되어 시청이 어려워졌다. 고정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편성 변경으로 여겨져 서운한 마음이 든다. 가급적이면 편성 변경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35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KOK 토크'이라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수익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은 'KOK 토크'의 투자자이다. 보도에서 투자자 모집의 방식을 일종의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보도 말미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의 인터뷰도 'KOK 토크'에 대한 인터뷰인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인터뷰인지 명확하지 않다.	170
6월	전국노래자랑	이날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선생님이 향년 95세로 별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송해 선생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향후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후임을 섭외해, 고인이 그토록 애정을 보였던 「전국노래자랑」의 명맥을 잘 이어갔으면 한다.	42
7월	토트넘 친선경기	지난 13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됐다. 토트넘에게는 프리시즌 일정의 첫 경기였고, 팀 K리그에게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기에 굉장히 기대가 됐다. 그러나 지상파나 케이블 어디에서도 중계를 하지 않았기에 시청자들에게 다소 서운한 경기였다. 현재 쿠팡플레이가 독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KBS에서 중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42
8월	자연의 철학자들	오는 26일에 방송되는 '자연에 스며들다' 편에 정주하-이선애 부부가 출연한다는 예고를 보았다. 그런데 정주하 백제예술대학교 교수는 학력 위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환경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지탄받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신뢰성까지 무너지게 하니, 출연자 섭외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154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으라차차 내 인생	주인공 서동희(남상지 분)가 조카를 입양해 싱글맘이 된 후, 이웃과 가족의 도움으로 자립하며 꿈을 이뤄가는 고군분투를 다룬 드라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서동희의 모습에 위안을 받고 있다. 이날도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고정 시청자가 많은 드라마를 결방하면서까지 다른 방송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48
10월	아침마당	남녀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이 좋아 매일 오전 즐겨 시청한다. 이날도 방송 시간에 맞춰 TV를 켜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인기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231
11월	스크롤 자막	지난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오후 2시경 해제되었는데, 이날 늦은 시간까지도 1TV와 2TV 모두 계속 경계경보에 대한 안내 자막이 표기됐다. 지나친 경계경보 자막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송에 대한 집중을 저해해 안타까웠다.	48
12월	전국노래자랑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K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오랜 시청자이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재치 넘치는 무대와, 고 송해 선생님의 구수하고 연륜이 묻어나는 진행을 좋아했다. 그런데 김신영씨가 진행을 맡은 이후 해당 방송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실망스럽다. 조금 더 구수하고 맛깔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18

4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태종 이방원]	189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태종 이방원」의 말 학대 의혹이 불거진 촬영 장면 영상과 함께 성명서를 공개했다.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차마 보기 힘들었다. 끝내 말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 해당 드라마는 더 이상 방영하지 않길 바란다.
1TV [태종 이방원]	161	이방원(주상욱 분)을 조명한 드라마로, 5년 만에 제작된 정통사극이라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결방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결방 사유를 알아보았고, 낙마 사고로 인해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가슴 아프지만, 해당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방송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1TV [태종 이방원]	79	1일 방송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중 낙마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장면에서 말이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말을 강제로 쓰러뜨리는 것은 동물 학대이며, 이 촬영으로 인해 말이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제작진은 속히 말의 현재 상태를 공개해주기 바란다.
1TV [태종 이방원]	15	낙마 사고와 관련해 제작진이 남긴 2차 사과문을 봤다. 말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착잡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폐지보다는, 위험한 장면 촬영 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CG 처리를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해왔던 시청자들도 많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길 바란다.
1TV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	14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 주관으로 첫 양자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며, 대선 구도가 3자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여겨지니 3자 토론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정치합시다 2]	13	이날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출연해 충청·대전·세종 민심을 살펴 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유시민 前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불편한 마음이 든다. 발언을 다소 과격하게 하는 편이므로, 조금 더 공정하고 신뢰도가 높은 패널을 섭외해주기 바란다.
2TV [2021 KBS 연기대상]	12	2021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2021 KBS 연기대상」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올 한 해 KBS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했기에 누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해서 온 가족이 모여 시청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여서 의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인데,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2	새해를 맞아 9시 뉴스에서 대선 주요 후보 4명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차례로 출연할 예정인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빠져 아쉽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허경영 후보를 포함한 소수정당 후보들의 정치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	MBC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가운데, KBS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가 많다. 대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가족 검증이 우선된 주객전도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언론에서 후보들의 가족 검증 혹은 해명에 주력하기보다는, 후보의 정책·공약·능력·경력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1TV [신년기획 가요무대]	9	새해를 맞아 '새 희망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장장 80분간의 신년특집방송을 마련해주었다.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밝고 희망찬 노래 위주로 선곡이 되어 시청 내내 흥겨운 기분이 들었고, 무엇보다 조명섭 씨가 출연해 반가웠다.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태종 이방원]	248	촬영 도중 발생한 말 학대 사건으로 2주째 결방 중이다. 해당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해왔던 시청자로서는 결방이 길어지니 행여나 조기종영이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KBS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권 인식을 제고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해주었으면 한다.
1TV [태종 이방원]	171	지난달 불거진 동물 학대 논란 여파로 3주째 결방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2주 결방을 예고했기에 이번 주에는 방송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결방되어 고정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다시 방송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2TV [신사와 아가씨]	145	'2022 베이징올림픽 중계'로 인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수 결방되거나 방송 시간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신사와 아가씨」는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드라마이고, 2TV에 편성되어 있기에 결방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1TV에서도 중계를 하고 있으니, 2TV는 정상 편성을 해주었으면 한다.
2TV [신사와 아가씨]	108	지난 주 토요일에 이어 이날도 '2022 베이징올림픽 중계'로 인해 해당 드라마가 결방됐다. 종영까지 10회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 자꾸 결방이 되니 흐름이 끊겨 재미가 떨어진다. 「신사와 아가씨」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드라마이므로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신사와 아가씨]	89	조사라(박하나 분)가 차건(강은탁 분)의 아이를 가진 후, 이영국(지현우 분)의 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조사라와 이영국이 헤어진 후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다시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지나치게 얽히고설킨 전개가 보기 불편하고,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신사와 아가씨]	88	이날 베이징 올림픽 중계로 인해 편성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춰졌다. 「1박 2일」이 오후 8시경 끝났는데, 이후 무려 20분 가까이 광고가 이어지다가 8시 20분이 되어서야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편성표보다 20분이나 지연된 것이다.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소고기 구입을 지시한 텔레그램에는 '117,900원'으로 적혀있는데, 영수증에는 '118,000원'으로 결제 내역이 찍혀있어 보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로 여겨져 편파적이다.
1TV [국가대표 와이프]	39	따뜻한 내용의 가족 드라마로 매일 저녁 시청하며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결방이 잦아 유감스럽고, 이날도 베이징 올림픽 중계로 인해 9시 뉴스가 8시에 편성되며 해당 드라마가 결방됐다. 고정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편성이 실망스럽다.
1TV [국가대표 와이프]	29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 가족 드라마여서 매일 저녁 공감하며 시청 중이다. 최근 전개가 극으로 치닫고 있어 손에 땀을 쥐며 시청 중인데,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결방되어 속상했다. 다음 회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2TV [사랑의 꺾배기]	28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꼬인 어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지난 회 방송에서 박하루(김진엽)·오광남(윤다훈)의 친자 검사를 조작하는 조경준(장세현)의 모습이 그려지며 극이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날 베이징 올림픽 중계로 결방이 되어 답답했다. 드라마는 극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 3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KBS 뉴스특보]	53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 피해가 역대급 규모라고 한다. 역대 2위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공영방송에서 '뉴스특보' 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다른 정규 프로그램들을 모두 결방시키고 온종일 '뉴스특보'를 편성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기 바란다. 또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주었으면 한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	KBS 특파원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소속돼 참전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청년 2명을 화상 인터뷰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공한 사진의 GPS 위치값을 분석해 인터뷰 당시 이들이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는 걸 확인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참전자의 위치가 표시된 화면까지 보여줘 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의용군 취재 시의 보도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20	삶의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이 출연해 진솔하고 유쾌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진행도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안타까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신사와 아가씨]	19	박단단(이세희 분)이 조사라(박하나 분)의 임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영국(지현우 분)은 그런 박단단을 단호하게 뿌리쳤고,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다. 조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이영국의 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기 싫고, 그런 조사라를 믿는 이영국도 답답하다. 종영까지 몇 회 남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속 시원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TV [특별생방송 산불피해, 함께 이겨냅시다]	19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1986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 산불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날 KBS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방송이 90분 동안 진행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산불 피해 복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	17	이날 KBS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서로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가하는데, 진행자가 제지하지 못해 답답했다. 또한 각 후보마다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점이 보기 불편했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7	지난 6일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영방송 KBS에서 '김만배 녹취록'을 상세히 다뤄주기 바란다.
2R [김혜영과 함께]	17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좋은 음악과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해 선물쿠폰에 당첨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빨리 배송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16	오는 3월 3일, KBS 공사창립 4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방송은 특별 기획으로 꾸며졌다. 시청자들의 신청곡으로 방송이 꾸며져 기대를 많이 품었는데, 평소보다 20분 늦게 편성되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할 수 없었다. 편성은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니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1TV [국가대표 와이프]	15	강남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는 서초희(한다감)의 고군분투기를 그렸다. 매일 저녁 즐겁게 시청 중인데, 해당 드라마가 유독 결방이 잦다. 이날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로 인해 결방됐다. 일일연속극을 시청하며 위로를 받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노래가 좋아]	35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오는 24일부터 일요일 오전으로 편성이 변경되어 시청이 어려워졌다. 고정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편성 변경으로 여겨져 서운한 마음이 든다. 가급적이면 편성 변경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현재는 아름다워]	13	연애도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에 나이가 꼭 찬 이가(家)네 삼 형제가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주말드라마로, 이날 첫 회가 방송됐다. 그런데 「불후의 명곡」이 끝난 후 무려 20분 가까이 광고가 이어지다가 8시 20분이 되어서야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편성표보다 20분이나 지연된 것이다.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1TV [시사 직격]	13	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효용성을 취재했다. 그런데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입장만 다뤄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공영방송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한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2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 최저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엇갈린 해명 때문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만원권 현금 결제했다는 증언 및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이 청와대에 채용된 것에 대해 보도해 주기 바란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2	2013년 첫 방송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온 KBS 대표 예능프로그램이다. 주말 저녁의 큰 즐거움이었는데, 오는 22일부터 금요일 밤으로 편성이 변경된다고 하여 당황스럽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편성을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노래가 좋아]	12	일반인들의 인생사 듣는 재미에 빠져 매주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오는 24일부터 KBS 수시조정으로 인해 요일과 방송 시간 및 채널까지 변동된다고 하여 당황스럽다.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가는 등 고정적인 일정이 있는 시청자들은 시청이 어려워질 것 같아 아쉽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편성 변경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2021-2022 여자프로농구]	8	청주실내체육관에서 KB와 우리은행의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 경기가 열렸다. 손에 땀을 쥐며 시청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며 약 25분 가까이 「뉴스특보」가 방송돼 당황스러웠다. 1분 1초가 중요한 스포츠 경기 중 중계를 잠시 중단한 점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1TV [6시 내고향]	7	해당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애란 아나운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김지윤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랜 시청자 입장에선 가애란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느껴져 서운한 마음이 든다. 늘 밝고 따뜻하게 진행해주었던 가애란 아나운서가 건강을 회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주었으면 한다.
1TV [인간극장]	7	매일 새벽 메주콩 삶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갑자 씨의 일상이 소개됐다. 35년간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전통 장을 담근다는데, 정성스레 장을 담그는 모습이 보기 좋고 신뢰가 갔다. 장 담그는 일부터 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까지, 어찌 보면 힘겨운 일상인데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이갑자 씨의 구수한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 즐거웠다.
1TV [사사건건]	6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해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해 보기 불편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연히 여당 측 입장에서 발언할 텐데, 야당 의원 없이 단독 출연은 공정하지 않다. 보다 균형 잡힌 방송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70	'KOK 토크'이라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수익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은 'KOK 토크'의 투자자이다. 보도에서 투자자 모집의 방식을 일종의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보도 말미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의 인터뷰도 'KOK 토크'에 대한 인터뷰인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인터뷰인지 명확하지 않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86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며 국회 앞에서 45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참석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농성도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민들의 인터뷰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만 다뤄졌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만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은 편파적이다
1TV [시사멘터리 추적]	70	KOK 토크 추적기가 방송됐다. KOK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과 수익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 또는 불법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도했다. 본인은 KOK 투자자로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방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
1TV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	38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이날 「열린음악회」가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꼭 시청하고 싶었는데, 바쁜 일이 있어 방송을 놓쳤다. 뜻깊은 방송인만큼 꼭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으라차차 내인생]	30	매 회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오늘 방송을 기다렸는데「2022 지방선거 KBS 초청토론」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드라마를 결방하면서 그 시간대에 토론 방송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가 있으니 본 방송 시간은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29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김용민·소성욱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제도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부부의 실태를 다뤘다.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을 공영방송 뉴스에서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현행법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동성혼에 우호적이지 않다. 동성혼을 다루려면 반대 입장도 함께 다루주기 바란다.
2TV [황금가면]	27	유수연(차예련 분)을 이혼시키기 위해 계락을 짜는 차화영(나영희 분)과, 술에 취한 홍진우(이중문 분)를 유혹하는 서유라(연민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갑질이 보기 불편했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에서도 불륜이 그려져 실망스러웠다. 극단적인 캐릭터와 자극적인 설정을 자제하고,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18	지난 13일 임영웅 씨는 1위 후보에 올랐지만, 방송점수에서 0점을 받아 2위로 밀려났다. 이후 방송점수 0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KBS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팬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점수 중 라디오 부분은 KBS 쿨FM 7개 프로그램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원이나 음반점수보다 방송횟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1TV [2022 지방선거 KBS 초청토론]	17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출연했다. 본인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는데, 강용석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부분에서 버퍼링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기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후보의 공약만 누락된 점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1TV [아침마당]	16	'엄마의 뒷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패널 중 한 명인 표창원 씨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침마당」은 선한 이웃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송인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의 출연이 불편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출연자 섭외를 신중히 해주었으면 한다.

6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전국노래자랑]	42	이날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선생님이 향년 95세로 별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 국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송해 선생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향후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후임을 섭외해, 고인이 그토록 애정을 보였던 「전국노래자랑」의 명맥을 잘 이어갔으면 한다.
2TV [황금가면]	13	유수연(차예련 분)이 론칭쇼 준비로 바빠진 사이, 서유라(연민지 분)가 SA그룹 머느리 행세를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서유라는 론칭쇼를 준비하던 유수연을 탐차에 가두기까지 했다. 현실에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악행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등장인물들에 공감할 수가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며 불편하지 않도록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사사건건]	12	누리호 발사 중계로 이날 해당 방송의 결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발사가 취소됐다. 그래서 당연히 「사사건건」이 편성될 것을 기다렸으나, 뜬금없이 「이슈 픽 쌤과 함께」의 재방송이 편성되어 아쉬웠다.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고정 시청자가 많은 방송이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11	이번 '명불허전' 코너에는 평균 나이 50세의 연연계 늦둥이 아빠들이 출연했다. 이상인 씨, 홍록기 씨, 김현욱 씨 등 다양한 출연자들이 근황을 전한 후 시청자들에게 춤과 노래를 선사했다. 그런데 이날은 다름 아닌 현충일이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에, 출연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1TV [2022 단오장사 씨름대회]	10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 야외 특설무대에서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개최됐다. KBS 중계로 시청했는데, 방송 내내 손에 땀을 쥐었다. 씨름이 대중들의 눈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생로병사의 비밀]	9	장수와 웰빙, 비만과 질병 등 의학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빠짐없이 시청한다. 이해하기 힘든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날 국민 MC 송해 선생님의 별세로 추모 특집 방송이 편성됨에 따라 해당 방송이 결방됐다. 이날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2TV [황금가면]	9	지난 방송에서 서유라(연민지 분)는 거짓불륜 정황을 포착한 유대성(전인택 분)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대성은 죽지 않았고, 서유라는 전 남자친구를 이용해 유대성을 죽였다. 이날 서유라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 전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며, 두 번의 살인을 저질렀다.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설정이 끔찍하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전개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동물극장 단짝]	9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32마리의 견공들을 돌보는 수의사 손서영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개들에게 쌀밥을 지어 먹이고, 돼지 등뼈와 닭고기를 삶아 먹이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밥을 굶는 빈곤층이 있다. 과한 동물 사랑이 보기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중계방송 6.25전쟁 제72주년 행사]	8	6.25전쟁 제72주년 행사가 이날 오전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6.25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해주는 방송사가 거의 없어 안타까웠는데, KBS에서 해당 행사를 중계해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덕분에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었다.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이번 행사를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7	건강기능식품 회사 CEO 여에스터 씨가 새로운 보스로 합류했다. 여에스터 씨는 이미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 이상을 보유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공영방송까지 출연해 자신의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장윤정 씨의 단합대회 부분에서, 후배들이 장윤정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역 특산물로 선물공세를 퍼붓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토트넘 친선경기]	42	지난 13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됐다. 토트넘에게는 프리시즌 일정의 첫 경기였고, 팀 K리그에게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기에 굉장히 기대가 됐다. 그러나 지상파나 케이블 어디에서도 중계를 하지 않았기에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서운한 경기였다. 현재 쿠팡플레이가 독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KBS에서 중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1TV [동네 한 바퀴]	18	180번째 여정은 새 진행자 이만기 씨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로 떠났다.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김영철 씨에게 익숙해진 탯인지, 이만기 씨의 진행이 낯설고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김영철 씨만의 구수함이 해당 방송의 매력이었는데, 큰 매력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다. 추후에는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의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2TV [황금가면]	13	서유라(연민지 분)가 남편 홍진우(이중문 분)에 대한 분노로, 홍진우와 전처의 아들 홍서준(정민준 분)을 옷장에 가두는 장면이 방송됐다. 홍서준이 용서를 빌었지만 서유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다음날 홍서준은 끝내 기절했다. 지난 방송에서도 아동학대가 그려져 보기 불편했는데, 이날 그려진 아동학대는 너무 잔인해 시청 내내 불쾌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내용을 시정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한 기사를 접했다. 시청자들이 보기도 보도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반면, 정부와 여당에는 비판적이다.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0	16일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다. 본인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기사에서 경찰 추산으로 퀴어축제에는 만 3천여 명, 반대집회에는 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는데, 반대집회 참가자는 만 5천여 명보다 많았다. 또한 반대집회보다 퀴어축제를 더 중점적으로 보도한 점도 편파적이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9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성과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작은 잘못도 부각돼 보도되는 점이 안타깝다. 아직 임기 초반의 정권에 대해 연일 흠집을 부각시키면, 앞으로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영방송으로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1R [주진우 라이브]	8	KBS 라디오를 즐겨 청취한다. 해당 방송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분석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 진행자가 정치색이 강하고 편향된 발언을 자주 해서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공영방송이고 시사 프로그램이므로 진행자는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8	지난 5월, 우리사회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부부의 사례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가 청원글을 올렸고 2,03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KBS 보도본부에서 공영방송의 뉴스는 소외된 소수자의 입장과 현실을 전달할 책무가 있고, 대신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는 답변을 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선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1TV [사사건건]	8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출연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를 비롯해 최근 정치 현안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박지원 전 비서실장만 섭외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원로정치인의 출연이 피로감을 안긴다.
1TV [TV쇼 진품명품]	7	일반인이 소장한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덕분에 명품을 발굴해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있다. 이날 개그맨 김민수, 정재형, 이용주 씨가 산악회 회원 콘셉트로 출연했다. 해당 방송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데, 출연자들이 등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방송에 임했다. 장난스러운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이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자연의 철학자들]	154	오는 26일에 방송되는 '자연에 스며들다' 편에 정주하·이선애 부부가 출연한다는 예고를 보았다. 그런데 정주하 백제예술대학교 교수는 학력 위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환경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지탄받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신뢰성까지 무너지게 하니, 출연자 섭외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1TV [시사멘터리 추적]	74	월남전에 참전했던 시청자이다. 당시 5천 명이 넘는 한국군이 사망했고, 2만 명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다. 본인 또한 목숨을 걸고 참전했는데, 이날 방송에서 한국군을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로 다뤄 참담하다. 현재도 수많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월남전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무력감을 안긴 점에 실망스럽다.
1TV [으라차차 내 인생]	66	평범한 고등학생이 갑작스런 사고로 조카를 입양해 싱글맘이 된 후 벌어지는 고군분투기를 다룬 드라마로, 매 회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이날도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당황스러웠다. 고정 시청자가 많은 드라마를 결방하면서까지, 그 시간에 다른 방송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46	매일 오전 「아침마당」을 시청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남녀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과 알찬 방송 내용 덕분에 오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 이날도 「뉴스특보」편성으로 인해 결방이 됐다. 이를 연속 결방이 되어 오랜 시청자로서 서운함을 느꼈다.
1TV [가요무대]	27	옛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전국노래자랑]	24	올해 6월 별세한 송해 선생님에 이어 방송인 김신영 씨가 새 진행자로 발탁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김신영 씨는 아직 젊어서 경험으로 축적된 연륜이 부족하고, 음악인도 아니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지도 않기에 시청자 입장에선 의아했다. 또한 진행 중 개그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1TV [동네 한 바퀴]	1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향으로 손꼽히는 전남 여수로 떠났다.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여수를 다뤄주어 좋았지만, 새로운 진행자 이만기 씨로 인해 방송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김영철 씨처럼 푸근하고 구수한 성품이 아니라, 위압적이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시청 내내 보기 안 좋았다. 김영철 씨를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1TV [단독 인터뷰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다]	18	지난 24일, 바티칸 바로 6세 강당에서 열린 KBS와 로마 카톨릭교회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의 단독 인터뷰를 방송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겠지만, 타 종교인들에게는 정규 편성을 결방시키면서까지 해당 방송을 편성한 점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1TV [동네 한 바퀴]	14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도시 기행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우리나라 곳곳의 숨겨진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다큐멘터리 편성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2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이 지금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취임 후 고작 3개월 남짓 흘렀는데, 언론에서 정보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보도를 내는 점이 보기 안 좋다. 또한 한국리서치 사의 조사방법에도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으라차차 내 인생]	48	주인공 서동희(남상지 분)가 조카를 입양해 싱글맘이 된 후, 이웃과 가족의 도움으로 자립하며 꿈을 이뤄가는 고군분투를 다룬 드라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서동희의 모습에 위안을 받고 있다. 이날도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고정 시청자가 많은 드라마를 결방하면서까지 다른 방송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32	옛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행사장에서 비속어를 섞어 한 말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순방의 성과가 묻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비판보다는 성과 위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
1TV [2022 추석장사 씨름대회]	16	'2022 추석장사 씨름대회'가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KBS에서 중계해준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추석을 맞아 공영방송 KBS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 대회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1TV [가요무대]	11	이날 방송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괴산에서 진행됐다. 초가을 정취를 느끼며 우리 가요를 즐기던 중, 배일호 씨부터 박상철 씨, 김혜연 씨의 무대에서 가수들의 입모양과 싱크가 맞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소한 사고가 무대에 대한 집중을 저해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전국노래자랑]	10	송해 선생님의 후임 진행자로 발탁된 김신영 씨가 대구에서 열린 첫 녹화를 마쳤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섭외에 놀란 시청자가 많다. 송해 선생님처럼 연륜이 묻어나는 중장년층 진행자를 기대했기에 아쉬운 심정이다. 또한 음악인도 아니어서 앞으로 어떤 진행을 보여줄지 우려가 된다.
1TV [특집 KBS 뉴스 9]	10	KBS의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를 빠짐없이 시청한다. 이소정 앵커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진행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일부터 이소정 앵커가 진행을 맡지 않아 휴가를 간 것인지 궁금하다. 이소정 앵커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으니 속히 돌아와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1TV [사사건건]	10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대통령 발언 녹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허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너무 거칠게 공격해 듣기 불편했다. 이토록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부풀리다보면 결국 국격을 떨어뜨리게 되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2TV [현재는 아름다워]	9	진수정(박지영 분)이 간암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버지 이경철(박인환 분)의 귀에 들어갔다. 이경철은 겨우 찾은 딸이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혼절했다. 이날 이경철의 애타는 부성애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가족들이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종영까지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면 한다.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9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충실히 다뤄주어 출근길에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야권 편향적이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발언을 할 때가 많아 듣기 불편하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아침마당]	231	남녀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이 좋아 매일 오전 즐겨 시청한다. 이날도 방송 시간에 맞춰 TV를 켜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인기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1TV [다큐 온]	98	지난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모색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와 논의 끝에 소각장을 설치한 덴마크와, 주민들이 모르게 선정하고 진행하는 마포구의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서울시 입장에 근거한 방송이라 상당히 편파적이다.
1TV [「전국노래자랑」]	41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가 이날 방송인 김신영 씨로 교체됐다. 사실 본인을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은 송해 선생님처럼 연륜이 묻어나는 중장년층 진행자를 기대했다. 김신영 씨는 아직 젊어서 경험으로 축적된 연륜이 부족하고, 음악인도 아니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지도 않기에 해당 방송의 진행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1TV [6시 내고향]	18	매일 저녁마다 「6시 내고향」을 찾는 오랜 시청자이다.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등,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아 늘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당황스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17	이날 박지원·이상돈, 두 원로 정치인이 출연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진정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사건건」, 「더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KBS 시사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많이 출연하는 것 같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인데 방송 출연은 자제했으면 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태풍의 신부]	15	지난 10일 첫 방송된 일일드라마로, 지난 방송에서 성인이 된 강바람이 은서연(박하나 분)으로 바뀌는 장면에서 방송이 끝났다.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날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답답했다. 극의 흐름이 끊기면 흥미가 떨어지니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시사 직격]	14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겼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를 맡은 시공 업체들 중에서 수상한 계약이 발견되어, 이날 논란이 된 시공 업체를 찾아갔다. 이제까지 어느 정부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 대해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14	10월의 메뉴 출시를 위한 대결이 펼쳐졌다. 배우 겸 화가 김규리 씨도 출연했는데, 김규리 씨는 과거 광우병 파동 때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 놓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후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공개돼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책임감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은 섭외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KBS 뉴스 12]	14	12시 뉴스를 즐겨 시청한다. 오전까지 발생한 뉴스를 종합해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무척 만족스럽다. 그런데 이날은 기존 방송시간보다 20분가량 늦게 시작되어 의아했다. 시청자와의 약속인 방송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2	이날 오후 1시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3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고, 본인도 해당 집회에 관심이 많아 9시 뉴스를 주의 깊게 시청했으나 보도되지 않아 의아했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2TV [스크롤 자막]	48	지난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오후 2시경 해제되었는데, 이날 늦은 시간까지도 1TV와 2TV 모두 계속 경계경보에 대한 안내 자막이 표기됐다. 지나친 경계경보 자막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송에 대한 집중을 저해해 안타까웠다.
[콩 어플 실행 오류]	35	항상 콩 어플을 이용하는 청취자이다. 이날 콩 어플이 실행되지 않아 답답하고 당황스러웠다. 어플을 재설치 해봤으나 열리지 않았고, KBS KONG이 중단되었다는 문구만 계속 떴다. 어플이 실행되지 않는 원인을 신속히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해주기 바란다.
1TV [특집 KBS 뉴스 9]	30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공개석상에서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다. 이날 뉴스를 시청하니, 진행자 또한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다.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에서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27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출연해 남겨진 가족들의 심정과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사과가 없고, 10조를 받아도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불의의 사고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며, 공영방송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도하는 것도 편파적이었다.
1TV [가요무대]	26	흘러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이날 「긴급진단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없었나」 편성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2022 프로야구-한국시리즈 1차전]	21	2022 시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개막했다. 현재 많은 방송사에서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예능 프로그램들을 대거 결방하고 있다. 물론 한국시리즈도 국가 애도 기간에 시작된 만큼 단체 응원이나 치어리더 공연이 없었지만, 150여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스포츠 경기 편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1TV [전국노래자랑]	20	이날은 충북 영동군 편으로 꾸며졌다. 출연자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냈지만, 고(故) 송해 선생님이나 이호섭 작곡가가 진행할 때만큼 흥이 나지 않았다. 해당 방송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젊은 김신영 씨가 홀로 진행을 맡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구수하고 맛깔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연륜이 묻어나는 진행자를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20	이날은 전라북도 완주군을 찾았다. 출연자들이 선보이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만 김신영 씨의 진행이 다소 아쉬웠다. 우선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고 송해 선생님 같은 푸근함이 없어 재미가 떨어진다. 42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그 맛과 멋을 살릴 수 있는 중장년층 진행자를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19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밀리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KBS 1TV에서 온종일 뉴스특보를 편성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뉴스를 이어갔다. 그런데 온종일 특보가 이어지다보니 내용이 계속 겹쳐 크게 유익하지 않았다. 특보 편성이 지나친 것 같아 아쉽다.
2TV [불후의 명곡]	18	젊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곡으로 재탄생시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몹시 좋아하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다음 주부터는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전국노래자랑]	18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K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오랜 시청자이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재치 넘치는 무대와, 고 송해 선생님의 구수하고 연륜이 묻어나는 진행을 좋아했다. 그런데 김신영 씨가 진행을 맡은 이후 해당 방송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실망스럽다. 조금 더 구수하고 맛깔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14	남녀노소가 장르를 불문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전국노래자랑」의 오랜 시청자이다. 이날도 각양각색의 참가자들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다만 김신영 씨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아쉽고, 고 송해 선생님처럼 구수한 입담도 부족해 재미가 떨어진다. 해당 방송 특유의 위트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연륜 있는 남성 진행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13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약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많은 국민들이 해당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일 언론에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가 보도되니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다. 서민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했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밀리는 점도 안타깝다.
1TV [전국노래자랑]	12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편이 방송됐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한 각양각색의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진행자 김신영 씨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최대한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아직까지 고 송해 선생님만의 분위기와 유머를 잊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연륜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1TV [사사건건]	12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고, 국정원 불법사찰 등 다수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시청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패널을 섭외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KBS 뉴스 9]	8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46일이 지난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새로운 분향소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사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안타깝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했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추모의 분위기가 길게 이어지며 슬픔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도 든다.
2TV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조별리그 H조 대한민국 : 포르투갈]	6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을 KBS 중계를 통해 시청했다. 이광용 캐스터와 한준희·구자철 해설위원의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설과 중계가 신뢰도를 높인다. 이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해서 행복했다. 좋은 중계방송을 해준 KBS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2TV [뮤직뱅크]	6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해주는 가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응원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속상했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1TV [사랑의 가족]	6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 특별한 신발을 만드는 남궁정부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발가락이 없거나 발 모양이 뒤틀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지하철 추락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후, 절망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TV [성탄 기획 동네 한 바퀴]	6	200번째 여정은 600년의 시간을 이어낸 서울 정동으로 떠났다. 격동의 역사가 지나간 자리답게 대한민국 교육, 외교, 언론, 종교 등의 시작을 연 공간들이 가득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 방송을 통해 곡절 많은 풍경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단지 재미만이 아닌, 감동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명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명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2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KBS 시청자의견 일일보고서 [3.14]

■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000, 2217)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3. 11.(금) 06:00 ~ 2022. 3. 13.(일) 23:00
- 상담건수¹⁾: 1,556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8명)

- 프로그램명 :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서울 방배동’
- 방송일시 : 2022. 3. 12.(토) 1TV (19:10-20:05)

161번째 여정은 서초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방배동으로 떠났다. 서울 속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몽마르뜨 공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2호로 지정된 효령대군 이보의 묘역인 청권사 등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각 동네별 음식이나 그 지역만의 명소, 특색 등을 소개 해주어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조명해주기 바란다.

○ 상품 배송 기간 제언(17명)

- 프로그램명 : 「김혜영과 함께」
- 방송일시 : 2R (월-일) (14:00-16:00)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좋은 음악과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해 선물쿠폰에 당첨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빨리 배송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외 7건.
 - ‘신사와 아가씨’ 종영 관련(동의수 9건) : 주말 저녁시간에 인권침해, 폭력적이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송으로 조기종영과 작가, PD 퇴출과 공식 사과문을 요청합니다.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556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950	33	-	-	573	1,556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712	485	31	-	1	327	1,556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320	1,236	-	1,556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28	17	158	253	1,556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결방 제언 ○「개승자」 - 후속 방송 요청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 보도 호평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대담-2022 국민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 출연자 섭외 제언 ○「걸어서 세계속으로」 - 방송 호평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방송 호평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혜영과 함께」 - 상품 배송 기간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 ‘편성’ 문의 70건 ○「6시 내고향」 - ‘김치만두’ 연락처 문의 62건 ○「인간극장」 - ‘출연자’ 연락처 문의 46건 ○「2TV 생생정보」 - ‘낙지보쌈삼합’ 연락처 문의 42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도다리썩국’ 연락처 문의 23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시청」문의 15건 ○「수신기술」문의 1건 외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문의 67건 ○「수신료」문의 37건 ○「프로그램 구입」문의 41건 ○「전화교환」문의 11건 ○「주차」문의 1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253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출연자 섭외 제언	<p>○「특별 대담-2022 국민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3명) - 2022. 3. 10.(목) 1TV (22:00-23:30) - 20대 대선의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 이날 KBS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특별 대담을 준비해, 이번 대선의 민심과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를 집중 진단했다. 방송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었는데, 1부에 국민의힘 측 의원만 출연하고 민주당 측 의원이 출연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 의견을 들어볼 수 없어 아쉬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출연자>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p> <p>○「걸어서 세계속으로」'칠레'(2명) - 2022. 3. 12.(토) 1TV (09:40-10:30) -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 칠레를 소개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부터 남태평양 미지의 섬 이스터섬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기분전환이 됐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행을 떠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데,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서울 방배동'(8명) - 2022. 3. 12.(토) 1TV (19:10-20:05) - 161번째 여정은 서초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방배동으로 떠났다. 서울 속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몽마르뜨 공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2호로 지정된 효령대군 이보의 묘역인 청권사 등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각 동네별 음식이나 그 지역만의 명소, 특색 등을 소개해주어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조명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방송 호평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3. 12.(토) 1TV (22:30-23:15) -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현장과 글로벌 이슈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특파원들의 생생한 취재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날은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키이우의 소식 등을 전해주어 주의 깊게 시청했다.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자세히 전달해 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라디오]	
상품 배송 기간 제언	<p>○「김혜영과 함께」(1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R (월-일) (14:00-16:00) -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좋은 음악과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해 선물쿠폰에 당첨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빨리 배송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부서답변> 홈페이지 내 청취자 문의에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라디오2]</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52 건</p>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더 라이브」

- 수많은 뉴스 속에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녁 시청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결방이 있었다. 매일 저녁 해당 방송을 유익하게 시청하는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

- 3명의 스타가 국민 일꾼이 되어 시청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전국방방곡곡에서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본인은 대전에 거주하는데 재방송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다. 대구, 김해, 영덕, 원주 등의 지역에도 편성이 되지 않아 불만이 자자하다.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2022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빈필하모닉이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음악회를 보여주는 방송이다. 좋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어서 해마다 잊지 않고 챙겨본다. 그러나 편성이 너무 늦어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시청하기 어렵다.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

- 지난 2일에 방송됐던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재방송됐다. 유익한 내용이 많아 집중해서 시청 중이었는데, 강연 도중 방송이 중단되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아무리 재방송이지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강연을 끝까지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 이방원(주상욱 분)을 조명한 드라마로, 5년 만에 제작된 정통사극이라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결방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결방 사유를 알아보았고, 낙마 사고로 인해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가슴 아프지만, 해당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방송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1TV 「2022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막식을 열었다. 지상파 3사 중 어느 방송사를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재후 아나운서와 송승환 전 감독이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는 KBS를 선택했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진행해주어 만족스러웠고, 품격 있는 중계도 칭찬하고 싶다. 개막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2월 7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단편야화전'

- 매주 금요일마다 KBS 1TV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독립영화가 가진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점과,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영화 선정이 마음에 든다. 이날은 올림픽 중계로 인해 결방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늦은 시간이라도 결방하지 않고 편성해주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덕분에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즐거웠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을 바로잡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게 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해당 방송을 꼭 챙겨보는데, 이날은 한창 바쁜 낮 시간대로 편성이 바뀌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편성시간을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국가대표 와이프」

- 따뜻한 내용의 가족 드라마로 매일 저녁 시청하며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결방이 잦아 유감스럽고, 이날도 베이징 올림픽 중계로 인해 9시 뉴스가 8시에 편성되며 해당 드라마가 결방됐다. 고정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편성이 실망스럽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자연의 철학자들」

- 7부작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린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했다. 순수한 영상과 자연 속에서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가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아 매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했다. 각박한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고 따뜻한 다큐멘터리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규 편성 되었으면 좋겠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초청 1차'

- KBS를 비롯해 MBC와 SBS까지, 지상파 3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가 생중계됐다. 대선에 갖는 사회적 중요성은 알지만, 똑같은 토론회를 지상파 3사에서 모두 중계하는 것은 전파 낭비로 여겨진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지상파 3사에서 순번을 정해 중계하여, 정규 프로그램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2월 23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편성으로 인해 9시 뉴스가 뒤로 밀리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해주고, 책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비화를 들을 수 있어 매주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런데 원래 화요일 오후 편성이던 방송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토요일 오후로 바뀌었다가, 최근 다시 일요일 오후로 바뀌었다. 편성 시간과 요일에 자주 변동이 생기니 고정 시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가급적이면 편성 변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덕분에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었다.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식을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3월 2일 보고서>

○ 1TV 「뉴스특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발표'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고, KBS 1TV에서 기존 프로그램들의 편성을 변경하고 '뉴스특보'를 편성했다. 물론 대선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단일화가 성사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뉴스 시간에 다뤄도 될 사안을, 기존 프로그램들의 편성을 변경하면서까지 특보를 편성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불만스러웠다. <3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 피해가 역대급 규모라고 한다. 역대 2위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공영방송에서 '뉴스특보' 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다른 정규 프로그램들을 모두 결방시키고 온종일 '뉴스특보'를 편성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기 바란다. 또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주었으면 한다. <3월 7일 보고서>

○ 1TV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방송」

-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대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 또한 이번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여 우려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삶의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이 출연해 진솔하고 유쾌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진행도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안타까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 세계 일류의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들이 제작한 고급 다큐멘터리들을 엄선해 우리말로 더빙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곳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쉬웠다.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산불피해, 함께 이겨냅시다」

- 지난 16일, KBS에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생방송이 90분 동안 진행됐다. 그런데 워낙 피해의 규모가 커서, 90분 동안의 방송으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이 충분히 모였을지 걱정이 된다. 몇 차례 더 특별생방송을 편성해 산불 피해 복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시사대담 프로그램으로, 박태서 기자가 진행을 맡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심층적으로 진단해서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해주어 일요일마다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일주일에 한 번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가급적이면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찬란하고 위험한 발굴 1. 발굴 100주년, 투탕카멘 저주의 비밀'

- 과거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날 모두가 흥미롭게 여기는 '투탕카멘 저주의 비밀'을 다뤄 시청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국 시청하지 못했다. 다음날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편성 시간을 조정해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으라차차 내 인생」[첫 회]

- 응원하고 싶은 어린 싱글맘의 고군분투 이야기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어느새 삶의 의지를 다져 볼 수 있는, 위로받고 치유받는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라 첫 방송이 너무 기대된다. 이름만 들어도 깊은 신뢰감이 느껴지는 배우들이 출연한다고 하니 믿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100명의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전 연령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영되었지만, 아직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기억하며 다시 보고 싶은 시청자들이 많다. 후속 제작이 어렵다면 과거 방송이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2021-2022 여자프로농구」'챔피언결정 1차전 KB스타즈 : 우리은행'

- 청주실내체육관에서 KB와 우리은행의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 경기가 열렸다. 손에 땀을 쥐며 시청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며 약 25분 가까이 「뉴스특보」가 방송돼 당황스러웠다. 1분 1초가 중요한 스포츠 경기 중 중계를 잠시 중단한 점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장노년의 슬기로운 등산법, 둘레길 걷기'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집 근처 둘레길 걷기에 도전하는 장노년 층이 많다. 이날 장노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둘레길 걷기의 효과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분석해주었는데, 매우 유익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시청을 권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4.19 특집 다큐 할머니의 1960년 4월」

- 62년 전 민주와 정의를 외쳤던 5명의 소녀를 주축으로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다큐 프로그램이다. 민주주의가 어떤 시련을 거쳐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4월을 맞아 4·19 혁명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4월 1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지난 2020년 3월부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서「코로나19 통합뉴스룸」체제로 뉴스 전체를 일원화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며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KBS에서도 통합뉴스룸 체제를 벗어나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장애인의 날 기획 시사기획 창」'나의 두 번째 발'

-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의족을 구입하고, 어떤 의족을 쓰며,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의족의 수명은 5년 안팎인데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칠천만 원을 육박하는 가격이 충격적이었다.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획의 방송인데 너무 늦은 편성이 아쉬웠다. 초저녁 시간에 편성해주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안타깝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구석구석 오지를 찾아다니며 담아온 비경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다양한 지역의 풍광을 감상하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너무 이른 시간 편성으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때가 많아 속상하다. 직장인들에게 주말 오전 5시는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니, 편성을 조금 늦춰주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시의성 있는 시사 이슈들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이 분석해주어 자주 시청한다. 덕분에 뉴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중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될 수 있으면 결방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식」

-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이날 오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KBS에서는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된 봉축법요식을 생중계했다.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이날의 뜻을 기리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시청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뜻깊은 날 뜻깊은 중계방송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어버이날 기획 노래가 좋아」

- 어버이날을 맞아 '세상에 이런 부모 자식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진행했다. 다양한 부모·자식들이 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시 한 번 시청하고 싶은데 재방송이 없어 아쉽다. 방송을 놓친 사람들, 그리고 한 번 더 시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어버이날 기획 가요무대」

- 오랜 시청자이다. 원래는 60분 편성이었는데, 2020년에 50분 편성으로 축소됐다.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요청 때문인지 한동안 다시 60분간 방송되었으나, 작년 9월경부터 55분으로 축소됐다.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해당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60분으로 편성을 확대해주시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5.18 특집 다큐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

-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2주년을 맞는다. 예고편을 통해 5.18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가 편성된 것을 알고 반가웠다. 사건 당시 작성된 군 기록 등이 사후에 변조된 정황이 많아 진실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날에 관한 새로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방송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제42주년을 맞았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KBS 중계로 해당 기념식을 지켜보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5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양국 정상뿐 아니라 주요 정부 인사들과 국내 10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만찬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뉴스특보'가 편성되지 않아 답답했다. 타 방송사들에 비해 KBS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보도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5월 23일 보고서>

○ 1TV 「202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 6.1 지방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두 번째 '경기도지사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들이 서로의 의혹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경기도민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방송이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은 시간대 편성으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했다. 앞으로 중요한 토론회는 사람들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해주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 1TV 「국민MC 송해 추모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 지난 8일, 최고령 현역 MC 송해 선생님이 별세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날 KBS에서 송해 선생님의 별세를 애도하며 추모의 뜻으로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늘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던 송해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 멀리서나마 명복을 빌 수 있도록 특집 방송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6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누리호 2차 발사'

-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이날 오후 발사돼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공영방송 KBS에서 진행자와 전문가 패널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해주어 감사하다. <6월 23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6.25전쟁 제72주년 행사」

- 6.25전쟁 제72주년 행사가 이날 오전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6.25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해주는 방송사가 거의 없어 안타까웠는데, KBS에서 해당 행사를 중계해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덕분에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었다.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이번 행사를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

- 3명의 스타가 국민 일꾼이 되어 시청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전국방방곡곡에서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본인은 부산에 거주하는데 재방송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다. 속초 등의 지역에도 편성이 되지 않아 불만이 자자하다.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주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 이날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유엔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KBS 1TV에서 실황을 중계해준 덕분에 시청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식을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KBS 특별생방송 안전한 대한민국-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

-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이번 주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여러 사고도 발생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비가 올지 걱정부터 앞서는데, 이날 KBS에서 특별생방송을 편성해 그동안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 유익하게 시청했다. 윤인구·백승주 아나운서의 안정적인 진행도 칭찬하고 싶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2022 시청자주간 감사음악회」

- KBS에서 '2022 시청자주간'을 맞아 '국악, 새로움을 담다'라는 주제로 특별한 음악회를 편성해주었다. KBS 로고송으로 시작해 「아침마당」,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등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장수 프로그램들의 로고송을 연주해주어 재미있게 감상했다. 시청자들을 위해 신명나고 멋들어진 음악회를 개최하고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9월 2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576돌 한글날 경축식」

-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576돌 한글날 경축식이 개최되었고, 본인은 KBS 중계를 통해 지켜보았다. '고마워, 한글'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닿았고,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념사도 인상적이었다.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경축식을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 연말연시 추위가 찾아오면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날 KBS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현실을 알아보고 정성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해주어 본인도 기꺼이 동참했다. 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안타까웠는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KBS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12월 14일 보고서>

○ 2TV 「주접이 풍년」[첫 회]

- 18일 방송된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한 장민호 씨가 KBS2의 새 예능 프로그램인 「주접이 풍년」을 홍보해서 관심이 생겼다. '덕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토크쇼라고 하는데, 제목과 콘셉트가 신선해서 기대가 된다. 요즘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덕질'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1월 19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신사와 아가씨」

- 아가씨와 신사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뤘다. 한때 이영국(지현우 분)이 기억상실에 걸려 다소 지루했지만, 기억을 되찾은 후 박단단(이세희 분)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 너무 재미있다. 50회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억상실로 날린 시간이 아쉽다.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인 만큼 조금 더 연장해주면 좋겠다. <1월 25일 보고서>

○ 2TV 「2022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 송해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96년 인생사를 후배 가수들이 트로트 뮤지컬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연휴 내내 바빠서 시청하지 못했고, 지난 2일 한 차례 편성되었던 재방송도 놓쳐 아쉬운 마음이 크다.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 혹은 다시 한 번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한 번 더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매주 일요일마다 여섯 명의 멤버들이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삼천리금수강산을 구경할 수 있어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림픽 중계로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올림픽 중계는 1TV에 편성하고, 2TV의 드라마와 예능은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2TV 「다큐멘터리 3일」

- KBS의 대표적인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 3일」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제작환경으로 오는 3월 13일에 종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다. 현재 수많은 시청자들이 '폐지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올리고 있다. 무려 15년간 서민들의 삶의 현장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았던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2TV 「개승자 스페셜」

-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 콘서트」의 오랜 시청자이다. 「개그콘서트」가 폐지된 이후 오랜만에 방송된 개그 프로그램이라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이마저도 지난 12일에 종영되어 안타깝다. 이날 스페셜 방송이 편성돼 종영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향후 재정비된 모습으로 시즌2로 돌아오길 기대하겠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2022 여자배구 네이션스리그」 '대한민국:일본-미국'

- 이날 KBS 중계를 통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브룩서 그로서리 아레나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2022 VNL 1차전 경기를 시청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세대교체를 단행한 대표팀은 아쉽게도 일본에 완패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한국 여자배구 핵심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의 첫 국제대회를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6월 3일 보고서>

○ 2TV 「갯파더」

- 현실에서 보여줄 수 없는 가족 간의 감정을 새롭게 만난 부자와 모녀를 통해 알아가는 관찰 예능이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갯파더」는 가족 관계를 재해석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 따뜻한 착한 예능이다. 7월에 종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벌써부터 서운한 마음이 든다. 종영하기엔 가까운 프로그램이다. 향후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 황금가면 스페셜」

- 세 여자의 그릇된 욕망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을 다룬 일일드라마이다. 평일 오후에 방송이 되다보니 부득이하게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스페셜이 편성돼 지난 방송들을 몰아서 볼 수 있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일일드라마는 고정적으로 재방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큰데, 그간의 방송을 몰아볼 수 있도록 스페셜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6월 24일 보고서>

○ 2TV 「서울 페스타 2022 개막공연」

-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서울 관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서울페스타 2022'가 5일 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K-POP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콘서트가 진행됐는데, KBS 2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준 덕분에 재미있게 시청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울했고, 많이 지쳐있었는데 위로와 힐링이 되는 좋은 공연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8월 16일 보고서>

○ 2TV 「추석 특선영화」'신의 한 수 : 귀수편'

-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각 방송국에서 어떤 특선영화를 편성할지 기대가 된다. KBS에서는 올해 추석에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귀수'가 내기 바둑판의 세계에서 귀신같은 바둑을 두는 자들과 사활을 건 대결을 줄거리로 다룬 '신의 한 수: 귀수편'을 편성했다. 독특한 스타일의 범치 액션 영화를 편성해주어 감사하고,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다. <9월 6일 보고서>

○ 2TV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 제주도에 거주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제주도에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수많은 가구가 정전됐다. 그런데 이날 오후 KBS에선「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중계했다. 많은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드레스 차림으로 시상식에 참석한 진행자 및 출연자들을 보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조금 더 편성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 지난 2020년, 추석을 맞이해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KBS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을 감명 깊게 시청했었다. '역시 나훈아'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거물급 스타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공연이었다. 올해 추석에도 온 가족이 모여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2TV 「2022 프로야구-한국시리즈 1차전」'키움:SSG-문학」

- 2022 시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개막했다. 현재 많은 방송사에서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예능 프로그램들을 대거 결방하고 있다. 물론 한국시리즈도 국가 애도 기간에 시작된 만큼 단체 응원이나 치어리더 공연이 없었지만, 150여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스포츠 경기 편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11월 3일 보고서>

○ 2TV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조별리그 H조 대한민국 : 가나」

- 이날 한국대표팀과 가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이 열렸다. 한국대표팀은 전반전에 두 골을 허락한 후 후반전에 두 골 만회에 나섰지만, 추가골을 허락하며 패했다. 경기 결과는 아쉽지만 KBS에서 해당 경기를 중계해준 덕분에 즐겁고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구자철·한준희 해설위원과 이광용 캐스터의 박진감 넘치는 중계도 칭찬하고 싶다. <11월 30일 보고서>

○ 2TV 「대하드라마」

-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태조 왕건」,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서 세종조까지의 개국사를 담은 「용의 눈물」등을 감명 깊게 시청했다. 올 초 방송됐던 「태종 이방원」이후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하사극이 제작되지 않아 허전하다. 국민 분열과 갈등이 심한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하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3R 「소설극장」

- 베스트셀러나 고전소설을 선정해 성우들이 낭독해주는 오디오북 개념의 방송이다. 현재는 이경식, 김동걸 작가가 공동집필한 '상인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 같은 내용이 재방송되고 있어 답답하다.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으니 속히 방송을 정상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FM 「정다운 가곡」

- KBS의 클래식FM에서 방송되는 가곡 전문 프로그램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가곡을 감상할 수 있어 매일 저녁 청취한다. 본인이 알기론 원래는 40분 방송이었으나 30분으로 단축됐다가, 현재는 20분으로 더욱 단축됐다. 우리 가곡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없는데 편성 시간이 짧은 게 아쉽다. 가곡을 사랑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편성 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1FM 「2022년 12월 클래식FM 실황특집 중계방송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오케스트라」

- 세계 각지의 연주회 실황을 입수하여 방송하는 「FM 실황음악」의 청취자이다. 이날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오케스트라'가 실황특집 중계방송으로 별도 편성되어 감명 깊게 청취했다. 이렇게 좋은 특집 방송은 청각뿐 아닌 시각으로도 감상할 수 있도록 TV 중계도 요청한다. <12월 23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해당 방송의 애청자로, 시대적 감성을 좋은 음악과 함께 전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간 편성으로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방송마저도 새벽에 편성되어 있어 청취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본방송이나 재방송 중 하나라도 오전 혹은 낮 시간대에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도전, 골든벨」

- 100명의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전 연령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해 종영이 됐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으므로, 참가하는 학생의 수를 하향 조정하고 응원단을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자연의 철학자들」

-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린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12월 첫 방송됐다.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영상과 자연 속에서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아 매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했다. 각박한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 생각했는데, 7부작으로 막이 내려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1TV 「TV 책을 말하다」

- 다양한 영상 매체들이 대세를 이루며 책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KBS 1TV에서 방영됐던 「TV 책을 말하다」는 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찾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왜 책을 읽는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등을 다뤄주어 좋았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여전히 책을 고집하는 책벌레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2월 25일 보고서>

○ 1TV 「2016 희망로드 대장정」

- 해외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사랑과 용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움만 주는 기부에서 벗어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아프리카 지역이 코로나19로 도움이 끊겨 더욱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3월 2일 보고서>

○ 1TV 「바다 건너 사랑」

- 스타들이 바다 건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시청자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가난으로 빛을 잃어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명견만리 Q100」

- 지성 교양인이 출연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 이슈에 대해 강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청중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을 이룬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또한 일반적인 강연들과는 달리 사회, 미래적인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특별했다. 좋은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즌5」

-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시즌1부터 감명 깊게 시청했는데, 시즌5가 총 7부작으로 너무 짧게 끝나 아쉬움이 크다. 시즌6을 제작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채용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사회 통념상 지나쳐버렸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프로그램이다. 본인이 최근 역울한 일을 겪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종영 이후 마땅히 제보할 곳이 없어 안타깝고 난감했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1TV 「UHD 숨터」

- 독특한 생태 습성을 보여주는 야생, 비경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최근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었는데, 지방에 살아 방문이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 방송을 편성해 청와대 전경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12일 보고서>

○ 1TV 「질문하는 기자들 Q」

-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기사에 대한 비평을 넘어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고민해보는 점이 유익해 열심히 시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종영 이후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방

송이 없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6월 9일 보고서>

○ 1TV 「소비자리포트」

-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제보할 일이 생겨 해당 방송을 찾았는데, 이미 종영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웠다. 시청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빠른 시일 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5일 보고서>

○ 1TV 「가족오락관」

-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특히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예전에는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가족오락관」을 시청했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처럼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중장년층을 위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을 수 있었다. 무려 14년간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

- 자연 다큐멘터리의 증가라 불리는 KBS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연환경과 야생 기록의 컬렉션으로, 매 회 깊은 감동을 받으며 시청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방송이었다. 아름답고 유익한 다큐멘터리가 종영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1TV 「이것이 인생이다」

- 별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여, 그들의 지혜와 난간극복 의지를 교훈 삼는 프로그램이었다. 주로 역경을 헤치며 곳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돼 많은 시청자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기도 했다. 따뜻하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1TV 「주문을 잊은 음식점 2」

- 경증 치매 노인들이 제주도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음식점 운영에 도전하는 모습이 수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용기와 위안, 감동을 선사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치매 노인들의 유쾌한 도전기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1983년에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의 맥을 이었던 KBS의 대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헤어진 가족들, 그리고 뿌리를 찾아온 해외입양인 등이 해당 방송을 통해 가족을 찾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본인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전국의 실종된 가족을 찾

아주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10월 12일 보고서>

○ 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 국내 최초로 언론과 경찰청이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흥미로워 즐겨 시청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26일 보고서>

○ 1TV 「100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 100인의 리더가 텍스트를 통해 오늘날의 지구를 읽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뤄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서 무분별한 자연의 소비로 급격히 변하는 지구의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2TV 「TV는 사랑을 싣고」

- 연예인들의 추억 속 인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소중해지는 인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수요일 저녁의 즐거움이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코로나19 등으로 따뜻한 위안이 필요한 시청자들을 위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날아라 슛돌이뉴 비기닝」

- 다양한 축구 실력을 가진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장 스토리를 그렸다. 친구가 필요한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 우정을 쌓고 협동심을 기르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 FC슛돌이 7기를 끝으로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FC슛돌이 8기들의 경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 '글로벌 K-트로트'의 주역이 될 새 얼굴을 찾기 위한 KBS의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작년에 재밌게 시청했다.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해서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었다. 물론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출중했고, 각자가 지닌 매력이 가득하여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계속해서 감동적인 무대와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2TV 「매직키드 마수리」

- 마법세계에서 온 마법사 가족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어린이 드라마로, 방영 당시 무척 재미있게 시청했다. 요즘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후속 방송을 편성해준다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 같다. <2월 9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에 노출될 때가 있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방영 당시 꾸준히 시청했었다. 여러모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월 10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출연자들의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고민을 듣는 게 재미있어 오랜 기간 꾸준히 시청했다.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영자 씨와 신동엽 씨, 그리고 컬투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즌1이 종료되었을 때 시즌2로 돌아오겠다고 시청자들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궁금하다. 하루빨리 시즌2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해피투게더 4」

- 코로나19 발병 이후 집에 머물며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난 2020년「해피투게더」시즌4가 종영된 후, 해당 프로그램만큼 즐겁고 유쾌한 토크쇼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같은 트로트 가수들을 섭외해 시즌5를 제작하여 즐겁고 유쾌한 토크쇼의 명맥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실제 부부들의 사연을 재구성해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부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겨 시청했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 시즌3을 제작해준다면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3월 25일 보고서>

○ 2TV 「자동공부책상 위키 2」

-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전 영역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과정을 보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재미있는 콘텐츠로 스스로 학습하도록 이끄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다양한 소재와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 콘서트」의 오랜 시청자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해당 방송이 폐지된 후 즐거움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단절과 격리가 이어지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23일 보고서>

○ 2TV 「유머 일번지」

- 한국 코미디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임하룡 씨, 심형래 씨, 김형곤 씨 등의 개그맨들이 출연해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부채도사', '영구야 영구야' 등 수많은 코너를 히트시키며 1980년대를 대표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현재 코미디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졌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그 시절의 향수를 되새길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해주기 바란다. <6월 21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땀 흘려 일한 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던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방영 당시 굉장히 유익하게 시청했다. 최근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이 저조한 것 같아 아쉽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해주기 바란다. <6월 28일 보고서>

○ 2TV 「디즈니 만화동산」

- 일요일 아침에 방영했던 프로그램으로,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톰과 제리', '타이니 툰' 등 아직까지도 본인이 기억 속에는 추억의 애니메이션으로 남아있다. 요즘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주말에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2TV 「TV소설」

- KBS 2TV에서 방송됐던 아침드라마인데, 「파도야 파도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제목처럼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드는 드라마였고, 자극적인 전개나 톱스타 없이 가슴 아픈 근대사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주부들에게 인기 많았던 「TV소설」이 폐지되어 아쉽고, 조만간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예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왔다. 「전설의 고향」은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더위를 잇는데 제격이다. 특히 마무리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유익한데, 2009년 종영이 된 후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아 아쉽다. 시청자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무려 13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이날 방송을 끝으로 종영됐다. 평소 TV에서 보기 힘든 출연자들을 섭외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게 해주어 무척 좋아했던 애청자로서 해당 방송의 종영이 아쉽다.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유희열 씨 대신 다른 진행자를 섭외해 방송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7월 25일 보고서>

○ 2TV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차세대 국민동요를 만들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동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뜻깊게 여겨졌고, 아기싱어들의 리얼한 반응이 무척 귀여웠다. 다만 10부작으로 짧게 끝나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새로운 출연진으로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다. <9월 1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인과 100인의 대결로, 최후의 생존자 1인을 가릴 때까지 대결하는 퀴즈쇼 프로그램이다. 1인은 상금이 쌓여도 도전을 멈출 수 없으며, 1인과 100인 중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이 손에 땀을 쥐게 했고, 상식을 쌓을 수 있어 유익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0월 6일 보고서>

○ 2TV 「호루라기」

-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범죄 근절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점이 유익했다. 갈수록 범죄가 악랄해지고, 사이버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양지로 끌어내, 그 해답을 찾아가는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2TV 「혼자서도 잘해요」

- 미취학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최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줄었다. 코로나19와 환경오염 등으로 밖에서 편히 놀 수 없는 환경인데, 후속 방송을 제작해 아동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과 기초예절 등을 재미있게 가르쳐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1R 「책 읽는 밤」

- KBS 1라디오에서 진행했던 라디오 독서 프로그램이다. 한 권의 책을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고, 여러 권의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소개하기도 해서 즐겨 청취했다. 정보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갖춘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새로운 시도와 실력 있는 패널들을 섭외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6월 9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대하드라마「태종 이방원」

- 여말선초 시기에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이방원(주상욱 분)을 조명한 드라마이다. 그런데 사극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과 그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과거 대하드라마에서는 배역이 등장할 때 자막으로 표기를 해줬었다. 해당 드라마도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배역이 등장할 때 자막으로 표기해주었으면 좋겠다. <1월 4일 보고서>
- 이성계(김영철 분)가 왕좌에 올랐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방원(주상욱 분)과 거리를 두며, 궁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긴장감을 자아냈다.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되며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이지만 화려한 연출과 주연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다. 사극명가 KBS 답게 좋은 작품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11일 보고서>
- 1일 방송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중 낙마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장면에서 말이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말을 강제로 쓰러뜨리는 것은 동물 학대이며, 이 촬영으로 인해 말이 심각한 위해를 입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제작진은 속히 말의 현재 상태를 공개해주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이방원(주상욱 분)을 새롭게 조명한 드라마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찾아온 사극이라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러나 극 초반에 빠른 전개를 위해서인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았고, 과거 이성계의 개국사를 그렸던 「용의 눈물」과도 다른 부분이 많아 혼란스럽다. 퓨전사극이 아닌 정통사극인 만큼 역사 고증을 정확하게 해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최종회에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백성을 위했던 이방원(주상욱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이방원을 묘사한 점이 흥미로웠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영화 같은 영상미가 보는 재미를 더했다.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는 즐거움이 컸는데, 예상보다 짧은 32부작으로 막을 내려 아쉽다. 「태종 이방원」을 시작으로 명품 사극이 많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5월 3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국가대표 와이프」

-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 가족 드라마여서 매일 저녁 공감하며 시청 중이다. 최근 등장한 안석환(방배수 역) 씨가 감정 연기를 잘하고 신현탁(강석구 역) 씨도 코믹한 역할에 잘 어울려서, 두 배우가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 같다. 여타의 드라마들처럼 막장 요소 없이 마지막까지 재미있고 공감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오장금(양미경 분)이 최선해(오유나 분)를 용서했다. 앞서 오장금은 최선해의 부친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해를 밀어냈지만, 이후 “아빠 잘못을 왜 최선해가 치러야 하나.”라며 최선해를 용서했음을 밝혔다. 한때 친 모녀 같던 두 사람이 이런 시련을 겪는 게 너무 안타깝다. 막장 요소 없이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해당 드라마를 칭찬하고 싶다. <3월 10일 보고서>
- 강남 집 한 채로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서초희(한다감 분)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지난 주 금요일에 종영됐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광고 회사 팀장 서초희를 비롯해 개성만점 캐릭터들의 향연을 재미있게 지켜봤다. 따뜻하고 유쾌한 가족드라마가 막을 내려 서운하다.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으라차차 내 인생」

- 지난 11일에 새로 시작한 일일연속극으로, 조카의 엄마가 되기로 선택한 서동희(남상지 분)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이날 서동희는 분유 살 돈도 없는 한계에 부딪혔고 보육원에 아기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저히 아기를 떼어놓지 못해 결국 조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씩씩한 싱글맘으로 성장하는 서동희의 모습을 기대하겠다. <4월 22일 보고서>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서동희(남상지 분)가 갑작스런 사고로 조카를 입양해 싱글맘이 된 후 벌어지는 고군분투기를 다룬 드라마다. 그런데 이날 강성욱(이시강 분)이 백승주(차민지 분)와 서힘찬(김시우 분)의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이 그려져, 시청자들도 덩달아 긴장했다. 추후 백승주와 서힘찬이 모자 관계임이 밝혀지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하다. <7월 29일 보고서>
- 조카를 입양해 키운 싱글맘 서동희(남상지 분)가 재벌 2세 강차열(양병열 분)과 결혼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서동희를 괴롭혀 시청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백승주(차민지 분)도 악행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밝고 긍정적인 싱글맘 서동희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아쉽다. 좋은 작품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하는 당찬 싱글맘 이영이(배누리 분)와, 사연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전작 「으라차차 내 인생」을 재미있게 시청했기에 이어서 보는 중인데, 전작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족스럽다. 여주인공이 신인이라 조금 우려되지만, 관록 있는 조연 배우들이 잘 이끌어 신선하고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김해미(최윤라 분)에게 해고통보를 받는 이영이(배누리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동안 고전하던 취업에 성공했던 터라 이영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궁금했는데, 장훈(이호재 분)과의 통화 후 용기를 얻은 후 당당하게 출근해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해고통보 하면 그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이영이의 행보를 응원하며 열심히 시청하겠다. <10월 27일 보고서>

- 오은숙(박순천 분)이 장경준(백성현 분)과 이영이(배누리 분)의 관계를 알게 됐다. 오은숙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영이를 때렸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 연애를 방해하는 모습이 시대와 동떨어져 공감이 되지 않았다. 또한 등장 인물 간 폭행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 점도 보기 불편하다. <12월 30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신사와 아가씨」

- 이영국(지현우 분)이 박단단(이세희 분)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영국이 기억상실에 걸려 박단단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간 내내 답답했는데, 가까스로 기억을 찾은 이영국이 이번에는 “어린 아가씨가 좋다고 해도 마음 접었어야 했는데 양심 없이 흔들렸다.”며 박단단을 밀어내는 모습이 공감이 안 된다. 조사라(박하나 분)가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빨리 그려지지 않는 점도 답답하다. <1월 4일 보고서>
- 박수철(이종원 분)이 딸 박단단(이세희 분)이 자신보다 14살이 많고 자식이 3명 있는 이영국(지현우 분)과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해 딸을 방에 감금했다. 설 연휴에 온가족이 모여 즐겁게 시청하던 중 부모가 자식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폭력적인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극의 전개와 재미를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한 점이 실망스럽다. <2월 3일 보고서>
- 조사라(박하나 분)가 차건(강은택 분)의 아이를 가진 후, 이영국(지현우 분)의 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조사라와 이영국이 헤어진 후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다시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지나치게 얽히고설킨 전개가 보기 불편하고,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2월 28일 보고서>
- 이영국(지현우 분)과 박단단(이세희 분)이 결국 14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연애가 파란만장하여 해피엔딩을 맞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쌍둥이까지 출산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 보기 좋았다. 그동안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3월 2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꽃 피면 달 생각하고」

- 금주령의 시대에 밀주꾼을 단속하는 검찰과 밀주꾼 여인의 로맨스를 다뤘다. 이제까지는 본격적인 전개를 위해 스토리를 설명하는 단계였는데, 이날부터 남영(유승호 분)과 강로서(이혜리 분) 그리고 이표(변우석 분)의 삼각관계가 시작되어 흥미진진했다. 남영과 강로서의 관계가 벌써부터 애뜻하며, 앞으로 그려질 이야기가 너무 기대된다. <1월 6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학교 2021」

- 진지원(조이현 분)이 공영수(박인환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홀로 남겨진 공기준(김요한 분)을 위로했다. 공기준이 허탈감과 공허함에 사로잡힌 모습은 안타까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공기준과 진지원이 가까워져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된 점은 시청자로서 흐뭇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한층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현실적이고 보기 좋다. <1월 7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사랑의 파배기」

- 맹옥희(심혜진 분)가 박희옥(황신혜 분)의 거짓말에 속아 오소리(함은정 분)와 박하루(김진엽 분)의 결혼을 막았다. 그뿐 아니라 남편 오광남(윤다훈 분)에게도 이혼을 선언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부부를 파

탄내고, 자식들의 관계까지 끝장내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저녁 시간대 드라마에서 불륜과 이혼, 거짓말은 적절하지 못한 소재인 것 같다. <1월 12일 보고서>

- 오소리(함은정 분)가 조경준(장세현 분)의 내연녀와 혼외자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후 오소리는 조경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조경준은 아들 조한별(박재준 분)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려줬다며 협박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불륜과 혼외자, 등장인물들의 거짓말이 보기 불편하다. 저녁 시간대에 어울릴만한 따뜻한 가족극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박희옥(황신혜 분)이 맹옥희(심혜진 분)에게서 조한별(박재준 분)의 친부가 박하루(김진엽 분)이며, 박새별(윤채나 분)은 박하루의 친딸이 아니란 사실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뻘뻘스러운 모습만 보이던 박희옥이 박하루와 오소리(함은정 분)가 자신 때문에 엇갈렸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로워지는 전개를 칭찬하고 싶다. <4월 14일 보고서>
-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꼬인 어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거짓말과 사기, 불륜과 친자 검사 조작 등 자극적인 전개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날 최종회가 방송됐는데 박하루(김진엽 분)와 오소리(함은정 분) 커플을 비롯해 모두가 제자리를 찾으며 해피엔딩을 맞아 다행스러웠다.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다. <5월 23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크레이지 러브」

- 살인을 예고 받은 일타 강사 노고진(김재욱 분)과 그의 비서 이신아(정수정 분)의 로맨스 드라마이다. 이날 노고진이 기억상실에 걸린 틈을 타, 이신아가 노고진의 가짜 약혼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아직 극의 초반 단계인데 배우들의 연기력이 좋아 몰입이 된다. 벌써부터 다음회가 기다려진다.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노고진(김재욱 분)이 얼떨결에 이신아(정수정)의 본가에 방문해, 이신아의 아버지에게 약혼 사실을 밝혔다. 이는 이신아를 골탕 먹이려는 작전이었지만, 예상과 다른 전개에 오히려 노고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노고진 역을 맡은 배우 김재욱 씨의 연기력이 좋아 극에 몰입이 된다. 회 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김재욱 씨를 칭찬하고 싶다. <3월 24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너에게 가는 속도493km」

- 싱그러운 스물다섯, 운동이 전부인 박태양(박주현 분)과 운동이 직업인 박태준(채종협 분)이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겪는 사건을 다룬 드라마로, 이날 첫 회가 방송됐다. 배드민턴이라는 소재가 신선해 시청하게 되었는데, 스포츠만이 아닌 젊은 선수들의 내적갈등과 로맨스가 가미되어 흥미진진했다. 앞으로 빠르고 강렬한 전개를 기대하며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4월 22일 보고서>
- 빠르고 강렬한 스포츠 로맨스 드라마로,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점이 신선하고 흥미로워 열심히 시청 중이다. 다만 속도의 단위는 km/h인데, 길이의 단위인 km로 제목을 표기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시적 허용'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공영방송이고 한 작품의 제목인 만큼 표기 오류 논란이 발생해 아쉽다. <4월 28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현재는 아름다워」

- 과한 설정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 현미래(배다빈

분)가 이현재(윤시윤 분)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는데, 이현재가 “미안하다.”라며 고백을 거절했다. 이현재가 조금씩 현미래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왔기에,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궁금하다. 벌써부터 다음회가 기다려진다.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하겠다. <5월 2일 보고서>

- 진수정(박지영 분)이 자신을 입양아라 의심하는 시누이 때문에 당황했다. 입양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진수정이, 시누이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이 오빠의 가정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설정이 억지스럽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청자들이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이가(家)네 삼 형제가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주말드라마이다. 이날 이윤재(오민석 분)·심해준(신동미 분) 커플이 마침내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마쳤다. 특히 심해준이 현미래(배다빈 분)가 아닌 이경순(선우용여 분)에게 부케를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과한 설정이나 막장 전개 없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벌어지는 가족 간의 이야기가 따뜻하고 재미있다. <7월 26일 보고서>
- 이경철(박인환 분)의 잃어버린 딸 진수정(박지영 분)의 딸인 현미래(배다빈 분)와, 입양한 아들 이민호(박상원 분)의 아들인 이현재(윤시윤 분)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 이경철은 진수정과 법적으로 친권을 회복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보기 불편했다. 주말드라마의 파급력을 고려해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는 전개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이현재(윤시윤 분)가 한경애(김혜옥 분)에게 진수정(박지영 분)을 위해 간 이식 수술을 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했다. 처음에 반대하던 한경애는 결국 허락했고, 무사히 수술을 마친 이현재와 진수정은 건강을 되찾았다. 해피엔딩으로 지난 6개월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어 애청자로서 흐뭇하고 보기 좋았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쓴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9월 2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붉은 단심」

-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연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붉은 단심」이 이날 첫 방송됐다. 사극 명가 KBS에서 제작한 '로맨스 정치 사극'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는데, 첫 회였음에도 흥미진진한 전개와 감각적인 영상미,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재미있게 시청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품이다. <5월 4일 보고서>
- 중전이 되기 위한 유정(강한나 분)과, 그의 선택에 혼란스러워하는 이태(이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속도감 있는 전개가 몰입감을 선사하지만, 이태 역할을 맡은 이준 씨가 발음이 좋지 않아 대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게다가 현대극이 아닌 사극이라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가 낯설어 더욱 알아듣기 어렵다. 발음과 발성을 위한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5월 25일 보고서>
-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내쳐야 하는 왕 이태(이준 분)와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하는 유정(강한나 분)의 로맨스를 그린 사극으로, 이날 종영했다. 이태와 유정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했는데 서로의 정인이자 정적으로 함께하는 길을 택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었다. 마지막까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박진감과 재미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6월 23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황금가면」

- 이날 새 일일드라마가 시작됐다. 그런데 차화영(나영희 분)이 유수연(차예련 분)의 뺨을 때리는 첫 장면을 시작으로, 방송 내내 갑질과 폭력이 난무했다. 특히 차화영의 딸 홍진아(공다임 분)가 가정부를 밀치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장면도 보기 불편했다.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인 설정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25일 보고서>
- 지난 방송에서 서유라(연민지 분)는 거짓불륜 정황을 포착한 유대성(전인택 분)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대성은 죽지 않았고, 서유라는 전 남자친구를 이용해 유대성을 죽였다. 이날 서유라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 전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며, 두 번의 살인을 저질렀다.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설정이 끔찍하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전개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강동하(이현진 분)가 유수연(차예련 분)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반면 서유라(연민지 분)는 차화영(나영희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차를 몰고 돌진했는데, 이를 본 홍진우(이중문 분)가 차화영을 밀친 후 대신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강동하와 유수연이 행복한 결말을 맞고, 차화영은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 만족스러웠다.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10월 11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미남당」

- 연쇄살인범 고풀이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서는 남한준(서인국 분)과 한재희(오연서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남한준과 고풀이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남한준이 고풀이를 놓쳐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프로파일러가 박수무당이 되었다는 설정도 신선하고 흥미롭다. 고풀이의 정체가 밝혀지길 기대하며 계속해서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7월 20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 삶의 끝에 내몰린 청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인데, 막장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는 요즘 힐링이 되는 소재를 다뤄 편안하게 시청 중이다. 이제부터 서서히 서연주(최수영 분)를 사이에 두고 양치훈(신주환 분)과 윤겨레(지창욱 분)의 삼각로맨스가 점화돼 흥미진진하다.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8월 26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삼남매가 용감하게」

- 가족을 위해 양보해야 했던 K-장녀와 톱스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K-장남이 만나 행복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로, 이날 첫 방송됐다. 장녀로서 동생들을 배려하도록 강요받고 자란 김태주(이하나 분)의 사연에 공감이 되어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력도 극에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하겠다. <9월 26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법대로 사랑하라」

- 검사 출신 한량 건물주 김정호(이승기 분)와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이세영 분)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로, 너무 재미있어 본방송은 물론 재방송까지 챙겨보고 있다. 이날은 파트너 변호사로 변신한 김정호와 김유리의 첫 번째 합동 의뢰 이야기가 그려졌는데, 로맨스가 가미되어 흥미진진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하며 열심히 시청하겠다. <9월 28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진검승부」

- '불량 검사 액션 수사극'으로 이날 첫 회가 방송됐다. 배우 도경수 씨가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면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꼴통 검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유명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점과 탄탄한 스토리 덕분에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흡입력 강한 재미있는 수목극 탄생을 기대하겠다. <10월 7일 보고서>
- 공영방송 KBS를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최근 「진검승부」라는 수목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진검승부'는 일본어 '신켄쇼우부'에서 온 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잔재이자 심각한 폭력성이 담긴 용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일본 문화의 폭력성을 담은 '진검승부'를 '정면 승부' 등 적절한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태풍의 신부」

-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원수의 며느리가 된 한 여자의 치명적인 복수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이날 첫 회가 방송됐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깊이 있는 연출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덕분에 재미있게 시청했다. 주연배우들의 열연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 복수극의 탄생을 기대하겠다. <10월 12일 보고서>
- 은서연(박하나 분)과 정모연(지수원 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후 정모연의 딸로 살아온 홍조이(배그린 분)가 이들이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됐고, 자신은 정모연과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돼 충격을 받는 장면에서 막이 내렸다. 답답한 부분 없이 빠른 전개가 흥미진진하다.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대된다. <12월 14일 보고서>
- 강바다(오승아 분)가 강태풍(강지섭 분)과 은서연(박하나 분)의 관계를 빌미로 은서연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은서연은 이 시도를 빌미로 '르블랑'에서 '고은'을 독립시키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제까지 주인공이 당하는 답답한 전개가 이어졌는데, 이날 은서연이 복수하는 모습에 통쾌했다. 시원한 전개를 칭찬하고 싶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내용을 기대하겠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커튼콜」

- 시한부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특명을 받은 한 남자의 사기극을 다뤘다. 이날 가짜 손자로 변신한 유재현(강하늘 분)이 자금순(고두심 분)과 상봉해, 자금순의 식구들과 얽히는 내용이 그려졌다. 가짜 손자로 변신한 유재현에게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시청자들도 덩달아 긴장하며 시청했다.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돼 흥미진진하다.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하겠다. <11월 9일 보고서>
- 최근 자금순(고두심 분)의 진짜 손자가 나타나며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흥미진진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날 유재현(강하늘 분)이 배동제(권상우 분)와의 결혼을 앞둔 박세연(하지원 분)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각 관계 로맨스가 진행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재현과 박세연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면 한다. <12월 15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TV쇼 진품명품」

- 세월 속에 묻혀 있던 진품·명품을 발굴해 그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진행자인 강승화 아나운서가 군더더기 없이 재치 있게 진행해주어 매주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강승화 아나운서 대신 김선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강승화 아나운서를 아끼는 시청자가 많으니 다음 주 방송에서는 꼭 볼 수 있길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아침마당」'화요초대석'

- '화요초대석'에 김나운 피트니스 선수가 출연했다. 김나운 선수는 2018년에 교통사고로 왼쪽 팔이 절단됐지만, 지난해 WBC피트니스에서 외팔로 4관왕을 수상했다. 장애를 딛고 일어나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큰 감동과 위안을 얻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준 김나운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1월 5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해당 방송은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통해 시청자들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자는 기획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가 많다. UN에서도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라는 새로운 연령 구분을 발표했다고 한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패널을 섭외해주면 프로그램의 취지에 더 적합할 것 같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 설을 맞이해서 KBS에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라는 트롯 뮤지컬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대가 됐다. 다만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영탁 씨의 출연 소식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음원 사재기 논란뿐 아니라 무리한 광고 계약금 요구로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공영방송이고 설 특집인 만큼 구설수 많은 연예인은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TV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토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토론'에 출연해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라 심상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제외된 점이 긍정하지 않다. 앞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허경영 후보를 초청해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도전! 꿈의 무대'를 시청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날 「미스터트롯」 출신의 양지원 씨가 4승에 성공했다. 해당 코너는 가수가 꿈이지만 설 무대가 없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취지인데, 이미 유명하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양지원 씨가 출연자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이미 팬층이 형성된 가수는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1TV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 전환 총리에게 묻다」

-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섭다. 그래서 KBS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긴급대담을

준비했다. 현재 국민들은 돌파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4차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높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답답했고, 여론을 모르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2022 베이징올림픽」[컬링] 여자 예선 대한민국:덴마크

- '2022 베이징올림픽' 여자 컬링 8차전에서 우리나라가 덴마크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를 관전했는데, 해설위원들의 말이 겹쳐 알아듣기 어려웠고 아나운서는 컬링과 관련한 배경지식이 부족했다. 그뿐 아니라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해서 듣기 불편했다. 올림픽 명가라 불리는 KBS이기에 이날 중계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을 만드는 백호정 씨'

- 서른두 번째 '칭찬주인공'은 23년째 장애인 맞춤 신발 봉사를 해온 백호정 씨였다. 백호정 씨는 '신발골'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발 모양을 정확히 측정 후 무료로 맞춤 신발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백호정 씨의 선행에 감동했고,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해준 제작진에게도 감사하다. <3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제20대 대통령 당선'

- 이날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앵커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북한 선제공격 발언을 두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만한데."라고 비판적으로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라는 뜻인데, 앵커가 과대 해석을 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뿔려야 건강하다! 내 몸의 막힘 신호, 시림과 저림'

- 이날 손발 저림의 증상과 원인부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던 중 패널로 출연한 김학선 정형외과 교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대기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춘각을 다루는 응급상황에서 진행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이준석 발언 논란...편혜·조롱?'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비판해 논란이 분분하다. 이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출연해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권지웅 위원이 해당 시위가 의도적으로 지하철 운영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전장연은 지난해부터 20여 차례 기습 시위를 벌였고 그때마다 출근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무조건 편을 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와 방법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3월 31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해당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애란 아나운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김지윤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가애란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느껴져 서운한 마음이 든다. 늘 밝고 따뜻하게 진행해주었던 가애란 아나운서가 건강을 회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주었으면 한다. <4월 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생생토크 만약 나라면'

- '엄마의 뒷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패널 중 한 명인 표창원 씨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침마당」은 선한 이웃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송인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의 출연이 불편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출연자 섭외를 신중히 해주었으면 한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봉봉이가 간다'

- 본인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이 '봉봉이가 간다' 코너를 가장 좋아한다. 이날은 손헌수 씨가 농번기라서 일이 정말 많은 농촌으로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도 위로해드리는 모습이 방영됐다. 늘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손헌수 씨를 칭찬하고 싶다. 따뜻한 코너인 만큼 앞으로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이날은 전국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고, 특히 서울은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그런데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긴소매의 정장 투피스를 착용해 보는 내내 답답했다. KBS의 뉴스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겨울엔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여름엔 긴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날씨와 기온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갖추주었으면 한다. <5월 2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꿈과 희망을 연기하는 장애인 배우들'

- '꿈과 희망을 연기하는 장애인 배우들'이라는 주제로, 김은경 장애인 매니지먼트 대표와 국내 최초 장애인 배우 강민휘 씨와 진효정 씨가 출연했다. 본인에게도 장애인 자녀가 있어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 장애인 배우들이 비장애인 배우들과 호흡하며 사회성을 키우고 자생력을 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 이날 출연진에게 감사하다. <6월 8일 보고서>

○ 1TV 「청춘야구단」

- 지난주 방송에 이어 삼성 라이온즈 2군 선수들과의 경기가 펼쳐졌다. 비록 2군이라고는 하지만 현역 선수들이고, 경기 내용을 보면 꽤 많은 출연료가 발생할 것 같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1TV에서 출연료를 많이 받는 유명인들을 여럿 섭외하는 점이 보기 안 좋다. 조금 더 검소하고 서민적인 방송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6월 14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제철 보약으로 담그는 매실청과 장아찌'

- 제철 매실과 식재료를 한 철만 먹기엔 아쉬울 때 청과 장아찌로 만든다. 이날 청과 장아찌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주어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런데 요리법을 알려줄 때 빠르게 진행되는데다가, 패널 전효실 씨가 요리연구가의 곁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집중이 저해됐다. 또한 전효실 씨는 요리할 때 보조 역할을 하는데 손톱을 기른 모습도 보기 안 좋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일반인이 소장한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덕분에 명품을 발굴해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있다. 이날 개그맨 김민수, 정재형, 이용주 씨가 산악회 회원 콘셉트로 출연했다. 해당 방송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데, 출연자들이 등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방송에 임했다. 장난스러운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이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7월 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진짜 이순신의 기록, 난중일기'

- 이순신 장군이 남긴 13만여 자의 진솔한 기록, 난중일기를 다루며 그 안에 녹아있는 인간 이순신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다루던 중, 방송인 피터 빈트가 '마마보이'라고 표현해 듣기 불편했다. 그뿐 아니라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역사 공부를 하는 시청자가 많은데, 출연자들의 장난스러운 태도도 보기 안 좋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 7시 뉴스를 항상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주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인은 이날 진행한 박소현 앵커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진행을 칭찬하고 싶다. 특히 뉴스 말미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계속해서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좋은 진행을 부탁한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여름, 너 임자 만났다!'

- 휴가철을 맞아 김나운 리포터가 피서지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를 소개했다. 중간에 민어회와 민어전, 민어 맑은탕 등을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단의 자막에는 '민어 맑은탕'으로 기재되었으나, 리포터가 "지리"라고 말했다. 지리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출연자들은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순화해 표현해주기 바란다. <8월 5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12」'[특보]이 시간 경안천...산사태 위기 경보발령'

-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비 피해가 적지 않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에서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기자가 "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오르락내리락'이 아닌 '오락가락'으로 표현해야한다.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

-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익숙한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는 점이 재미있다. 방송의 콘셉트 자체도 흥미롭지만, 진행자가 교체되고 보니 김영철 씨만의 친근하고 구수한 진행이 방송의 큰 묘미였음을 알게 됐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진행자 교체를 아쉬워하고 있다. 추후 개편 시 김영철 씨가 다시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1TV 「자연의 철학자들」'자연에 스며들다'

- 오는 26일에 방송되는 '자연에 스며들다' 편에 정주하·이선애 부부가 출연한다는 예고를 보았다. 그런데 정주하 백제예술대학교 교수는 학력 위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환경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지탄받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신뢰성까지 무너지게 하니, 출연자 섭외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

- 전국을 여행하며 동네의 숨은 매력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본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까지 시청할 만큼 애청자이다. 방송의 콘셉트도 좋지만, 김영철 씨의 친근하고 구수한 성품이 재미를 더했다. 그러나 이만기 씨로 진행자가 바뀐 이후부터는 예전만큼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해당 방송 특유의 따스함과 정감을 살릴 수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었으면 한다. <9월 5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

- KBS의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를 빠짐없이 시청한다. 이소정 앵커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진행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일부터 이소정 앵커가 진행을 맡지 않아 휴가를 간 것인지 궁금하다. 이소정 앵커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으니 속히 돌아와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양제보다 낫다! 제철 맛은 해산물 굴'

- 이날의 주제는 '굴'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굴을 싱싱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과 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임경숙 교수나 한명숙 요리연구가 등 매번 동일한 패널이 반복적으로 출연하다 보니 늘 비슷한 정보를 준다. 가정의학과 교수나 식품영양학과 교수보다 수산학과 교수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했다면 더 신선하고 유익했을 것 같다. <10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지난 29일 밤 이태원에 헬러원을 앞두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새벽 내내 「KBS 뉴스특보」를 시청하며 추이를 지켜보았는데, 27시경 진행을 맡은 홍소연 아나운서가 붉은 색상의 헤어스타일에 짙은 화장을 한 채 진행해 보기 불편했다.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만큼 애도 분위기에 맞는 차림을 갖춰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이날은 충북 영동군 편으로 꾸며졌다. 출연자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냈지만, 고(故) 송해 선생님이나 이호섭 작곡가가 진행할 때만큼 흥이 나지 않았다. 해당 방송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젊은 김신영 씨가 홀로 진행을 맡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구수하고 맛깔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연륜이 묻어나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5년 2개월 만에 하차하는 샘 해밍턴과 윌리엄, 벤틀리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차를 결정한 샘 해밍턴 가족은 팬들을 위해 카페를 준비했고, 카페 영업을 마쳤을 때 팬들이 다시 샘 해밍턴 가족에게 꽃다발 이벤트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어 감사하고, 추후 다른 프로그램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갯파더」

-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넘어 스타들의 만남을 통해 가족 관계를 재해석하는 신개념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허재 씨의 경우 이순재 씨와의 부자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타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인맥들을 자꾸 해당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재미를 반감시킨다. 과거 음주운전 논란도 신경이 쓰인다. 추후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출연자를 섭외해주었으면 한다. <1월 5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베이징」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 베이징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미터 경기가 열렸다. 그런데 중계를 맡은 이광용 아나운서가 "자신과의 싸움, 기록과의 싸움, 정정당당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베이징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현재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정당당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이라는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게 느껴졌다. <2월 10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베이징」'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 이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가 열렸다. 그런데 시청자에게 해당 경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해야할 이상화 해설위원이 우리나라 선수가 등장하면 응원에만 몰두해 당황스러웠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실망스러웠고, 남은 경기에서는 감정에 치우친 해설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기대하겠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핫 클릭 연예 ZOOM'

- '핫 클릭 연예 ZOOM' 코너에서 홍상수 감독이 지난 2월 16일에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진행자의 멘트와 자막에 '배우 김민희 씨와 변함없는 애정 과시'라는 표현이 쓰였다. 두 사람은 물론 중이기에, 해당 표현은 홍상수 감독의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진행자 신동엽 씨가 지난 9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날 이금희 씨가 신동엽 씨를 대신해 진행을 맡았다. 신동엽 씨 특유의 유머러스한 감각과 박진감이 없어, 방송이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신동엽 씨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완치되어 방송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최양락·팽현숙 부부가 맡았던 내레이션을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맡게 됐다. 그런데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비롯해 멘트를 너무 많이 해서 방송에 집중을 저해한다. 시청자가 출연자들의 모습에 집중하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내레이션을 줄여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2TV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차세대 국민동요를 만들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동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뜻깊게 여겨지고, 아기싱어들의 리얼한 반응이 귀엽다. 다만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과 이미 방송가에서 활동 중인 아이들 위주로 섭외가 이뤄진 것 같아 아쉽다. 추후에는 일반인 아이들 중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출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5월 2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가정의 달 특집쇼 3대 천왕'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장수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시청했을 만큼 「불후의 명곡」을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장민호, 영탁, 이찬원의 '3대 천왕' 특집이 방송됐다. 그런데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휘말렸던 영탁 씨의 출연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무리한 광고 계약금 요구로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가급적이면 구설수 많은 연예인은 섭외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이슈토크 W'

- 박종훈 KBS 기자가 출연해 '미국 총격 사건, 반복되는 이유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8세 남자 고교생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는데, 여성 진행자가 웃으며 진행해 보는 내내 불편했다. 적절하지 않은 태도에 실망스럽고, 추후에는 희생자들에게 공감하며 진정성 있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6월 2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해당 방송의 진행자이자, 작곡가 유희열 씨의 표절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에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표절한 것에 대해 사과한 이후, 이번에는 일본 싱어송라이터 다마키 고지가 발표한 곡과 유희열 씨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은 곡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이어 표절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진행자를 교체해주기 바란다. <6월 23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여에스더'

- 여에스더 씨가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월세 400만 원짜리 숙소를 공개했다. 약 30평의 큰 원룸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시원한 뷰를 자랑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무섭게 오르며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에스더 씨의 과한 씬씬이에 허탈감을 느꼈다. 간혹 지나치게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출연자들이 있는데,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28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해당 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지난 6월 멤버였던 라비 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하차하며, 현재는 5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짝이 맞지 않아 예전보다 박진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멤버를 보강해 다시 6인 체제로 「1박 2일」다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홍석천 씨와 김지민 씨의 옥탑방 방문기가 그려졌다. 방송 중 홍석천 씨가 쿼어 드라마 제작에 대한 욕심을 밝히며, 원하는 캐스팅으로 몇몇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런데 굳이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한 점이 보기 불편했다.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불편함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더 많으므로 조심해주기 바란다. <8월 1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가수 딘딘 씨가 지난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 비판했다. 당시 딘딘 씨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석이 아닌 공석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1박 2일」은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 검증에 조금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12월 7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정치연구소'

- 퇴근길에 자주 청취한다.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정치연구소'라는 코너가 있다. 최영일 평론가가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데, 최영일 평론가는 같은 1라디오에서 「최영일의 시사본부」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평론가가 있는데, 굳이 1라디오 진행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섭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월 13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 경제 각 분야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어 매일 오후 청취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과한 취재경쟁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오보 기사가 많은데, 진행자 홍사훈 기자가 이런 오보를 시원하고 정확하게 지적해주어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 분야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R 「최영일의 시사본부」‘주간이슈 먼데이?’

- ‘주간이슈 먼데이?’ 코너에 노영희 변호사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쭈뼌’ 논란’, ‘안철수 단일화 제안은 단일화 차단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두 패널 모두 여당 쪽 인사들이어서 윤석열 후보 측에 불리했다. 패널 섭외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느낌이니, 앞으로는 패널 섭외에 조금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그날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주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청취한다. 화제성 뉴스 및 각종 사건사고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주는 점이 유익하다. 다만 진행자가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점이 듣기 불편하다. 추후 개편 시에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자를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직격 인터뷰부터, 그날의 시사 이슈를 골고루 다뤄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자 최경영 씨가 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깊이 있는 방송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획 - 새 정부에 바란다’

-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날 이문열 작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어떻게 들었는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런데 이문열 작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 청취 내내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방송에 섭외된 인사들을 방송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리된 문장을 구사해주시기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1R 「주말 생방송 정보쇼」

- 주말마다 최승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한 주간의 시사를 정리해볼 수 있어 유익하고, 생활정보뿐 아니라 인문과 역사 등에 대해서도 두루 다뤄주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최승돈 아나운서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진행 덕분에 방송이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이다. 늘 유익한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점에 감사하다. <5월 16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백 뮤직」

- 임백천 씨를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애청한다. 임백천 씨와 제작진이 엄선한 7080년대의 명품 팝송들을 청취할 수 있어 마음에 들고, 나른한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점에도 늘 감사하고 있다. 계속해서 따뜻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혜영 씨는 MBC 라디오「싱글벙글쇼」를 무려 30년이 넘게 진행했다. 그래서「김혜영과 함께」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들이라서 식상하고 지루하다. 추후 개편 시에는 참신한 진행자를 섭외해 새롭고 신선한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2R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 지친 오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특히 진행자 인호진 씨의 음성이 듣기 좋고, 따뜻하고 감미로운 진행이 방송에 품격을 더한다. 좋은 음악들이 많이 소개되는 점도 마음에 든다. 앞으

로도 차분한 진행과, 오후 시간대에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으로 청취자들의 오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전기현 씨의 감미로운 진행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덕분에 정서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현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다른 분이 진행을 맡고 있어 아쉽다. 전기현 씨의 빈자리를 느끼는 청취자들이 많으니 건강을 회복해서 속히 복귀해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친 오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본인은 정세진 아나운서의 따뜻하고 감미로운 진행을 무척 좋아했는데, 최근 진행자가 교체되어 아쉬웠다. 추후 개편 시 정세진 아나운서가 해당 방송의 진행자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겠다. <7월 20일 보고서>

○ **2FM 「정은지의 가요광장」**

- 진행자 정은지 씨가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쁜 스케줄과 라디오 진행을 병행하기 어려워 하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당 방송을 재미있게 청취해왔던 청취자로서는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 좋은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던 정은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2월 23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성대모사의 달인을 찾아라'**

- 요일마다 다른 성격의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청취한다. 목요일에는 청취자들이 참여하는 '성대모사의 달인을 찾아라'라는 코너가 있다. 그런데 박명수 씨가 참여한 청취자들에게 심하게 역정을 내어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방송에서 '호통 개그'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일반인 청취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2FM 「이기광의 가요광장」**

- 이기광 씨의 오랜 팬으로, 이기광 씨가 '가요광장'의 진행을 맡은 후로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다양한 장르의 가요부터 최신곡까지 아우르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인데,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 위주의 선곡이 마음에 든다. 즐리고 나른한 점심시간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잠을 깨우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7월 5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흘러간 옛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즐겨듣는 방송이다. 원석현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이 새벽 시간대에 잘 어울려 좋아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찾아듣는 방송으로, 앞으로도 좋은 진행으로 오래도록 청취자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5. 공정성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단독] 김혜경 측,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사적 유용 의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소고기 구입을 지시한 텔레그램에는 '117,900원'으로 적혀있는데, 영수증에는 '118,000원'으로 결제 내역이 찍혀있어 보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로 여겨져 편파적이다. <2월 4일 보고서>
- 1TV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초청 3차'
 - 이날 KBS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서로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가하는데, 진행자가 제지하지 못해 답답했다. 또한 각 후보마다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점이 보기 불편했다. <3월 4일 보고서>
- 1TV 「2022 지방선거 KBS 초청토론」'경기도지사'
 -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출연했다. 본인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는데, 강용석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부분에서 버퍼링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기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후보의 공약만 누락된 점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시사멘터리 추적」[이슈추적] 어느 공무원의 죽음'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송 내내 유족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겨 균형이 맞지 않게 느껴졌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퀴어 축제' 3년 만에 서울광장 개최...갈등도 다시 점화'
 - 16일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다. 본인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기사에서 경찰 추산으로 퀴어축제에는 만 3천여 명, 반대 집회에는 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는데, 반대집회 참가자는 만 5천여 명보다 많았다. 또한 반대 집회보다 퀴어축제를 더 중점적으로 보도한 점도 편파적이다. <7월 1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조선업 고된 노동·낮은 임금..88% "인력 돌아오지 않을 것"'
 - KBS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우리 조선업의 현실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이날은 열악한 처우로 현장을 떠나는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그런데 대우조선 측의 입장 없이, 하청노동자들의 입장만 보도되어 아쉬웠다. 또한 언론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대대적으로 다룬다면,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씨를 지피게 될까 우려된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이준석 "尹과는 오해...'윤핵관'은 끝까지 싸울 것"'
 -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9시 뉴스에서 해당 기자회견을 상세히 다뤘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폭로성 발언도 쏟아냈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일 뿐이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정지 판정 원인인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없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만 보도되어 편파적으로 여겨진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목사님과 650억’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은 2009년 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됐고, 2018년 무렵부터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고 현재 빈터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제일교회만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까닭을 다뤘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지 않아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일방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라 보기 불편했다. <9월 26일 보고서>

○ 1TV 「다큐 온」‘다큐온 -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 지난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모색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와 논의 끝에 소각장을 설치한 덴마크와, 주민들이 모르게 선정하고 진행하는 마포구의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서울시 입장에 근거한 방송이라 상당히 편파적이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박지원-서훈 반박 기자회견...“삭제 지시·월북물이 안 해”

-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민 북송 사건 당시 정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다. 말 그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일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두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편파적인 것 같다. <10월 28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12」

-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 또한 품고 있는데, 이날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발언을 했다. 언론에서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만 해주길 바라고, 선불리 누구 탓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란다. <11월 2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

- 하루를 정리하는 밤 시간에 그날그날의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어 늘 챙겨본다. 그런데 진행자와 다수의 패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라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진행자 최옥 씨는 패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을 할 때가 많아 보기 불편하다.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만큼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아직도 구둣발 소리에 아들 기다려요”..고 이지한 씨 어머니 인터뷰’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출연해 남겨진 가족들의 심정과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사과가 없고, 10조를 받아도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불의의 사고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며, 공영방송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도하는 것도 편파적이었다. <11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단독] 유동규 “이 대표 위해 건넨 돈”...핵심 답변은 “재판에서”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지난 9일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은 4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 본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천만 원씩을 받았다는 혐의다. 유 전 본

부장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에서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보도한 점이 편파적이며,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도 더 상세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12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경제대기권] '주 69시간 허용' 저녁 없는 삶?

-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다각도로 짚어보는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권' 코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권고안 기준으로 최대로 일할 경우를 예로 들어 '저녁 없는 삶'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약이 심하고 극단적이었다. 블라인드에서 인기를 얻은 글 중 정부를 비판하는 글 위주로 소개한 점도 공정하지 않다. <12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뉴스를 만나다] "월급 250만 원인데 470억 원 소송"

-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부지회장이 출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뤄 편파적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출연했어야 한다. <12월 27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가수 임영웅 씨와 걸 그룹 르세라핌이 1위 후보로 맞붙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임영웅 씨의 1위를 예상했는데, 르세라핌이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 씨가 르세라핌보다 '디지털 음원점수'와 '음반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단지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1위를 놓쳤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 방송 출연 횟수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편파적으로 여겨진다. <5월 16일 보고서>

- 지난 13일 임영웅 씨는 1위 후보에 올랐지만, 방송점수에서 0점을 받아 2위로 밀려났다. 이후 방송점수 0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KBS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팬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방송점수 중 라디오 부분은 KBS 쿨FM 7개 프로그램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원이나 음반점수보다 방송횟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5월 23일 보고서>

○ 2TV 「2022 프로야구-플레이오프 3차전」'LG:키움-고척'

-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22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렸다. KBS 중계를 통해 시청했는데, 진행자들의 편파적인 해설이 보기 불편했다. LG 트윈스 출신인 박용택 해설위원이 시종일관 LG 편에서 해설했고, 이광용 아나운서 또한 제지가 없어 실망스러웠다. 양 팀 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중계해주기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 탐사보도 전문 주진우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사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때때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해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청취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하게 진행해주었으면 한다. <1월 5일 보고서>

○ 1R 「최영일의 시사본부」

-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요 시사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분석해주어 점심시간에 즐겨 청취하고 있다. 지금 대선을 앞둔 무척 예민한 시기인데, 진행자와 다수의 패널들이 전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다양한 청취자가 들었을 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화제성 뉴스 및 사건사고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더불어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의 안정적인 진행도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다만 김성완 씨가 너무 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점이 듣기 불편하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1R 「정용실의 뉴스브런치」'주간 '똑똑똑''

- 최근 장애인단체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논란으로 번졌다. 이날 '계간 홀로' 이진송 편집장과 '위티' 최유경 활동가가 출연해 우리나라의 시위문화와,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시위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수습 분간 지하철 운영을 지연시킨 방식은 옳지 않았다. 그런데 진행자와 패널이 그런 지적 없이, 장애인단체를 옹호하기만 하는 점이 아쉽고 유익하지도 않았다. <4월 11일 보고서>

○ 1R 「정용실의 뉴스브런치」'손희정의 문화비평'

-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출연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힘 보탠 연예인 하리수의 행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입장만 다루어져 아쉬웠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 쪽에 편중되지 말고,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 청취하는 동안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한 방송이다. 매일 오후 즐겨 듣는데, 이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 성과나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으로만 평가해 듣기 불편했다. 청취자들이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한쪽으로 편중된 평가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가가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진행자의 정치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초대하는 패널들도 진행자와 같은 성향일 때가 많아 아쉽다.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2월 20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기 좋다. 김재홍·백정원 아나운서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도 방송에 신뢰를 더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 초반에 '김재홍 아나운서'가 '김태규 아나운서'로 잘

못 표기됐다.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이날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이 방영되는 시각, 화면 하단에 스크롤 자막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집계를 '뉴스특보' 형식으로 전해주었다. 그런데 집계 시점이 223일 0시 기준으로 잘못 표기되어 순간 당황스러웠다. 추후에는 자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이날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이 방영되는 시각,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남아 시신에 대해 경찰이 북한에서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떠내려왔을 왔을 가능성'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보기 안 좋았다. 앞으로는 자막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TV 「ID영상」

-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이나 명소를 짙막한 영상으로 보여주어 잘 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성수대교를 소개했는데 자막으로는 한남대교로 잘 못 표기되었다. 정확하게 자막 표기를 해주기 바란다. <8월 3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이날 오후 5시경, 자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전체 발생이 107,894명인데,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이 109,459명으로 표기되어 의아했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8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온종일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며 KBS에 수백 건에 달하는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시청자 제보로 본 오후 피해 상황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한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에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이라고 자막 표기 됐는데, 해당 장소는 대화동이 아닌 탄현역 부근이었다. 시청자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있게 자막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우즈베키스탄 로라'

-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혼을 겪은 후 한국행을 택한 로라의 사연이 소개됐다. 현재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상태인데, 방송 초반 남편을 소개하며 '지체 장애 2급'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대체되며 더 이상 '장애 2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표현해주기 바란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한중수교 30주년 기획 2부작 - 1부 협력인가, 경쟁인가'

-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았다. 이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가 출연해 한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그런데 한중수교 자료화면을 보여줄 때 이상옥 전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상호로 잘못 표기됐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 자막 표기에 더욱 주의해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KBS 중계를 통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그런데 행사 말미에 제창됐던 군가 '멸공의 햇불'이 '승리의 햇불'로 안내되었고, 가사의 자막도 '멸공'이 '승리'로 표기됐다. 가사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손흥민-이강인 포함 카타르 월드컵 26명 명단 발표 "이제는 즐길 시간"

-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이 공개됐다. 부상을 입은 손흥민 선수와, 발탁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강인 선수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자막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이강민으로 오기재 됐다. 자막 오류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니 주의해주기 바란다. <11월 14일 보고서>

○ 1TV 「안녕 우리말 2022」

- 이날 방송에서 '잘못된 언어습관을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서'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로서'는 지위나 자격 뒤에 붙여 사용하는 격 조사고, '~로써'는 수단이나 방법, 원료나 재료 뒤에 붙여 사용하는 격 조사이다. 그러므로 해당 자막은 '보여줌으로써'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고 권장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자막 실수가 발생해 안타깝다. <12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與 "노조 장부 보겠다" 법안 발의..노동계 "자주권 침해"

-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개선 권고에 이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하고 나섰고, 양대 노총에서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하단의 자막에는 여당이 야당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공영방송에서 자막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빠른 수정을 당부한다. <12월 2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밥상원정대 네박자'

-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네박자가 강원도 철원의 모범생인 홍금순 할머니를 찾아뵙고 일손을 돕고,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위로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그리고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고, 홍금순 할머니가 네박자를 배웅하는 장면에서 '마중 나와 주신 홍금순 할머니'이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새해를 맞아 정성윤·김미려 부부가 신년운세를 보러가는 내용이 방송됐다. 그런데 정성윤·김미려 부부의 분량이 끝날 무렵, 자막에 '2022 임진년'이라고 표기됐다. '임진년'은 2012년이었고,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로 '임인년'이다. 정확한 정보로 자막을 작성해주었으면 좋겠다. <1월 10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굿모닝 퀴즈'

- 이날 '굿모닝 퀴즈'에서는 "다음 중 웃음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라는 3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출제됐다. 그런데 2번의 '요절복통'과 3번의 '허허실실'이 모두 '腰折腹痛'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허허실실'은 '虛虛實實'로 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막 표기에 주의해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왜?'

-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중고차

딜러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자막에 자동차학과 교수라고 표기됐다. 자동차학과에서 미래자동차학부로 바뀌었으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2TV 「해 불만한 아침 M&W」'잠시 멈출 수밖에'

- 이날 '잠시 멈출 수밖에' 코너에서 천여 개의 암봉이 길게 이어진 수려한 산세로 호남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는 대둔산을 소개했다. 산 정상의 광경을 보여주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다만 좌측 하단에 '충북 논산'이라고 자막이 잘못 표기되어 아쉬웠다. 논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도시이다. 앞으로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걸 그룹 퍼플키스가 출연해 'Intro: Bye Bye Bully'라는 곡으로 무대를 선보였다. 그런데 멤버 도시가 혼자 춤추는 장면에서 멤버 나고은의 이름이 표기됐다. 팬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멤버 이름 표기에 더욱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1일 보고서>

| 7. 시청자권익 |

○ 기타 「유튜브」

- 본인은 2005년 5월에 방송된 의학 전문 다큐멘터리 「영상기록 병원 24시」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2022년 5월, 당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됐다. 현재는 17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출연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불편하다. 출연자 동의 없는 유튜브 업로드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5월 27일 보고서>

○ 2TV 「빼고파」[최종회]'은아's 빼프터 일상'

- 고은아 씨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장면이 방송됐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고은아 씨가 건강검진에 앞서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메일주소, 집주소가 노출됐다. 개인 정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이다.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7월 18일 보고서>

| 8. 프로그램 호평 |

○ 1TV 「자연의 철학자들」'아버지의 숲'

- 작고한 아버지가 남긴 은행나무 숲을 무대로 살아가는 자연 예술가 윤용신·이세일 부부의 자연철학을 소개했다. 오밀조밀한 마당과 은행나무 숲 등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자연 속에서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가꿔가고 있는 부부의 삶을 보며 느낀 점이 많다. 각박한 시대에 생의 이치를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방송이었다. <1월 3일 보고서>

○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서울 관악구'

- 이날은 서울 관악구에서 새해 첫 발걸음을 떼어보았다. 과거에는 수질이 좋지 않았지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깨끗해진 '도림천'부터, 관악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샤로수길'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관악구 일대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좋은 장소들과 맛집, 산책로 등을 소개해주어 유익했다. 2022년에도 사람들이 미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네의 아름다움을 조명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가요무대」'새 희망 새 출발'

- 새해를 맞아 '새 희망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장장 80분간의 신년특집방송을 마련해주었다.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밝고 희망찬 노래 위주로 선곡이 되어 시청 내내 흥겨운 기분이 들었고, 무엇보다 조명섭씨가 출연해 반가웠다.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5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건양다경'

- 이날은 '따스한 날을 맞아 경사가 많아지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지닌 '건양다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정적이고 따사로운 음색을 지닌 가야금 연주를 들려준 덕분에 방송을 통해 봄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퓨전국악을 주로 소개해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날은 전통국악 위주로 방송되어 너무 즐거웠다. 아름다운 국악을 감상할 기회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다뤘다. 제작진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추적하고,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단순 고발을 넘어 불의를 끝까지 파헤치는 모습에 감명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유익한 주제이므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언론에서 '암수범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2월 8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뇌졸중과 전신마비까지? 생명의 통로, 3목 건강법'

- 목, 손목, 발목은 여러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위의 건강을 방치하면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날 해당 분야의 전문의들이 출연해 목, 손목, 발목 건강의 중요성부터 건강 지키는 비법까지 자세히 다뤄주어 유익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9일 보고서>

○ 1TV 「어린이 동물티비」

- 동물을 배움에 접목시킨 어린이 동물 프로그램으로, 동물에 대한 지식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주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송골매를 다뤘는데, 새끼 송골매들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유익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대선과 부동산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 없나'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 중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다. 이날 방송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찾아가 실태를 살폈다. 아파트와 주택들이 한꺼번에 철거되며 갈 곳을 잃고 밀려나는 피해자들을 조명해주어 감사했고, 재개발의 장점만이 아닌 단점까지 파악해주어 유익했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월요일 저녁마다 유익한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우리말 겨루기」를 꼭 시청한다. 이날도 다양한 연령대

의 도전자들이 출연해 달인에 도전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용어와 신조어가 급속도로 퍼지며 우리말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미있는 퀴즈와 숨 막히는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주어 감사하다. <2월 23일 보고서>

○ 1TV 「UHD 숨터」'합천 천불천탑'

- 많은 이의 염원이 담긴 합천 천불천탑을 보여주었다. '천불천탑'이란 천 개의 탑과 천 분의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배경에 특별한 연주를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탑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시청자들이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영상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다큐 인사이드」'캐스팅 보트'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이날은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역대 대선을 돌아보며 선거의 결과를 가를 '한 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을 통해 중도층의 마음을 잡은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인지, 한국의 중도층은 누구인지 살펴본 점이 유익했다. <3월 7일 보고서>

○ 1TV 「제20대 대통령 선거개표방송」

-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으로 치러졌는데, 각 방송사들의 개표방송도 선거만큼 치열했다. 본인은 KBS를 선택했는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개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져 자칫 지루할 수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재미있게 진행되어 끝까지 집중해 시청했다. 개표방송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특집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이날 KBS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검사와 정치인이 되기 전 인간 윤석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 흥미롭게 시청했다. 덕분에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관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뜻깊은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산불피해, 함께 이겨냅시다」

-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1986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 산불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날 KBS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방송이 90분 동안 진행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산불 피해 복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석좌교수, 자격을 묻다'

- 제작진이 전국 4년제 대학에 석좌교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140여 개 대학에서 석좌교수 984명의 명단을 구해 분석했다. 전직 관료나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강의도 연구도 하지 않았다. 예외의 수단으로 변질된 석좌교수의 면면을 파헤쳐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제작진에 감사하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UHD 환경스페셜」'불편한 동거, 1년의 기록'

- 유기견을 중심으로 야생화 된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사람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키

우던 동물들이 버림받고, 이 버림받은 동물들이 다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시청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가 되며 동물학대와 유기견 등 사회적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3월 29일 보고서>

○ 1TV 「다음이 온다」'격차의 시대 3회'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평등'을 다뤘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출연해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불평등을 분석했고, 덕분에 불평등을 넘어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생활이 이어졌는데, 방송을 통해 좋은 강연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4월 4일 보고서>

○ 1TV 「4.3 특집 다큐 다랑쉬 비망록」[제주총국]

- 다랑쉬굴 발견 30주년을 맞아 4.3특집 다큐멘터리 「다랑쉬 비망록」이 방송됐다. 다랑쉬굴을 처음 발견한 제주 4.3 연구소 연구원들과 제민일보 4.3 취재반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당시 유해 발굴 희귀 영상 등을 보여주었다. 방송을 시청하며 느껴지는 게 많았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4월 5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청각장애인 자녀의 창업, 엄마가 돕는다'

- 청각장애인 진수 씨와 성우 씨의 어머니가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 누룽지를 만들어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당당히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고 돕는 모습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걱정도 많지만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이 편안한 안식처인 자립의 토대가 되어 주기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가슴 뭉클했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안전지대는 없다, 푸틴의 전쟁'

-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러시아군의 잔혹한 살상 행위가 드러나며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푸틴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덕분에 우리 자체의 국방력을 기르는 길이 유사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느낄 수 있어 유익했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이리오너라 조선클럽」[광주총국]

- KBS 광주총국에서 기획한 신개념 국악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국악 공연에서 벗어나, 출연자들의 입담과 알쏭달쏭한 퀴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송이었다. 50분 내내 잠시도 시선을 돌릴 수 없을 만큼 푹 빠진 채 시청했다. 해당 방송을 기획한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삶의 경계에 내몰리다, 경계선 지능'

- '경계선 지능'은 지능검사 지수가 70~85 사이에 있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의 밖에 머물러 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고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감사하다.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4월 18일 보고서>

○ 1TV 「자본주의 학교」[첫 회]

- 경제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존법을 알려주는 경제 관찰 예능프로그램이다. 가수 윤민수 씨의 아들 윤후, 故 신해철 씨의 자녀 신하연·동원 남매 등이 새로운 입학생으로 등장했다. 경제 교육이 필수인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성이 탄탄하고 내용이 알차 재미있게 시청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한반도 운명의 봄」

- 세계정세 속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탐색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되었고, 이날 방송인 3회에서는 '러시아 편'이 다뤄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어떤 외교 전략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지 모색해주어 잘 시청했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열린채널」'나를 떠나도 좋습니다'

- 제주도를 위해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이야기를 통해 유기견의 문제를 다뤘다. 본인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무척 공감하며 시청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다보면 어려움도 많고, 동물보호활동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동물보호단체의 현실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많은 유기동물들이 안식처를 찾게 되길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독인가 약인가 생활 속 화학물질의 비밀'

- 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가 강연자로 출연해 '독인가 약인가 생활 속 화학물질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본인은 삶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화학제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들 중,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강연이었다. <5월 3일 보고서>

○ 1TV 「시사멘터리 추적」

- 시사와 미디어 비평을 아우르는 새 프로그램 「시사멘터리 추적」이 이날 첫 방송됐다. '이슈 추적'과 '미디어 추적' 등 총 3개의 코너로 진행됐는데, 각 코너마다 주제 의식이 좋았고 다양한 이슈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주어 유익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응원 보내겠다. <5월 3일 보고서>

○ 1TV 「100번째 어린이날 기획 한국인의 밥상」

- 올해는 어린이날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어린이날 특집이 방송됐다. 남해초등학교 근처에서 33년째 빵을 판매하는 제빵사 김상식 씨의 사연이 인상적이었다. 가난한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2년째 등굣길에 빵 나눔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의 밥상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5월 9일 보고서>

○ 1TV 「KBS 중계석」'2022 교향악축제 성남시립교향악단'

- 클래식을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은 문화예술 전 부문에 걸쳐 공연 및 이벤트를 녹화해 해설과 함께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고급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해주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날도 TV를 통해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좋은 공연들을 많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1TV 「어버이날 기획 노래가 좋아」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날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세상에 이런 부모 자식이'라는 주제로 특집방송이 꾸며졌다. 어버이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방송을 시청했는데, 독특한 사연의 부모·자식 팀들이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선사해주어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가정의 달에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생각의 탄생, 반가사유상 1 - 구원의 미소'

-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 일평생을 정진해온 최종태 조각가가 프리젠티어로 나서 '반가사유상 코드'를 풀어보았다. 반가사유상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독특한 자세와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것일지 늘 궁금했기에 흥미롭게 시청했다. 매회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스카우트 3.0」

-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가 시즌3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 시작되어 몹시 반가웠다. 이날 소개된 두 기업의 복지가 너무 좋아 관심이 간다. 계속해서 학력보다는 실력이 인정받는 채용 문화를 위해 앞장서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언론과 진실 1부 조작의 역사'

- 불과 30년 전까지 군사독재정권은 평범한 민간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며 범죄자로 낙인찍고 벌을 내리는 일이 많았다. 이날은 이 거대한 조작 사건에서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언론 보도의 60년 역사를 추적했다. KBS에서 어려운 주제를 심도 있게 파헤쳐 준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계속해서 깨어있는 공영방송, 진실을 찾는 공영방송이길 바란다. <5월 19일 보고서>

○ 1TV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

- 이날 방송은 역사적 의미가 큰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청와대라는 곳이 궁금했는데, 곳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며 청와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방송 말미에 객석에 앉아있던 윤 대통령 내외가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마련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자연의 철학자들」'이계진의 킱다킱반(喫茶喫飯)'

- 워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해당 방송은 각박한 시대에 생의 이치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해주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26년 차 산골 농부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계진 전 아나운서가 출연해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조명과 박수로부터 떠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택한 이계진 씨의 철학을 들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 <5월 30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GPS와 리어카'

- 가난한 노인의 폐지수집 노동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 노인들이 왜 폐지를 줍는지 또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날 폐지수집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난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공익적인 내용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다뤄주기 바란다. <6월 2일 보고서>

○ 1TV 「다큐 온」'황혼의 캔버스'

- 황혼의 캔버스 앞에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3명의 할머니 작가들을 소개했다. 75세, 83세, 95세의 고령이지만 세월을 아쉬워하지도 나이를 탓하지도 않고 성실함과 집요함으로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덕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6월 7일 보고서>

○ 1TV 「호국 보훈의 달 기획 가요무대」

- 이날은 예순일곱 번째 맞이하는 현충일이다. 6월은 현충일과 한국전쟁으로 기억되는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날 방송에서 전쟁터의 진한 전우애와 애국심을 표현한 노래와 전쟁과 분단 그리고 목숨을 건 피난 시절의 노래를 들려주어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주어 감사하다. <6월 8일 보고서>

○ 1TV 「국민MC 송해 추모 다크 내 인생 덩동댕」

- 지난 8일, 방송인 송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이날 KBS에서 국민MC 송해 선생님을 추모하는 다크멘터리를 방송해주어 먹먹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송해 선생님의 지인들을 통해 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시청자 입장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 충격과 아쉬움이 컸는데, 추모 다크멘터리를 통해 추억을 정리할 수 있어 위안이 됐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국민MC 송해 추모특집 전국노래자랑」

- 최장수 MC 송해 선생님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날 「전국노래자랑」은 고(故) 송해 선생님의 추억하며 국민 MC의 업적을 기렸다. 송해 선생님의 생전 인터뷰부터 그의 일생과 「전국노래자랑」의 활상 등을 보며, 송해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어 좋았다. 무려 34년 동안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니느라 수고하셨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치매가 뭐길래'

- 이번 목요특강은 '치매가 뭐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곧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되는 시대에 적합한 주제라 관심을 갖고 시청했다. 이화여대 신경과 교수,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출연해 예방법과 재활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주어 유익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TV 유치원」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교육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다. 40년 역사에서 비롯된 어린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늘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니 믿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교육과 재미를 모두 아우르는,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24일 보고서>

○ 1TV 「6.25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이날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역사의 산증인이 시니어 자문단으로 출연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그때를 경험했던 분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KBS걸작 다큐멘터리」‘효천스님의 차 이야기’

- 차는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효천 스님의 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차잎을 따는 순간부터 말리는 과정까지 오롯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하는 차 만드는 모습을 보며, 효천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덕분에 공기가 맑고 청정한 전남 함평군 대동면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어 힐링이 되는 방송이었다. <7월 1일 보고서>

○ 1TV 「주문을 잊은 음식점 2」

-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경증 치매인이 주문받고 서빙하는 음식점이다. 이날 드디어 첫 영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깜빡 4인방은 한 달간 연습 끝에 손님맛이를 시작했지만, 잠시 기억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툰 솜씨로 최선을 다한 이들의 도전이 감동적이었다.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힐링을 선사해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7월 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그곳에 사람이 있었다’

- ‘진주성’은 지금은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430여 년 전에는 임진왜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무대였다. 이날 방송에선 430여 년 전 진주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처절한 전투를 알아보았다.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부터 가슴 아픈 패배의 역사까지,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7월 5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대전충국]」‘환경호르몬’

- 일상 속에 퍼져있는 환경호르몬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았다. 환경호르몬이 일으키는 질병부터 유의할 점,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상세히 다뤄주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부분을 방송으로 제작해준 KBS 대전충국에 감사하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영상앨범 산」‘신비로운 물의 낙원 - 요세미티 국립공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보여주었다. 산악 가이드 윤성문 씨를 필두로 일반 트레커 4인의 하이킹을 따라가며, 호수와 폭포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국내외 명산을 소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7월 18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역사와 자연의 섬, 보물밥상을 만나다!’

- 이날은 금은보화보다 귀하다는 강화의 먹거리를 만나보았다. 다양한 먹거리가 소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3형제가 푹푹 뭉쳐 만들어내는 떡이 인상적이었다. 강화도에서 고르고 고른 찹쌀로 만든 가래떡과 인절미를 보며 군침이 돌았다. 해당 방송은 식품과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음식을 통한 지역 문화, 역사까지 알 수 있어 유익하다.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아 시청자들과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7월 25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빛나는 순간’

-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은 믿고 보는 배우 고두심 씨와 지현우 씨가 출연하는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제주도의 특이한 연상연하 로맨스를 다뤘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주인공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며 재미있게 시청했다. <8월 1일 보고서>

○ 1TV 「올웨이즈 7000」[부산총국]

- 중장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콘서트 7080」의 명맥을 잇는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대중을 사로잡은 가수들을 초대해서 그때의 감성을 간직한 명곡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늘 공감하며 감상한다. 음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8월 4일 보고서>

○ 1TV 「광복절 특집 다큐 아내의 이름」

- 광복절을 맞아 독립투사의 아내를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4명의 독립투사의 아내들이 단순한 남편의 조력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독립운동가였음을 조명했는데, 시청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가려졌었던 부분을 취재해 뜻깊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동행」'엄마의 24시간 앞치마'

- 3년 전 갑작스러운 익사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하루 12시간 숯불갈비 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엄마 한유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한유희 씨의 건강한 마음가짐이 보기 좋아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탈모, 헤어(hair)날 수 있을까?'

- 평소 탈모로 고민이 깊은 시청자이다. 탈모가 예전에는 중년 남성만의 고민거리였다면, 이제는 남녀노소의 고민거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탈모에 대한 불분명한 속설들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탈모를 막기 위한 올바른 관리법과 치료법을 알려주어 유익했다. <8월 26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2,500km 광활한 대륙을 달리다 - 몽골 서부'

- 중앙아시아 고원 지대에 자리한 몽골을 다녔다. 몽골 대륙을 횡단하며 사막과 초원, 만년설과 빙하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름다운 광경에 기분전환이 됐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어 즐거웠다. <9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태풍 힌남노'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KBS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시각까지 「뉴스특보」를 편성해 태풍 상황에 집중했다. 기자들과 제작진 등 뉴스 관계자들이 철야 근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전달해준 덕분에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 자체 재난감시망을 갖춰 시청자들에게 각종 재난 정보를 공유한 KBS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9월 7일 보고서>

○ 1TV 「추석 특집 종로 사진관」

- 아날로그 사진을 매개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는 '휴먼토크멘터리'로, 다양한 손님을 초대해 그들의 삶 속의 희로애락을 들여보았다. 모든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강봉희 장례 지도사의 사연이 심금을 울렸다. 추석을 맞아 시청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9월 13일 보고서>

○ 1TV 「추석 기획 우리말 겨루기」

- 추석을 맞아 다양한 연예계 가족들이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했다. 연예계 대표 배우 부부인 박준규 씨

와 진송아 씨, 쌍둥이 트로트 가수라는 길을 개척한 그룹 '윙크' 등 가족들이 출연해서인지 각 팀들의 호응이 좋아 재미있게 시청했다. 즐거운 겨루기를 보여준 제작진과 출연자들을 칭찬하고 싶다. <9월 1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오징어 게임’ 美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비영어권 최초’

- 미국 방송계 최고상으로 꼽히는 에미상 시상식에서「오징어 게임」이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석권했다.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는 처음이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다. 무엇보다 현지 상황이 궁금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특파원이 현장 상황 및 외신 반응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어 좋은 마음으로 시청했다. 언제나 발 빠른 보도에 감사드린다. <9월 15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통일로 미래로’

- ‘통일로 미래로’ 코너에서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의 일부 길이 70여 년 만에 정식으로 개방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10개 지역에 11개의 테마 노선을 꾸몄다는데, 이날 리포터가 그 중에서 강원도 양구 지역을 소개했다. 방송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길 바라며 유익하게 시청했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미디어아트로 구현한 박상화 작가’

- 9개 총국의 네트워크 공동기획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미디어아트로 독보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을 창조하는 박상화 작가를 소개했다. 평소 생소하게 느껴지던 영상 작품에 대해 접해볼 수 있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계속해서 다양한 예술인들을 소개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시대의 이슈가 되는 사람을 ‘쌤’으로 초대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기간 동안 좋은 강연을 들으려 다닐 수 없었는데, 해당 방송 덕분에 매주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즐거웠다.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쌤’들을 초청해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은 명강연을 들려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

- 하루를 정리하는 밤 시간에 그날그날의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어 늘 챙겨본다.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중요한 시사 이슈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더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 화면에 노출되는 실시간 댓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시사토크쇼 형식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9월 3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목요특강’

- 4명의 전문가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지식을 채워주고 궁금증도 풀어주는 ‘목요특강’을 좋아한다. 이날 1교시에 진행된 ‘발 건강 노란불 평발 vs 요족’ 강의와, 4교시에 진행된 ‘떨림이 보내는 빨간불 파킨슨병’ 강의를 특히 유익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9월 30일 보고서>

○ 1TV 「안녕 우리말 2022」

-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잘못된 언어표현을 바로잡아 우리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해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맞춤법 및 어법을 자주 틀리고 관습적으로 잘못 쓰이는 공공언어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10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오전에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특히 기상캐스터가 전해주는 일기예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해당 방송에서 출근길 기온 및 낮 최고기온 등을 알려주어 도움 받고 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에 힘써주는 KBS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0월 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어둠의 코인을 추적하다’

- 지난 2021년, 가히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다. 본인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다. 이날 해당 방송에서 가상자산 투자 뒤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매우 공감하며 시청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코인 불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주어 감사하다. <10월 6일 보고서>

○ 1TV 「100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지구를 위한 밥상’

- 우리의 밥상 위 익숙한 음식들을 통해 오늘날의 지구를 생각해보았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위기에 강하고 기후에 적응하는 작물이 무수히 많았지만, 현재는 약 12종의 작물이 전 세계 농지의 75%를 차지할 만큼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인류의 식생활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작물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단독] ‘찾아가는 긴급복지’ 대상, 올해만 11명이 고독사’

- 얼마 전 암에 걸린 어머니와 지병을 앓아온 두 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날 9시 뉴스에서 수원 세 모녀 말고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열한 명 더 있었다고 보도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정부와, 그 사이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 유익한 보도였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시사멘터리 추적」 [이슈추적] 사과도 보상도 없었다’

- 본인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이다. 전두환 정권 당시 자행된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뿐 아니라 강제입소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 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보상이 없어 답답했다. 공영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10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라인」

-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마감뉴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매일 밤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다. 다양한 소식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다.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전하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지리산 시인과 화가 아내'

- 도시의 삶을 등지고 산골생활에 뛰어든 김기수·추일주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김기수 씨는 약초를 캐며 시를 쓰고 추일주 씨는 장사와 틈틈이 그림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더불어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힐링이 됐다. 자연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부부의 일상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1월 3일 보고서>

○ 1TV 「KBS 특별기획 더 나은 삶 우리 함께」'당신이 영웅입니다'

- 이날 KBS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숨은 영웅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도 쉬고 복지관도 문을 닫은 시기에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반찬을 나눔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취약 계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따뜻하고 유익한 방송이었다. <11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단독] 경찰청장의 '특별'한 퇴근길..교통 통제까지?

- KBS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특별한 퇴근길을 단독 취재해 보도했다. 대통령의 출퇴근길에 신호 통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찰청창도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취재진이 닳새에 걸쳐 잠복근무를 하며 세세하게 촬영했던데,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파헤치는데 수신료가 쓰이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12월 23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가 출연해 박원숙·혜은아·김영란·김청 씨와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박원숙 씨가 정동원 씨에게 '통장 개설금'을 선물하며, 앞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출연료 등을 모으라고 조언하는 부분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정동원 씨의 너스레와 입담으로 평소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중년 여성 스타들의 동거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1월 7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생생한 뉴스와 이슈들, 사건사고의 현장 등을 발 빠르게 담아주어 2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최근 옷을 일이 없는데, 강승화 아나운서의 유쾌하고 활기찬 진행 덕분에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많이 웃게 된다.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들에게 감사하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한 번쯤 멈출 수밖에」'강원도 고성'

- 배우 문정희 씨가 출연해 이선희, 이금희 씨와 함께 강원도 고성으로 여행을 떠났다. 숙소 한 편에 설치된 벽난로와 LP판을 통해 아날로그 감성을 만끽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 사람을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도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방송 내내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즐거웠고, 계속해서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2022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 국내 최고령 현역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인생을 트로트 뮤지컬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송해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96년 인생사를 트로트 뮤지컬 형식에 담아냈는데, 후배 가수들의 헌정 공연이자 시청자들에게는 설 선물로 여겨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아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준 KBS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2월 3일 보고서>

○ 2TV 「2022 설 특집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

- 민족 대 명절 설날을 맞아 힘찬 새해가 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긴 국악 콘서트다. 평소 송가인 씨를 좋아해 시청했는데, 국악과 트로트라는 이색적인 조합에 푹 빠져 110분이라는 시간이 지루할 틈 없이 흘러갔다. 취지도 좋고 다채로운 볼거리도 많아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 명절에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3일 보고서>

○ 2TV 「주점이 풍년」'김호중 편'

-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팬클럽 '아리스'가 출연해, 팬들이 행한 선한 영향력을 공개했다. 개개인의 덕질 영상과 팬클럽 내의 장기자랑 등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했다. 나이 제한 없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하고 활기찬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 칭찬하고 싶다. <3월 7일 보고서>

○ 2TV 「갯파더」

-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옷집을 찾아 쇼핑을 하는 강주은·가비 모녀와,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에 나선 김갑수·장민호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진짜 가족 사이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새롭게 만난 부자(父子)와 모녀(母女)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신선하면서 공감이 된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예능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3월 25일 보고서>

○ 2TV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차세대 국민동요를 만들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아기싱어 동요 유치원의 첫 등원날이 그려졌는데, 서로 처음 만나게 된 아기싱어들의 리얼한 반응이 귀엽고 재미있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동요 제작기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 <3월 28일 보고서>

○ 2TV 「우리끼리 작전타임」

- 스포츠 스타 부모와 대를 이어 같은 길을 걷는 2세들의 일상을 담았다. 골프 영웅 박세리 씨와 스포츠 중계의 전설 김성주 씨를 좋아해서 시청하기 시작했다. 부모의 등을 보며 치열하게 살아온 자식과 같은 길을 걸어 본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점에 공감이 되며, 신선한 콘셉트가 흥미롭다. 시청자들에게 점차 알려져 KBS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응원한다. <4월 1일 보고서>

○ 2TV 「통합뉴스룸 ET」'호모 이코노미쿠스'

- 이날 '6월 3일까지 내 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라는 주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었다. 휴면예금부터 잠자는 보험금 등을 어떻게 찾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민간보험이 아닌, 의무적으로 드는 4대 보험에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가 굉장히 유용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다뤄주어 감사하다. <4월 8일 보고서>

○ 2TV 「특선 앙코르 UHD 환경스페셜」

- 매일같이 아내를 위해 산을 오르내리는 지계꾼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걸음을 따라 봄을 맞아 차가운 땅을 뚫고 피어나는 풀꽃들을 조명했다. 꽃의 무게조차 만만치 않을 한계령풀부터 가장 먼저 새순을 올리는 귀룽나무까지,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시청했다. 품격 있는 환경 전문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4월 8일 보고서>

○ 2TV 「**영화가 좋다**」

- 신작과 구작을 아우르며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다. 영화 속의 숨은 재미와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방송 말미에 '시사회 초청 이벤트'와 같은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마음에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눈여겨 볼만한 신작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경제 솔로몬 - 악몽이 된 여행, 분쟁 대처법!'**

-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며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도 현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데, 이날 '여행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어 주의 깊게 시청했다. 국가 별, 여행사 상품 별로 나눠 꼼꼼하게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됐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24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2022 상반기 왕중왕전 2부'**

- 이날은 '2022 상반기 왕중왕전' 2부가 방송됐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팀들이 출연해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손에 땀을 쥐며 시청했다. 출연자들의 카리스마와 가창력은 말할 것도 없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 구성까지 모든 것이 훌륭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주길 바란다. <7월 25일 보고서>

○ 2TV 「**리슨 업**」

- K-POP 프로듀싱 배틀 프로그램이다. 1라운드 미션은 '여름'이라는 주제로 10명의 프로듀서들이 경연을 벌였고, BIG Naughty(서동헌)가 최종 점수 768점을 획득하며 1라운드 최종 1위를 차지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프로듀서들의 신곡을 기대하겠다. <8월 9일 보고서>

○ 2TV 「**광복 77주년 코리아 온 스테이지**」

- 광복 77주년을 맞아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공연을 보여주었다. 공연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의미가 담겨 감동적이었고,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해 볼거리가 풍부했다. 또 송례문을 시작으로 경복궁,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무대가 눈을 즐겁게 했다. 팬데믹 이후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 하는 공연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8월 17일 보고서>

○ 2TV 「**아이 러브 스포츠**」

-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으로, 한 주간의 스포츠 경기 주요 장면을 정리해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점이 스티븐 넘치고 재미있다. 이날은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올 시즌 시작이 좋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 등을 전해주어 잘 시청했다. 가슴 뛰는 스포츠 소식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주어 감사하다. <8월 24일 보고서>

○ 2TV 「**오케이? 오케이!**」

- 열한 번째 출장지로 MZ 세대들의 대표 핫플레이스인 연남동이 선택됐다. 오은영 박사, 양세형 씨,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위해 23년 차 스타 셰프 정호영와 금잔디 씨가 함께 했다. 홀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폐업을 결정했다는 첫 고민에, 출연자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감동과 여운이 남는 좋은 방송이었다. <9월 22일 보고서>

○ 2TV 「1박 2일」'고독한 미식가'

- 이날은 식도락 체험 여행 특집이 방송됐다. 이날 콘셉트는 '고독한 미식가'로, 무안 낙지 한 상을 걸고 게임이 펼쳐졌다. 멤버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게임에 임하는 모습이 고생스러워 보여 안쓰러운 한편, 재미있었다. 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멤버들과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9월 27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천천히 서로 물들어간다'

- 파일럿 프로그램일 때부터 해당 방송을 시청해왔다. 이날은 '천천히 서로 물들어간다' 편이 방송됐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보기 좋았다. 특히 '찐찐 나파블리'라고 불리는 박주호 선수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계속해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좌충우돌 성장이야기를 즐겁게 시청하겠다. <10월 31일 보고서>

○ 2TV 「세컨 하우스」[첫 회]

-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연예인 출연자들이 직접 리모델링해서 살아보는 빈집 소생 프로그램으로, 이날 첫 방송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빈집이 151만여 채라고 하던데, 낡은 집을 고쳐 새로운 집으로 되살리는 콘셉트가 공익적이고 유익하다. 공영방송에서 좋은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출연자들이 빈집을 소생시키는 과정을 응원하며 시청하겠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보스들이 직원과 후배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아성찰 프로그램이다. KBS 메인 해설위원을 맡게 된 구자철 선수, 스피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허재 감독 등의 이야기가 그려졌는데 무척 재미있게 시청했다. 리더와 직원 간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유익한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영화가 좋다」

-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날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서양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 삶아 먹는다는 소문에 격분한 김창식이 증거를 찾고자 선교사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흥미로워서 개봉하면 꼭 관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눈여겨 볼만한 신작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11월 21일 보고서>

○ 2TV 「제 4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 이날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배우 김혜수 씨와 유연석 씨의 사회로 '제 4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청룡영화상 심사 대상에 쟁쟁한 영화들이 많이 올라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영상미가 좋아서 시청 내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영화인들의 화려한 축제를 방송해준 KBS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11월 28일 보고서>

○ 2TV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조별리그 H조 대한민국 : 포르투갈」

-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전을 KBS 중계를 통해 시청했다. 이광용 캐스터와 한준희·구자철 해설위원의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설과 중계가 신뢰도를 높인다. 이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해서 행복했다. 좋은 중계방송을 해준 KBS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2월 5일 보고서>

○ 2TV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TV 시네마」‘유포자들’

-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날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실체를 담은 ‘유포자들’을 방송했다.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웰 메이드 작품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2월 30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매일 빠짐없이 청취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다양한 경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이날도 미국의 증시 상황부터 프랜차이즈 창업의 성공 비법까지, 폭넓은 주제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했다. 계속해서 어려운 경제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R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원더’

- 영화와 책을 소재로 해당 작품 안에서 다채로운 지식을 찾아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에는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이 연출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은 영화 ‘원더’를 다루고 있는데, 작품의 핵심 부분을 쉽고 재밌게 다뤄주어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과 영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R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Week &)’

- 주말 방송으로 다양한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시사포커스’ 코너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일요 스포츠’ 코너에는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가 출연해 대선주자 2차 토론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들을 전해주어 유익했다. 그뿐 아니라 책과 인문학, 생활법률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주어 항상 감사하게 청취한다. 알찬 방송에 감사드린다. <2월 14일 보고서>

○ 1R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정윤주 대표’

- 단약 디자인 연구소 정윤주 대표가 출연해 이혼의 아픔으로 7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이후 수면제를 끊는 과정에서 느꼈던 자살충동과 고통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누군가의 경험담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데, 해당 방송에서 다양한 분야의 리더에서부터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인터뷰해주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2월 16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밤사이 발생한 주요 뉴스 및 속보를 전달해주는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평소 출근을 준비하며 청취한다. 진행자와 패널들의 유쾌한 진행 덕분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도 도시에 사는 청취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1R 「뉴스 중계탑」

- 그날의 주요 사건 사고는 물론,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곁들여 주어 즐겨 청취한다.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 경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알찬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R 「최영일의 시사본부」

- 딱딱한 시사와 경직된 인터뷰에서 벗어나, 각종 이슈들을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다뤄 점심시간마다 청취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시사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주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청취한다. 늘 화제성 뉴스 및 사건사고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더불어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의 안정적인 진행도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계속해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 한 주 동안의 사건·사고를 정리해주고, 사회 트렌드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주는 주말마다 청취한다. 덕분에 시사와 경제, 인문,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늘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청취하겠다. <5월 3일 보고서>

○ 1R 「통일사용설명서」 '통일 사랑방'

- 이날 '통일 사랑방' 코너에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출연해 '남북 평화 에너지 교류와 전기차 산업 협력 전망'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본인이 평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잘 청취했다. 그밖에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등 다양한 북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5월 31일 보고서>

○ 1R 「희망충전 대한민국」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기금 모금과 정기 후원 독려 캠페인을 연중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본인도 한 통화에 3천원인 ARS를 이용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 좋은 취지의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7월 25일 보고서>

○ 1R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시사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없던 해석과 분석이 신선해 오전 시간에 즐겨 청취한다. 이날 휴가철 물놀이하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부터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급등한 물가까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다뤄져 집중해 청취했다. 계속해서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유익하고 공감 가능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8월 5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022 연말 기획 : 성탄절에 만난 사람'

- 연말 기획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 무려 56년간 소외된 여성들을 도운 이희윤 착한목자수녀회 대표 수녀가 출연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덕분에 본인도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연말을 맞아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어주길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백 뮤직」

- DJ 임백천 씨와 제작진이 엄선한 7080년대의 명품 팝송들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나른한 시간인데, 풍성한 음악과 재미있는 사연을 들려주어서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늘 따뜻한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점 감사하다. 앞으로도 유쾌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2R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심야 시간대 라디오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편안한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에 제격이다. 또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2R 「두근두근 음악엔」

- 노래를 많이 들려주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 퇴근길에 청취한다. 시대별, 장르별로 선곡의 폭이 넓고 다양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청취자들에게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특히 진행자인 가수 알리 씨가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재미있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계속해서 즐겁고 유쾌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주현미 씨의 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에서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어 무척 만족하며 청취한다. 주현미 씨만의 따뜻한 감성도 다른 방송에서는 찾을 수 없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만의 매력이다. 계속해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좋은 음악이 있고, 톡톡 튀면서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해당 방송이 편성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을 먹은 후 나른한 시간인데, 늘 흥겨운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하다.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5월 18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저녁시간에 익숙한 팝송을 틀어주어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한다.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사연들, 그리고 진행자 이상호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음성과 차분한 진행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좋은 방송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8월 17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익숙한 가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듣는다. 좋은 노래와 함께 생생한 사연도 들을 수 있어 덕분에 재미있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늘 유쾌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랜 친구 같은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12월 8일 보고서>

○ 3R 「소설극장」'상인의 전쟁'

- 베스트셀러나 고전소설을 선정해 성우들이 낭독해주는 오디오북 개념의 방송이다. 현재는 이경식, 김동걸 작가가 공동집필한 '상인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당시 조선이 놓쳐버린 근

대화의 기회를 조명하는 내용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삼천포라는 지역도 등장해 매우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청취자들에게 훌륭한 소설을 읽어주어 감사하다. <1월 10일 보고서>

○ 3R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 시니어들이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즐겁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이날 궁중음식연구가 한복선 씨가 출연해 '냉이조개국', '봄동겉절이', '개조개 된장구이' 등의 조리법을 알려주어 유익했다. 선곡도 좋아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자기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최윤경 아나운서가 매끄러운 진행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어 매우 만족스럽다. 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6월 14일 보고서>

○ 3R 「내일은 푸른하늘」

-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궁금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참고하곤 한다. 이 방송 덕분에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극복의 의미를 찾고 재할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KBS에서 장애인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주어 감사하다. <8월 5일 보고서>

○ 3R 「명사들의 책읽기」

- 명사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명사들은 어떤 책에서 영감을 얻는지 궁금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어 흥미롭고 유익하다. 공영방송 KBS에서 책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9월 7일 보고서>

○ 3R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

- 다양한 신간과 베스트셀러, 고전 등을 짧은 오디오북 클립으로 발췌해 성우들이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성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 늘 애청하고 있다. 짧은 시간임에도 한 권의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함축적이고 유익하다. 청취자들이 책에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7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최장수 클래식 DJ인 정만섭 씨가 진행하는 「명연주 명음반」의 애청자이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 레이블의 음반을 포함해, 가치 있는 음반들을 중심으로 선곡해주어 늘 즐겨 청취한다. 음반과 연주자에 얽힌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점도 흥미롭다. 본인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는 등, 꾸준히 방송에 참여하겠다. <1월 27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해당 프로그램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다양한 음악으로 저녁을 채워주기 때문에, 지친 하루를 보낸 후 퇴근길에 청취하기 좋다.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재즈에 이르기

까지 장르의 제한 없이 좋은 음악을 선곡해주는 덕분에 큰 위안을 받고 있다. 매일 오후 좋은 음악을 통해 하루를 정리할 여유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2월 7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했던 클래식을 쉽고 유쾌하게 소개해주어 잘 듣고 있다. 해당 방송 덕분에 클래식이 조금씩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항상 선곡이 좋은 편인데, 특히 이날은 '호두까기 인형' 수록곡을 비롯해 좋은 곡이 많이 소개되어 줄음이 밀려오는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15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청취자들의 평화로운 밤을 위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심야시간대 라디오 방송이다. 이날따라 선곡이 좋아 깊은 감동을 느꼈고, 너무 좋은 방송이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성악곡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친 오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진행자의 차분한 진행과 함께 오후 시간대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이 듣는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1FM 「KBS 클래식FM 개국 43주년 특집 <클래식을 말한다>」**

- 클래식FM이 개국 43주년을 맞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개국 특집 방송을 했다. 올해는 '클래식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클래식 음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덕분에 풍성한 라이브 연주와 연주자들의 명언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개국 43주년 축하하고,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아침 시간, 하루를 준비하며 「출발 FM과 함께」를 청취한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사연을 들려주고, 날씨 정보까지 제공해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특히 진행자의 따뜻한 멘트에서 하루를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많다. 매일 아침 좋은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4월 4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간결하고 알찬 구성으로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악 사건과 최신 이슈들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하다. 이날은 선곡이 좋아서 평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했다. 계속해서 우리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연주를 충실하게 전해주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배경지식 없이는 진입장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프로그램이다. 다른 클래식 방송에서는 곡 전체를 들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방송에서는 길이가 긴 곡도 완곡을 들려줄 때가 많아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늘 좋은 선곡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선물해주어 감사하다. <5월 19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좋은 음악뿐 아니라 영화와 재즈, 에세이까지 소개해주어 다방면에서 상식을 넓힐 수 있어 유익하다. 항상 선곡이 좋은 편이지만, 이날따라 서정적이고 아늑한 곡이 많이 소개되어 기분 좋게 청취했다. 늘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6월 21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온종일 1FM을 청취하는 오랜 애청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악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방송으로,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음악을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주어 좋아한다. 덕분에 우리음악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 흐뭇하다. 가끔씩 음악과 함께 책도 소개하는데,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다양한 전통 음악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7월 6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세계각지의 연주회 실황을 입수해서 최신 연주를 들려주는 방송이다. 음악회를 생생한 현장음 그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만족하며 청취한다. 더불어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의 상세한 설명과 해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늘 좋은 방송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깊고 풍부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2FM 「상쾌한 아침」

- 오전 5시에 「상쾌한 아침」을 시작으로 온종일 KBS 2FM을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방영하지 않는데, 누구보다 일찍 신나는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한 방송을 만들어 주어 만족스럽다. 늘 좋은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활력을 선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월 6일 보고서>

○ 2FM 「조정현의 굿모닝팝스」

- 출근 시간을 이용해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영어공부를 한다. 혼자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과 함께 공부하니 능률이 배가 된다. 이날은 휘트니 휴스턴, 에드 시런 등 유명 가수의 곡을 들려주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유익하게 청취하겠다. <1월 7일 보고서>

○ 2FM 「조우종의 FM대행진」

- 매일 아침 출근길에 청취한다. 진행자가 아침에 어울리는 밝은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사연을 들려주고, 좋은 음악들을 선곡해주어 출근길이 즐겁다. 그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분야도 재미있게 전달해주어 유익하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소소하지만 따뜻한 사연을 많이 들려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즐겨 청취한다. 해당 방송 덕분에 오후 시간을 경쾌하게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 진행자 이금희 씨만의 정겨운 느낌과 반전 매력도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늘 변치 않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는 이금희 씨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3월 30일 보고서>

○ **2FM 「이기광의 가요광장」**

-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소개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일 점심시간에 청취하고 있다. 아이돌 출신 이기광 씨의 유쾌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 위주의 선곡도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즐기고 나른한 점심시간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송이 되어주길 바란다. <5월 23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음악 프로그램임에도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부터 남녀의 솔직한 속마음을 톡 터놓고 나눠볼 수 있는 코너까지, 너무도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청취한다. 품격 있는 음악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7월 7일 보고서>

○ **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 윤정수 씨와 남창희 씨의 재치 있는 입담에 끌려 애청 중인 청취자이다. 두 진행자의 장난스럽고 편안한 진행이 매력적이다. 선곡도 좋고 청취자들의 사연도 유쾌해서 매일 재미있게 청취한다. 앞으로도 청취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해주길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2FM 「설레는 밤」**

-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심야 시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답게 편안하고 조용한 음악 위주로 선곡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또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해당 방송의 경우 다소 이른 시간 대 편성으로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방송을 잘 듣고 있다. 진행자의 친근감 있는 진행도 해당 방송의 묘미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에게 감사드린다. <3월 4일 보고서>

○ **한민족1 「경제로 통일로」**

- 북한 동포들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에서 해주는 설명들이 너무 유익해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늘 쉽고 재미있는 설명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한민족1 「경제로 통일로」**

- 북한 동포들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에서 해주는 설명들이 너무 유익해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늘 쉽고 재미있는 설명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 **한민족1 「팝스 프리덤」**

- 북방동포들과 팝송을 통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팝 명곡들을 BGM형식의 음악포맷으로 구성해 들려주는 점이 신선하다. 늦은 시간 편성에도 독특한 매력 때문에 자주 청취하게 된다.

이날 잘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곡들이 많이 소개돼 즐겁게 감상했다. 좋은 방송을 위해 고생하는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1월 29일 보고서>

○ **한민족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점이 많아 꾸준히 청취한다. 이날은 '광해군과 비변사의 충돌'을 다뤘는데 흥미롭게 들었다. 청취자들에게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2월 7일 보고서>

○ **한민족1 「통일사용설명서」**

- 어머니가 북한 분으로, 북한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이날 북한의 연말 분위기와 대중문화를 다뤄주어 관심을 갖고 청취했다. 또한 방송 중간 틈틈이 나오는 음악의 선곡도 좋았다. 매주 일요일마다 궁금한 북한 소식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12월 26일 보고서>

| 9. 표현(소재) |

○ **1TV 「신년 기획 국악 한마당」'2022 신년특집'**

- 국악을 좋아해서 토요일 낮에는「국악 한마당」을 시청하기 위해 약속도 잡지 않는다. 이날은 여러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를 새해 선물로 선사한다고 했는데, 다른 아닌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가 출연해 많은 분량을 소화했다. 시청자들은 국악을 듣기 위해 시청하는 것이지, 다른 장르의 음악을 원하는 게 아니다. 국악에 집중하는 방송을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도전! 꿈의 무대'를 무척 좋아하지만, 투표 방식에 다소 의문이 든다. 참가자들이 사연을 소개할 때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각각 배분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 이날도 3번, 4번 참가자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압도적인 표를 얻었다. 사연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1차적으로는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방송3사 합동 초청-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

-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 주관으로 첫 양자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며, 대선 구도가 3자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여겨지니 3자 토론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첫 TV 토론 평가...누가 잘했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이 출연해 지난 3일 열렸던 '2022 대선후보토론'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러나 여당 측 인사는 여당 후보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야당 측 인사는 야당 후보가 잘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유익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시청한 후 각 후보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2월 7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황금 보약, 호박’

- 항암효과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잡는 호박을 다뤘다. 호박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은 식품을 가르쳐주어 열심히 시청했다. 그런데 한명숙 요리연구가가 조리법을 설명할 때, 옆에서 배우는 아나운서들과 패널 전효실 씨가 마스크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아 보기 불편했다. 코로나 시국이고 식재료를 다루는 만큼 위생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열린음악회」

- 3월 3일, 한국 방송 공사 창립일을 맞아 기획방송으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가수가 섭외되지 않았고, 공감하기 어렵고 난해한 곡들이 많이 선곡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인 시청자들의 다양한 음악 취향에 맞춰 대중적인 가수와 노래로 무대를 꾸며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수요일엔 수산물’

- 봄을 맞아 보양식에 빠질 수 없는 붕장어를 잡으러 갔다. 그런데 붕장어를 잡는 과정에서 폐그물이 낚시줄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낚시줄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선원들이 폐그물을 잘라냈는데, 따로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방송돼 보기 불편했다. 폐그물은 바다 오염의 주범이니, 앞으로는 반드시 수거해주시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

- 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효용성을 취재했다. 그런데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입장만 다뤄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공영방송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한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트로이, 신화가 역사가 되다’

- 교과서나 책을 통해선 알 수 없었던 우리나라 역사의 비화를 무게감 있게 다루는 점이 해당 프로그램만의 매력이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투탕카멘의 저주를, 이날은 트로이 전쟁을 다뤘는데 흥미 위주의 주제 선정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다시 예전처럼 교양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주제를 다뤄주었으면 한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혐오 팬데믹’

- 인간이 혐오에 빠지는 이유와 확산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일예로 지하철 장애인 시위와, 이에 부정적인 시민 반응이 다뤄졌는데 해당 주제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졌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닌, 교통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측은지심에 빠지기 보단, 시비지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본다. <4월 28일 보고서>

○ 1TV 「가정의 달 기획 아침마당」‘화요초대석 - 가정의 달 기획, 요즘 가족’

- 본인은 세 명의 자녀를 입양한 시청자이다. 이날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현재는 아동 인권 강사로 활동 중인 전안나 씨가 출연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가정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날 방송이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까 우려된다. <5월 4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용산 대통령 시대 준비는 끝났나'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갖는 의미와 이전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조명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논란에 집중해 공정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과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5월 9일 보고서>

○ 1TV 「시사멘터리 추적」'KOK 토크 추적기 디지털 범죄? 봉이 김선달?'

- KOK 토크 추적기가 방송됐다. KOK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과 수익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 또는 불법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도했다. 본인은 KOK 투자자로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방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

-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아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부부의 사례를 보도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영방송에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의 입장만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행 결혼법이 수정된다면 집단혼인 등 전통적 결혼의 가치를 훼손할 많은 법 제정이 요구될 수 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함께 다루주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국회서 차별금지법 공청회...15년 만에 '첫발''

-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며 국회 앞에서 45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참석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농성도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민들의 인터뷰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만 다루졌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만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은 편파적이다. <5월 30일 보고서>

○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1TV에서 우측 상단에 '이 시각 투표율'을, 하단에 '현재 투표율'을 표기하고 있다. 본인은 청각이 좋지 않은 시청자로 방송 중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이해하는데, 투표율 자막이 본 방송 자막을 가려 시청이 불편하다. 우측 상단 자막만으로 투표율 확인이 가능하니 하단 자막은 불필요한 것 같다. <6월 2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유네스코 세계유산 아시아 ① 일본, 교토'

-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일본인의 자부심으로 자리한 교토를 주제로, 교토에 담긴 역사를 살펴보았다. 현재 코로나19의 완화로 해외여행 규제가 풀림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을 여행지로 홍보하는 것처럼 여겨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걸끄러운 관계와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명불허전'

- 이번 '명불허전' 코너에는 평균 나이 50세의 연예계 늦둥이 아빠들이 출연했다. 이상인 씨, 홍록기 씨, 김현욱 씨 등 다양한 출연자들이 근황을 전한 후 시청자들에게 춤과 노래를 선사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아닌 현충일이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에, 출연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난민 -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

-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난민 인정률이 최하위권인 이유를 다뤘다.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그 반대의 이유들이 실증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엄연히 유럽에선 난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만 방송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주기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동물극장 단짝」'32견공과 수의사, 비밀의 정원'

-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32마리의 견공들을 돌보는 수의사 손서영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개들에게 쌀밥을 지어 먹이고, 돼지 등뼈와 닭고기를 삶아 먹이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밥을 굶는 빈곤층이 있다. 과한 동물 사랑이 보기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1TV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국악의 신세계 소리꾼 이윤아'

- 국악인 이윤아 씨의 예술세계를 들여다보았다. 방송 중반에 이윤아 씨가 '대니보이(Danny Boy)'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해당 곡은 1913년에 나온 아일랜드의 포크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 씨의 편곡도 유명한데, 자막에 '원곡 김광민'으로 적혀 있었다. 원곡이 아닌 편곡으로 자막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 <6월 22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북한 자본주의 꽃, 마약'

- 이날은 외화벌이로 시작된 북한 마약이 국제화, 체계화된 조직범죄로 성장한 과정을 파헤쳤다. 북한이 시시각각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또한 정권이 바뀌자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작된 북한의 마약을 비판하는 점도 보기 불편하다. <7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야스쿠니 신사 참배, 수출 규제"...日 대표적 강경파 우익 상징'

-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격에 숨졌다. 9시 뉴스에서 아베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주었다.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인물이지만, 사망 소식을 전하며 전범인 외조부를 언급하는 등 비판 조로 보도하는 것은 다소 불편했다. 주요국 정상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언론에서도 비판보다 애도를 표했으면 한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부자나라 연금빈민'

- 대한민국 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보훈 급여금이 연금고갈의 원인 중 하나인 듯 다뤄졌다. 본인도 국가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의 급수는 크게 1~7급으로 나뉜다. 본인처럼 급수가 낮은 국가유공자는 소액의 연금을 받는데, 마치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고액연금수령자처럼 다뤄져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일백탈수 지역민국!'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출연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연했

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수도권 과반 인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힘든 세상이라 낳지 않는 것이다. 본인도 지방에 거주하다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인데, 정석 교수의 강연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았고 공감되지 않았다. <8월 2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너를 사랑해'

- 일상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의 실태를 취재했다. 본인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인데,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었고 적나라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여러 번 놀랐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각심을 준 부분은 유익했지만, 그루밍 성범죄 방식을 너무 자세히 다루어 오히려 모방 범죄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8월 4일 보고서>

○ 1TV 「시사멘터리 추적」'얼굴들, 학살과 기억'

- 월남전에 참전했던 시청자이다. 당시 5천 명이 넘는 한국군이 사망했고, 2만 명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다. 본인 또한 목숨을 걸고 참전했는데, 이날 방송에서 한국군을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로 다루어 참담하다. 현재도 수많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월남전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무력감을 안긴 점에 실망스럽다. <8월 8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관리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조현병 사각지대'

- 지난 6월, 40대 남성 A씨가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았고, 범인 A씨는 다른 아님 조현병 환자였다. 본인도 현재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언론에서 조현병을 조명할수록 조현병에 대한 공포와 오해를 재생산 할 수 있어 우려된다. <8월 9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7」

- KBS에서 이날 오전부터 태풍 힌남노가 물러날 때까지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들 중 안전모를 허술하게 착용한 기자들이 몇몇 있어 우려가 됐다. 안전모를 착용할 때 반드시 턱 끈을 단단히 조여야하며, 앞쪽으로 숙여 써서 이마와 안면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해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1TV 「추석 기획 일꾼의 탄생」'갑갑한 비닐 벽을 바꿔줘'

- 일꾼들이 첫 번째로 해결한 민원은 이인순 어르신 집의 갑갑한 비닐 벽을 바꾸는 일이었다. 이인순 어르신이 "막내 사위가 집에 있는 걸 가져와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더 단단하게 해준다더니 바쁘니까 안 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도 멀쩡했고, 엄연히 자식들도 있는데 굳이 KBS에서 비닐 벽을 교체해줘야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귀중한 시청료가 보다 어려운 어르신을 돕는데 사용되길 바란다. <9월 13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영국 여왕 서거, 흔들리는 군주제 영국의 미래는?'

- 지난 8일,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다. 이날 여왕의 서거 이후 군주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현재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슬퍼하고 추모하는 시점이라 군주제 폐지론 언급이 다소 시의적절하지 않게 느껴졌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이날 오후 1시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3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고, 본인도 해당 집회에 관심이 많아 9시 뉴스를 주의 깊게 시청했으나 보도되지 않아 의아했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보도해주기 바란다. <10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진료비 눈덩이’ 경상 교통사고, 업살 아닌지 실험해봤더니...’

- 본인은 운전기사이다. 이날 가벼운 차 사고에도 치료비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촉 사고가 사람 몸에 충격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보도 내용이 보험사 측 입장만 다루고 있어 아쉬웠다.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에는 피보험자가 약자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잉진료, 과잉청구라는 인식이 생겨 피해자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10월 6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시청자 문제’

-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출제되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시청자 문제’라는 코너가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 고령층 시청자들은 문제를 풀어도 정답을 확인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방송에서도 ‘시청자 문제’ 코너의 정답을 꾸준히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10월 26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12」

-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와 관련된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 압사 사고 현장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져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뉴스에서마저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이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가급적이면 영상과 사진 노출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지난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오후 2시경 해제되었는데, 이날 늦은 시간까지도 1TV와 2TV 모두 계속 경계경보에 대한 안내 자막이 표기됐다. 지나친 경계경보 자막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송에 대한 집중을 저해해 안타까웠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을 기다리는...2022 심야 택시 대란’

- 본인은 지방의 택시 기사이다. 이날 ‘그 많던 택시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라는 물음으로 심야 택시 대란을 다뤘다. 그러나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곳은 일부 지역일 뿐이다. 지방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택시 수는 줄지 않아 승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방송이 아닌, 지방 택시 기사들의 고충도 다뤄주기 바란다. <12월 12일 보고서>

○ 2TV 「2021 KBS 연기대상」

- 2021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2021 KBS 연기대상」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올 한 해 KBS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했기에 누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해서 온 가족이 모여 시청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여서 의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인데,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1월 3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편셰프들이 '먹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메뉴 개발 대결을 펼쳤다. 두바이 엑스포에 초대된 기태영·유진 부부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메뉴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런데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국민들에게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많은데 해외 촬영이 보기 불편했다. <1월 17일 보고서>

○ 2TV 「주접이 풍년」[첫 회]'송가인 편'

- 이날은 가수 송가인 씨의 공식 팬카페 어게인의 팬덤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강렬한 핑크색의 옷을 맞춰 입은 송가인 씨의 팬들이 깃발을 흔들고 떼창, 칼군무를 선보이는 장면이 마치 선거유세를 떠올리게 해서 보기 안 좋았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도 우려된다. <1월 24일 보고서>

○ 2TV 「설 특집 자본주의 학교」

- 10대들의 경제생활을 관찰하는 신개념 경제관찰예능으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세계에서 생존법을 터득하게 되는지를 다뤘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런데 현주엽 씨가 두 아들과 함께 한우 16인분을 먹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어려운 시기에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 위화감이 들었다.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베이징」'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황대헌 선수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실격 당했다. 현재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의 편파 판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이 사라진 베이징올림픽 편파판정에 대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2월 9일 보고서>

○ 2TV 「노래가 좋아」

- 이날 '30년 시집살이의 끝' 팀이 2승을 차지할지, 아니면 '박 씨들을 고발합니다' 팀이 1승을 차지할지로 경합을 벌였다. 결국 '박 씨들을 고발합니다' 팀이 98점으로 최종우승을 차지했는데, '30년 시집살이의 끝' 팀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의아했다.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두 팀 모두의 점수를 명백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패션 이벤트 기획 회사 최은호 대표와 청담점 정식 오픈을 한 김병현 씨 관련 내용이 방송됐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최은호 대표가 반려견에게 명품 스카프를 매주고 값비싼 간식을 먹이는 모습에 위화감을 느꼈다. 또한 김병현 씨가 매장에 손님이 있음에도 게임을 하고 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운영하는 모습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3월 29일 보고서>

○ 2TV 「주접이 풍년」'나훈아 편'

- 데뷔 55주년을 맞는 가황 나훈아 씨의 팬클럽이 모였다. 주접단 개개인들의 팬질 일상 및 각자의 독특한 주접 생활이 소개됐는데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만 나훈아 씨가 출연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인들과 함께 끝까지 시청했는데, 결국 출연하지 않아 굉장히 아쉬웠다. 덕질의 대상인 스타도 함께 출연한다면 재미가 배가 될 것 같다. <4월 4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굿모닝 퀴즈’

- 시청자들이 티벳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굿모닝 퀴즈’라는 짧은 코너가 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기도 해서 종종 퀴즈에 참여한다. 그런데 퀴즈의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진행자들이 과도하게 힌트를 주어 거의 정답을 알려주는 수준이다. 정답에 가까운 과한 힌트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국민배심원’

- ‘국민배심원’ 코너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라는 주제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방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해제는 찬반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티벳 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시청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공정하지 않다. <4월 29일 보고서>

○ 2TV 「자본주의 학교」

- 현주엽 씨 가족이 한우 선물세트 판매에 도전했다. 현주엽 씨와 두 아들은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직접 먹어봐야 한다며 엄청난 양의 1++ 초특급 한우를 먹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2TV 「1박 2일」‘하나 빼기 투어’

- 이날 ‘하나 빼기 투어’ 특집의 마지막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런데 멤버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산 문어에 소금을 뿌려 세척한 뒤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과정이 그대로 방송됐다. 영국의 경우 동물복지법의 대상을 무척추동물로 확대해 랍스터나 문어 등을 산 채로 요리하는 것이 금지됐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건강기능식품 회사 CEO 여에스더 씨가 새로운 보스로 합류했다. 여에스더 씨는 이미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 이상을 보유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공영방송까지 출연해 자신의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장윤정 씨의 단합대회 부분에서, 후배들이 장윤정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역 특산물로 선물공세를 퍼붓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6월 7일 보고서>

○ 2TV 「1박 2일」‘열대야 특집’

- ‘열대야 특집’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폐교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겁이 없는 멤버도 있었지만, 단단 씨를 비롯한 일부 멤버들은 비명을 내지르는가 하면 눈물까지 글썽이기도 했다. 사람에 따라 담력이 약해 공포에 취약할 수 있는데, 멤버들에게 다짜고짜 폐교 체험을 시키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 SNS 모델로 활동하는 김건민 씨가 리콜남으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를 소환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선섹후사’, ‘선사후섹’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신조어가 사용돼 자녀와 함께 시청하던 중 충격을 받았다.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이처럼 낮 뜨거운 표현이 가감 없이 사용되는 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추석특집 스포츠 골든벨」

- 각 분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0명의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해 두뇌 대결을 펼쳤다.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낮았음에도 출연자들이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재미가 떨어졌다. 또한 타 예능 프로그램들에 수없이 출연해왔던 출연자들을 또 섭외해 방송을 제작하니 지루하고 식상하게 느껴졌다. <9월 13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홍성흔'

- 이날 홍성흔 씨의 아들 홍화철 군이 친구들과 포경수술에 대한 논의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고, 차려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어 중학생 아이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수술대에 누운 모습,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등이 그려졌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예능의 소재로 사용한 점이 불편했다. 성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9월 20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엄마는 슈퍼우먼 - 도토리 가래떡 만드는 엄마'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조순옥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철만 되면 도토리 가래떡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게 전부 내가 산에서 주워 온 보물"이라며 도토리를 자랑하는 장면이 있었다. 도토리는 산짐승들의 먹거리로,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워 먹을 게 없어지면 산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게 된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6일 보고서>

○ 2TV 「홍김동전」

- 이날은 '조용히 먹기' 게임이 펼쳐졌다. 60DB 이하의 소리로 먹어야 하는데,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쟁반이 머리 위로 떨어진다. 출연자들이 쉴 새 없이 쟁반으로 머리를 맞았는데, 그 모습이 재미있기 보다 안쓰러웠다. 외부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상당수의 뇌세포가 죽을 수 있다. 아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으니 가학적인 장난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1박 2일」'경상도, 초호화 럭셔리 패키지 투어'

- 시즌1부터 함께해온 김종민 씨의 활약에 반해 꾸준히 시청 중이다. 그런데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인지, 매회 김종민 씨를 너무 희생시키는 것 같다. 이날도 김종민 씨가 2연속 선택 관광에 당첨되며 역대급 불운을 입증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특히 불편한 슈트와 구두 차림으로 산을 오르는 장면에선 마음이 아팠다.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가학개그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11월 29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해당 방송이 시작될 때의 화면과 홈페이지에 얼핏 무지개처럼 보이는 육지개가 표현된다. 그런데 남색과 보라색이 합쳐진 육지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섯 명의 멤버를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보기 불편한 시청자들을 위해 수정해주기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1R 「시대음감」

- 음악 평론가 김태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는 설정이 좋고,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하다. 다만 'MZ세대' 등 일부 청취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가급적이면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 유튜브 생중계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KBS 1라디오를 시청한다. 주진우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사 정보를 전달해주는 해당 방송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패널이 출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지만, 혼자 진행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제작진과 방송 관계자들이 많은 방송국 실내에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1R 「기억을 기록하다」

- 농어촌 일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뤘다. 그런데 '깎아 한 장 뒤에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진 않았을지, 열악한 숙소에서 살며 깎아를 따지 않았을지' 등의 표현이 사용됐고,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불편했다. 모든 농장주가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 인터뷰2'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하는 시점인데, 그날 경찰의 잘한 점만 부각시킨 인터뷰여서 유익하지 않았다. <11월 4일 보고서>

○ 1R 「기상통보」

-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꼭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상에 관한 각종 정보나 예보를 알려주어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다뤄질 때가 있고, 다뤄지지 않을 때가 있다. 산소농도의 미세한 차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니, 날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꼭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어 무척 만족하며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크게 인기를 끌었던 옛 대중가요 중에는 외국의 팝송을 번안한 곡들이 많다. 현미 씨의 '밤안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번안곡의 인기가 원곡의 인기를 뛰어넘을 정도였다. 앞으로 번안곡을 선곡할 때는 원곡도 함께 소개해주면 더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다. <1월 18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팝 칼럼니스트이자 영화평론가인 김태훈 씨가 시사·과학·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해주어 출근길에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다. 다만 예전에는 친숙한 팝을 많이 들려주어 출근길이 경쾌했는데, 최근 들어 재즈 음악이 많이 선곡돼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청취자들이 하루를 밝고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음악 위주로 선곡해주시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나른한 오후를 좋은 노래와 함께 보내기 위해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이날 오프닝 멘트에서 여름이 나온지 겨울이 나온지를 물었다. 이어 진행자가 "옛말에 없는 사람에게는 여름이 낫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냉방시설이 없으면 여름 한 철 견디기 힘든 요즘엔 통하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냉방시설 없이 여름을 나는 저소득층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다양한 계층이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10. 언어 |

○ 1TV 「인간극장」'농부와 첼리스트'

- 버섯 농부 이준근 씨와 첼리스트 임보람 씨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삼 남매와 뱃속 아이까지 곧 네 명의 아이들의 부모가 될 예정이다. 그런 임보람 씨에게 내레이터가 '경력직 임산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듣기에 좋지 않았다. 경력직은 직업이나 직위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임신은 직업이나 직위가 아니므로 생소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4월 26일 보고서>

○ 1TV 「예썰의 전당」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술작품을 둘러싼 창의적인 감상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제목만 봤을 때 '예썰'이라는 표현이 너무 생소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술'과 '썰'을 합친 표현인 것 같은데, '썰'은 의견이나 생각, 이야기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 겨루기」에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작 KBS 프로그램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든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80대 고령층 시청자이다. 뉴스에서 '프레임', '네거티브' 등 외래어가 자주 사용돼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이르는 신조어 '내로남불'도 종종 사용되는데, 본인은 사자성어인 줄 알았다. 공영방송에서만큼은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로 순화해주었으면 한다. <7월 27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쌤'으로 불러내 지혜를 얻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쌤'은 선생님의 줄임말로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만, 선생님을 낮추어 부르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우리말 겨루기」에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작 KBS 프로그램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든다. <12월 6일 보고서>

11. 방송품질 |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코로나19 발병 이후 스튜디오에 패널이 출연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차단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날 정치부 기자가 출연해 대선 정국의 흐름을 짚어보았는데, 앵커와 기자 사이의 가림막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지저분했다. 이런 점은 시정바라며, 스튜디오의 청결 유지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목요특강'

- 4명의 전문가가 출연해 강연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목요특강'의 애청자이다. 그런데 강연을 할 때 패널의 뒤편으로 탁상시계가 놓여있는데 멈춘 상태이다. 단지 장식품일 수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풍수에선 멈춘 시계를 해로운 물건으로 여겼다. 수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국민 프로그램인 만큼

이왕이면 작동이 되는 시계로 장식하면 보기 좋을 것 같다. <6월 1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2022 세계 유기농 엑스포 성공 기원'

- 이날 방송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괴산에서 진행됐다. 초가를 정취를 느끼며 우리 가요를 즐기던 중, 배일호 씨부터 박상철 씨, 김혜연 씨의 무대에서 가수들의 입모양과 싱크가 맞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소한 사고가 무대에 대한 집중을 저해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2TV 「해 불만한 아침 M&W」

-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이날 첫 회가 방송됐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스튜디오의 배경이 온통 붉은색이라 금방 눈이 피로해졌다. 아침시간에 잠이 덜 깬 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많을 텐데, 눈에 편한 배경으로 바뀌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10일 보고서>

○ 기타 「유튜브」

-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7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 새 앨범 'Proof'의 타이틀곡 'Yet To Come'과 'For Youth' 무대를 공개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KBS Kpop'에서 각 멤버 별 직캠 영상을 공개했는데, 'For Youth'에서 정국 직캠 영상의 화질이 다른 멤버들의 영상에 비해 떨어졌다. 전 멤버들의 직캠 영상을 동일한 화질로 개선해 다시 업로드해주시기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12. 시청자 참여 |

○ 1TV 「열린음악회」

-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 'PCR음성확인자'에 한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열린음악회」의 오랜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을 방청하는 것이 소망인데, 나이가 많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부터 쉽지 않다. 본인처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쉬운 방청신청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월 11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장바구니를 잡아라'

- 해당 방송에서 종종 '장바구니를 잡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송을 시청한 후 소감이나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긴 사람 중 다섯 명을 선정해 장바구니를 선물로 보내주는 이벤트이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어 고령층 시청자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다양한 연령의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확대해주시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해당 방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지역 예심 및 녹화를 잠정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날도 스페셜 편으로 대체되어 과거 경남 거제시 출연자들의 무대를 다시 보여주었다. 이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니, 지역 예심을 재개해 다시 예전처럼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4월 2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 매주 시청한다. 다만 시청자들이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용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법뿐이라 안타깝다. 필력이 부족할 경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시청자도 많다. 전화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월 4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안녕히 주무셨습니까?'

- '목요특강'에서 건강한 수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면의 양과 질이 낮아지는 고령층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다. 다만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티벳'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야하는데, 고령층 시청자들은 어플 사용에 능숙하지 않다. 전화 연결이나 문자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 <5월 27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전문가 패널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쟁점과 해법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청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됐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대면 방청을 시작해주었으면 한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

- 3명의 연예인이 일꾼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시청자이며 해당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서만 참여할 수 있어, 본인처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시청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설 특집 1020 전국노래자랑'

- 홈페이지에서 '설 특집' 예심 신청 안내 게시물을 접했다. 본인도 도전하고 싶어 신청하려는데, 만 29세 이하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해당 방송에서 왜 참가자에 나이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 국민 모두에게 참가자격을 주기 바란다. <12월 21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성찰 프로그램으로,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얼마 전 방송을 시청한 후 소감을 남기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시청자게시판이 폐지된 상태라 당황스러웠다.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청자게시판을 다시 운영해주시기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2TV 「영상앨범 산」

- 국내외 명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방송을 통해 감상하는 아름다운 풍경에 기분전환이 된다. 본인에게 좋은 산행 계획이 있어 동행하고 싶은데, 오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밖엔 없다. 본인은 나이가 있어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부터 어려웠다. 다양한 시청자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7월 5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본인은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밤사이 발생한 뉴스 및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매일 오전 해당 프로그램을 꾸준히 청취한다. 특히 '세농퀴' 코너를 좋아하는데, 본인처럼 시각장애인 청취자들은 문자사용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전화연결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정답을 맞히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본인은 시각장애인 청취자로 해당 방송의 오랜 애청자이다. 각 지역의 뉴스 및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어 늘 유익하게 청취한다. 다만 방송에 참여하고 싶어도 문자나 티벳 참여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쉬울 때가 많다. 본인처럼 장애가 있는 청취자들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4월 7일 보고서>

○ 1R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2 대한민국 1교시 - 똑, 똑, 똑(Talk)>」

-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었다. 본인도 장애가 있어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을 통한 방법밖에 없어 안타깝다. 장애인들 중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1R 「희망충전 대한민국」

- 해당 방송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과 정기 후원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다만 한 통화에 3천원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다양한 금액을 설정해서 청취자들이 본인 사정에 맞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좋은 음악과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해 선물쿠폰에 당첨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빨리 배송해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13. 홈페이지 |

○ 1TV 「2022 신년특집다큐 거대한 균열 2부작」

-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지 2년이 흘렀다. 그 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균열을 들여다본 다큐멘터리로, 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KBS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한 번 더 시청했다. 그런데 화질이 좋지 않아 아쉬웠다.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의 화질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1월 14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오랜 시청자이다. 항상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진행자와 패널에 대한 비방 글을 자주 게재하고, 다른 시청자가 쓴 글에 종종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다.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관리하고 단속해주시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TV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 9개 총국의 네트워크 공동기획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본인도 예술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홈페이지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청자들의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졌으면 한다. <2월 25일 보고서>

○ **1TV 「동물극장 단짝」**

-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반려동물 다큐멘터리로,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다. 때론 드라마보다도 진한 감동을 선사해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한다. 한편 소재 제보를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 아쉽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자 게시판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1TV 「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 21편」 '우리는 혼자인가'**

- 국내 프로그램에서 접해보지 못한 SF 어드벤처 다큐멘터리로, 이날 방송은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주를 향한 강렬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송이었다. 다시 한 번 시청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감동이 떨어졌다. 고화질 버전의 서비스도 제공해주시기 바란다. <12월 19일 보고서>

○ **2TV 「백종원 클래스」**

- 백종원 씨가 전 세계 어디서든 해외의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해 한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아 해당 방송을 챙겨보고, 소개된 요리를 만들어보기도 한다.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레시피를 올려주는데 고령층 시청자들을 받아 적기 힘들 때가 많다. 여타의 프로그램들처럼 레시피를 영상이 아닌 글로 올려주었으면 한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알찬 소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선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들이 각종 경제, 국제 뉴스를 전해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다만 제목에 사용된 'M&W'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홈페이지에도 접속해 보았으나 설명이 적혀있지 않았다. 제목에 대한 설명 정도는 홈페이지에 기재해주시기 바란다. <8월 26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알찬 소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선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각종 뉴스가 도움이 된다. 방송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아 원하는 회차를 찾기 어렵다. 다시보기 게시판 내 별도의 검색창을 통해 방송 정보 키워드 혹은 출연진 이름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9월 23일 보고서>

○ **1R 「바른말 고운말」**

- 청취자들의 바른말 사용과 언어 순화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이다. 2분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속담이나 관용구, 다양한 사자성어까지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방송내용이 유익해 수시로 참고하면 좋을 텐

데, 홈페이지 방송내용 게시판이 2020년 9월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방송내용도 속히 업데이트 해주기 바란다. <8월 29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대한민국 경제오디션 - 내가 경제스타K'

- 현재 해당 방송의 홈페이지에서 총상금 6천만 원을 내걸고 경제오디션을 열고 있다. 공모기간부터 공모 주제와 모집부문, 방송일시 등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반면 글 작성 시 분량 등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 참여를 원하는 청취자들이 많으니 홈페이지에 조금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주었으면 한다. <11월 18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항상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연도 소개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신청곡이나 사연 등을 접수할 수 있는 게시판은 마련되어 있는데, 방송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게시판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청취자들이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8월 2일 보고서>

○ **1FM 「새아침의 클래식」**

- 서양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 음악을 주로 선곡한다. 국내 유일의 고음악 전문 프로그램이어서 즐겨 청취하고 있다. 다만 선곡표 업데이트가 다소 느린 점이 아쉽다. 타 프로그램의 경우 일주일 방송분의 선곡표를 미리 업데이트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어떤 음악이 소개될지 알고 듣기 때문에 더 유익한 부분이 있다. 선곡표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혹여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KBS 홈페이지의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22일자 방송을 다시듣기 하니 「이현우의 음악앨범」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청취자들이 22일자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빠른 수정을 요청한다. <11월 25일 보고서>

○ **2FM 「상쾌한 아침」**

- 오전 5시에 시작되는 「상쾌한 아침」의 청취자이다.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방영하지 않는데, 누구보다 일찍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그런데 김도연 아나운서에서 이지연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교체되었는데, 해당 방송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아직까지 '상쾌한 아침, 김도연입니다'라고 소개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12월 29일 보고서>

| 14. 프로그램 구매 |

○ **1TV 「한국인의 밥상」**

- 각 지역의 별미를 소개해주어 매주 시청한다. 방송이 끝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밥상조리서'를 찾아보기도 한다. 방송에 소개됐던 요리들의 조리법과 재료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시청자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와 '밥상조리서'에 소개했던 요리법 등을 책으로 발간해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한 동네들을 돌아보며, 김영철 씨가 들려주는 소박한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서 즐겨 시청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출입이 어려운데, 덕분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삼천리금수강산을 간접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여행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김영철 씨가 방문했던 동네들을 소개하는 도서를 발간해주면 유용할 것 같다. <4월 8일 보고서>

○ 1TV 「2016 희망로드 대장정」

- 해외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사랑과 용기를 전했던 프로그램이다. 도움만 주는 기부에서 벗어나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지난 2011년에 이 프로그램을 엮은 책이 출간됐는데 감동적으로 읽었다. 빈곤으로 허덕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책을 발간해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7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며칠 전 '아이랑 똑딱 요리'라는 코너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방송이 끝난 후 해당 코너에서 소개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레시피가 기억나지 않아 안타까웠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요리가 소개되지만 일상에서 응용하기 어렵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FM 「조정현의 굿모닝팝스」

- 해당 방송으로 영어공부를 한다. 혼자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방송과 함께 하니 능률이 배가 된다. 방송이 유익해 책자도 정기구독을 하고 싶은데, 실물책보다 편리한 전자책(e-book)으로 구매하고 싶다. 전자책(e-book) 서비스도 제공해주기 바란다. <12월 1일 보고서>

| 15. 보도 제언 |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새해를 맞아 9시 뉴스에서 대선 주요 후보 4명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차례로 출연할 예정인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빠져 아쉽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허경영 후보를 포함한 소수정당 후보들의 정치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이날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겼다. 그동안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했음에도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니 허탈한 마음이 든다. 언론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없는 점도 아쉽다. KBS 뉴스에서 방역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법과 체계를 모색해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발달장애인 시청자이다. 사전투표를 한 후 투표 현장이 여전히 장애인들이 투표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일부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는데, 발달장애인이 혼자 투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밖에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에 좁은 기표소 크기나 책상 높이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취재 후 보도해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지난 6일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영방송 KBS에서 '김만배 녹취록'을 상세히 다뤄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靑 “청와대 특활비 역대 최저...무분별한 ‘옷값 의혹’ 유감”

-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 최저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엇갈린 해명 때문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만 원권 현금 결제했다는 증언 및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이 청와대에 채용된 것에 대해 보도해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리 대통령이 나토 정상 회담에 참석하는 건 처음으로, 외교적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KBS에서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 점이 의아하다. 이날 9시 뉴스에서도 전기 요금 인상 소식 등에 밀려 뒷부분에 잠시 다뤄졌을 뿐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을 자세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는 희소식이 발표됐다. 본인은 1차와 2차 모두 지원금을 받았기에 당연히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당황스럽다. 공영방송에서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과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취재, 보도해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43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청구·철회 등)	계
13	0	13	17	43

※ 2022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5일	김**	대선후보 허경영 인터뷰 제외 이 유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2	1월18일	이**	도전 내가최고 방송내용 송달 요 청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3	1월26일	조**	최근 5년간 방송에 동원된 동물 현황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4	2월8일	박**	최근 10년간 수신료 환불 민원 건수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5	2월23일	박**	최근 5년간 수신료 환불 민원 건 수 중 사유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6	2월28일	문화**	다큐ON 방송에 대한 원본영상, 내레이션 원본 등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7	3월2일	김**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 시 처리기 한 등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8	3월4일	장**	대전총구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의 후원, 협찬 비용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7 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9	3월14일	박**	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자료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7 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10	4월1일	황**	KBS내 유리막 설치비용 등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4월5일	장**	1985년 영스튜디오 출연 영상 원본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2	4월28일	옥**	교내에 추가 설치된 TV수상기 수신료 징수 근거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13	5월11일	박**	KBS비즈니스 등 자회사 인원의 직위, 직급 등	기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
14	5월13일	김**	추적60분 경찰서 제보관련 자 료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5	5월16일	박**	15,16,17대 대선 TV토론자료 텍 스트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보 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
16	5월24일	김**	수신료 추가부과에 대한 매뉴 얼 및 관련 근거 등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17	6월3일	권**	KBS의 방송제작비(출연료)관련 지급규정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7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18	6월16일	권**	2009-2021 KBS소유 저작권 목 록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
19	7월12일	K**	시정자위원회 선정위원 명단 공개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20	7월15일	장**	KBS의 정보공개심위원회 현 황, 위원 명단 등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7월22일	반**	뮤직뱅크 K차트 방송접수 중 7개 라디오 프로는?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5항 시험. 연구 등 결정과정
22	7월31일	김**	KBS라디오피디의 개인취향 및 형평성 의문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23	8월3일	임**	공영방송에서 말하는 방송의 품위와 제작진 제재	이송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24	8월29일	황**	방송출연자에게 보낸 편지의 반송이유 등	불문처리	자료부재 및 민원으로 처리 불가
25	8월31일	민**	KBS가 TV수신료 납부를 요청한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7항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26	8월31일	장**	KBS교향악단 운영현황	이송	교향악단에 이송
27	9월5일	유**	KBS의 재난방송 매뉴얼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28	9월8일	이**	1982년<프랑스 친구상회화> 관련 자료 등	정보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29	9월13일	김**	시골버스 등 프로그램 출연자 화면 요청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30	9월19일	조**	KBS 라디오의 누락 프로그램 요청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10월4일	조**	KT노조 민노총탈퇴 회견자료 및 뉴스누락 이유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32	10월5일	김**	KBS미디어텍 관련 판결문 제공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4항 재판중인 정보 해당
33	10월15일	민**	TV수신료 납부 요청한 대상기관 관련 이의신청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7 항 경영상, 영업상 비밀
34	10월18일	서비스* *	KBS운영하는 콜센터 관련 자료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7 항 경영상, 영업상 비밀
35	11월3일	김**	부친의 막사이사이상 수상 자료 등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36	11월9일	정**	KBS교향악단의 악기 구입 시기, 가격 등 현황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7 항 경영상, 영업상 비밀
37	11월29일	안**	KBS보도 4건의 법적 쟁송, 언중 위 과정 여부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38	12월1일	배**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제작비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7 항 경영상, 영업상 비밀
39	12월8일	허**	KBS의 1999년 무렵 동서문화사 오보관련 자료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40	12월12일	신**	2020년-2022년 10월간 정보공 개 신청, 공개건수	공개	청구내용 전체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12월13일	이**	KBSn의 CI이미지 서체 관련 공 개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2	12월16일	이**	1962년-1979년 KBS 드라마의 시놉시스 등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43	12월27일	조**	도올 김용옥 교수의 친일 행위 등 자료	기타	비정보공개 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96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96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1	1	3	5
2		2		4	6
3		3		4	7
4		3		4	7
5		3		3	6
6		4		6	10
7		4		5	9
8		1		6	7
9		4		9	13
10		3		1	4
11		3		6	9
12		4		9	13
계		35	1	60	96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57건)			비제작부문(39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7	23	27	7	21	11	96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5	5.2%
보도 취재요청	3	3.1%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15	15.6%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2	2.1%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12	12.5%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11	11.5%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20	20.8%
난시청, 난청	20	20.8%
경영(직원, 시설)	8	8.34%
수신료		
계	96	1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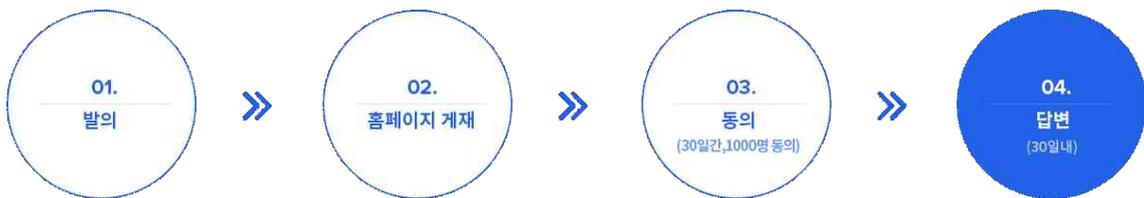
시청자청원

■ 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절차

청원 발의를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 추천은 주요 SNS (Facebook, Twitter, Naver)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카카오의 경우 중복 아이디 차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시청자 프로그램, 동영상,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단, 청원 동의는 SNS회원도 가능합니다.
7.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8.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9.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808	
2		187	
3		133	
4		97	
5		746	
6		115	
7		81	
8		82	
9		78	
10		78	
11		50	
12		72	
계		2,527	

※ 청원: 2018.09.04. 오픈

8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센터에서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³⁾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⁴⁾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센터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⁵⁾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코로나 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보도 제언</p> <p>- KBS 특파원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소속돼 참전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청년 2명을 화상 인터뷰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공한 사진의 GPS 위치값을 분석해 인터뷰 당시 이들이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는 걸 확인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참전자의 위치가 표시된 화면까지 보여줘 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의용군 취재 시의 보도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KBS 홈페이지</p> <p>- 앵커멘트에 나온 참전자의 위치 표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그래픽으로 정확한 GPS 위치값이 아니며, 또한 인터뷰는 지난주 진행됐고 한국인 참전자들은 인터뷰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알려드립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6시 내고향] 방송 제언</p> <p>- 이날은 섬진강의 별미인 민물고기가 소개됐다. 그런데 출연자가 섬진강에서 투망을 사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방송됐다. 본인이 알기로는 민물에서의 투망 사용은 불법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2 국_시사교양 1</p> <p>- 해당 출연자는 2018년 1월 25일 구례군에 내수면어업(투망어업)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어업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수면(담수)에서의 투망어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말이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p>
	<p>□ 1TV [생방송 심야토론] 시청자 참여 제언</p> <p>-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날 전문가 패널들이 대통령 지지율의 원인을 짚어보고, 지지율 반등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토론했다. 본인도 의견을 보태기 위해 실시간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다. 이날 본인의 문자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문자가 전혀 소개되지 않아 의아했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1 국_시사교양 1</p> <p>-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이날은 실시간 문자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자막 제언</p> <p>- 한중수교가 30 주년을 맞았다. 이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성균관대 이희욱 교수가 출연해 한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그런데 한중수교 자료화면을 보여줄 때 이상옥 전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상호로 잘못 표기됐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 자막 표기에 더욱 주의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2 국_시사교양 4</p> <p>- 재방송에는 수정된 자막으로 나갈 예정입니다.</p>
	<p>□ 1TV [해 볼만한 아침 M&W] 홈페이지 제언</p> <p>- 알찬 소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선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들이 각종 경제, 국제 뉴스를 전해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다만 제목에 사용된 'M&W'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홈페이지에도 접속해 보았으나 설명이 적혀있지 않았다. 제목에 대한 설명 정도는 홈페이지에 기재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1 국_시사교양 1</p> <p>- 'Money&World'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램 초기에 안내했는데 추가로 고지하는 것 논의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input type="checkbox"/> 1TV [가요무대] 방송 제언</p> <p>- 이날 방송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괴산에서 진행됐다. 초가을 정취를 느끼며 우리 가요를 즐기던 중, 배일호 씨부터 박상철 씨, 김혜연 씨의 무대에서 가수들의 입모양과 싱크가 맞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소한 사고가 무대에 대한 집중을 저해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예능 4</p> <p>- 편집상 일부 기술적 오류로 입모양과 싱크가 다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input type="checkbox"/> 2R [김혜영과 함께] 상품배송 기간 제언</p> <p>-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좋은 음악과 다양한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해 선물쿠폰에 당첨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첨자들을 위해 빨리 배송해 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라디오 2</p> <p>- 홈페이지 내 청취자 문의에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9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 월 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 본부장, 기술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는다.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5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 또는 'KBS'로 한다)가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해 구축한 '시청자청원'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운영한다.

항목	내용
방송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도	(TV·R)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TV·R)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광고 등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등
방송경영	행사, 사업, 계열사, 수신료 등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KONG, MY K 등
시청자권익	방송피해 및 권리구제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4. 청원 발의 및 청원절차

- ①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접수된다.
 - ② 발의된 청원은 청원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 ③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⑥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⑦ 청원 성사 및 성사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원 발의자에게 알려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②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③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④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⑤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⑥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통신택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발의된 청원에 동의(추천)를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⑦ 관리자는 장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⑨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